

2017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의 서북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동호·흉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7. 3. 22(수) 13: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상고사 토론회 일정

등 록 13:00~13:30

개 회 식 13:30~14:00

사회 :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 사 :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 기념촬영

발 표 14:00~15:40

사회 :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송실대)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고조선과 연·산용·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휴 식 15:40~16:00

종합토론 16:00~18:00

사회 : 서영대 (인하대)

- 김중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 박준형 (연세대)



## ● 목 차

•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6
• 축 사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08
• 발표문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 고조선과 연 · 산용 · 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		13
이후석 (송실대)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39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토론문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 고조선과 연 · 산용 · 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		75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105
박준형 (연세대)		

##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상고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흔쾌히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다섯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항상 우리 재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특별히 축사를 보내주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우리 상고사 연구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소개되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왕검성과 한군현’, ‘고조선과 한(漢)의 경계, 패수는 어디인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낙랑군의 위치’라는 주제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관련 연구자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요서 지역을 조사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고조선사 연구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에서 그 시야를 넓혀 보고자 합니다.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흉노는 동쪽으로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를 공략하자, 동호가 천여 리나 물러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진개가 고조선을 공격했다고 하는 『삼국지』의 기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의 세력권을 논할 때 동호·흉노 등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고사의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하여 함께 자료를 검증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상고사의 폭넓은 연구와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해 주시고 토론을 맡아 주신 이후석, 심백강, 김종서, 박준형 선생님, 그리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영대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봄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 ● 축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하는 상고사 토론회는 그간 강단사학자들과 재야사학자 및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서로 다른 시각과 역사인식을 상호 보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뜻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이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토론회가 유익한 결실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27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총통 등 3개국 원수들이 카이로에 모여, 일본이 제국주의적으로 부당하게 차지했던 모든 영토에서 물러나고, 그간 억압받던 한국은 일정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쳐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망명했던 임시정부 측에서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1월 28일 미국과 영국의 원수들이 귀로에 테헤란에 들러 카이로 회담에 불참했던 소련의 스탈린 국가 원수를 만나, ‘카이로선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이 독립을 하려면 40년간의 훈정(訓政)기간이 필요하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표변한 미 대통령의 발언을 의아하게 여긴 임정 요인들은 깜짝 놀라 각 방면에서 그 이유를 타진한 바 그는 한국민족은 다른 나라에 의존해 왔고, 자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준다고 해설했습니다. 당시 이 말을 전해들은 저의 부친께서 “왜놈들이 만든 역사만 읽었군!” 하시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소위 ‘왜놈들이 만든 역사’를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단재(신채호), 백암(박은식), 석주(이상룡), 성재(이시영)… 모두 모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소사대(以小事大) 하면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독립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침탈한 것이 일본이라는 역사만 배웠지 이처럼 희망 없고 비굴한 우리의 역사를 배운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우리 가정에서나 여러 선생들이 핏대를 올리며 흥분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나에게 평생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써야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게 맞게 써야합니다. 과장하고, 분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학자들의 작업이 우리의 희망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조선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학자들과 같이 여행한 일이 있습니다. 동행했던 어떤 분의 말씀이 왜 학자들은 “우리가 못나고, 잘못된 점만 골라서 역사라고 말하려하는가요?”라고 개탄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육부가 국정화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교 5,566곳에서 단 한학교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 등 배후에 있는 제3세력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하지만 어떻게 99.9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역사를 배급 주듯이 공급한다고 쉽게 받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최근 어느 방송에서 역사교육을 한 것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샀고, 인기를 모으고 시청률이 높아지자마자 학자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역사라기 보단 엔터테이너…… 역사인식 민족주의에 치우쳐”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강의가 “국뽕? 마약에 취한 듯한 지나친 애국주의”라고 위협시 했습니다. 자랑스런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게 마약에 취한 것인가요? 혹자는 이런 역사 강의를 파시스트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균형 잡힌 노력으로 올바른 민족사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이나 뿐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연구된 이론과 논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주시기 기대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8주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이종찬**

##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학술회의 발표·토론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토론문에 제시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 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 발표문

---

-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고조선과 연·산융·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후석 (송실대)
-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고조선과 연·산융·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후석 (송실대)

## I. 머리말

고조선이 문헌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춘추시대 이후이다. 춘추시대의 일이 채록되어 있는 『관자(管子)』와 전국시대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전국책(戰國策)』에는 중원 세력이나 북방 이민족의 동향과 관련하여 고조선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고조선은 ‘발조선(發朝鮮)’과 ‘조선(朝鮮)’이란 명칭으로 각각 등장하며,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변 종족(또는 주민집단)으로 ‘예맥(濊貊)’과 ‘산융(山戎)’, ‘동호(東胡)’, 임호(林胡), 누번(樓煩)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조선’이 문헌 기록에 본격 등장하는 것은 전국시대 중기 이후이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魏略)』과 『사기(史記)』에는 중원세력과 주변 이민족의 갈등 관계 속에 고조선이 연나라와 경쟁하는 정치체로 언급되고 있다. ‘조선’은 ‘王’을 자칭하는 강한 정치체로 성장하였으며, 그 주변 종족(또는 주민집단)으로 ‘동호’ 등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문헌 기록을 고조선 중심지나 영역 관련 논쟁과 관련시켜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다. 먼저 ‘평양설’의 시각에서 보면, 고조선은 춘추시대에 한반도의 서북지역에 중심지를 두고 발전하였으나, 전국시대에는 연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요동 지방의 서쪽 지역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 보면, 고조선은 춘추시대 요서지역이나 요동지역에 중심지를 두고 발전하였으나, 전국시대 이후 연나라에 의해 서쪽 영역을 상실하고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중심지가 바뀐 것이 된다.

고조선이 연에 잃은 서쪽 영역이나 초기 중심지가 어디이며, 또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가 어디인지 규명하는 것은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중국 문헌에는 고조선의 변천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초기 중심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존중하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이라 할 수 있고, 2천여리를 잃었다는 『위략』의 기록에 주목하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서 또는 요동 방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조선과 주변 이민족의 관계에 대한 기록들은 연나라나 제나라의 정복-교류 활동과 관련하여 극히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어 그 구체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선진문헌은 전국시대 이후 또는 전국말~서한초를 전후하여 재편찬된 것이어서<sup>1)</sup> 그 기록에는 후대 편집인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고조선은 산용·동호 등의 이민족과 함께 연의 동북방에 위치하였으나 문헌 기록만으로는 그 시공간적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과 주변 세력의 상호 위치 관계는 문헌 기록의 시공간적 서술 맥락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연의 동북 방면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물질문화들을 함께 검토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기별·지역별로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고조선과 함께 언급되는 비중원계 종족(산용·동호)에 대한 일부 기록들과 연의 동북 방면에서 확인되는 여러 고고문화를 춘추시대(또는 서기전 8~5세기)와 전국시대(또는 서기전 5~4세기)로 구분하여 그 변천 과정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과 연·산용·동호 등의 위치 관계는 한층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Ⅱ. 춘추전국시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에 대한 논의

춘추전국시대 요령지역의 물질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또는 요령식동검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요동지역과 달리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에는 북방계는 물론 중원계의 문화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어 지금까지 그 담당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왔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산용이나 동호 같은 북방계통 주민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으

1)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4.

나, 최근에는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토착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고조선과 연 또는 산용·동호의 위치 관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원래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산용이나 동호와 관련시켜 본 것은 『사기(史記)』 흉노열전의 동호 정벌과 5군 설치 기사<sup>2)</sup> 때문이다. 다만 이 기록에는 산용과 동호가 함께 언급되어 있어 두 집단은 동시기에 요서 방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렇지만 『좌전(左傳)』과 같은 춘추시대의 연대기적 기록에는 동호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sup>3)</sup> 『사기』 흉노열전의 해당 기록들은 흉노가 중국 북방에서 등장하는 과정을 함축적·도식적으로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다. 관련 기록들을 참조하면 산용은 춘추시대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동호는 전국시대에만 활동하였는데, 다만 그 주된 활동의 무대가 연의 북쪽 방면으로 비슷했을 따름이다.<sup>4)</sup>

그럼에도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담당자를 산용이나 동호 같은 북방계통 집단으로 인식했던 것은 과거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뿌리 깊은 연구 전통에 기인한 바 크다. 이를테면 1930년대 일본인이 적봉(赤峰) 홍산후(紅山後) 유적<sup>5)</sup> 조사한 후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을 동호의 것으로 본 이래, 1958년 영성(寧城) 남산근(南山根) 유적<sup>6)</sup>과 조양(朝陽)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 유적<sup>7)</sup>에서 특징적인 청동기군이 확인되자 중국 조사자는 역시 동호의 유적으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를 지금처럼 춘추시대와 보지 않고 전국시대와 늦게 편년했기 때문이다.

1960년 적봉(赤峰) 하가점(夏家店) 유적<sup>8)</sup>이 조사되자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는 청동기시대의 후기문화임이 밝혀졌다. 중국학계는 이를 하가점상층문화로 명명하고,<sup>9)</sup> 현재의 십이대영자문화(유형)를 하가점상층문화에 귀속시켜 보았는데,<sup>10)</sup> 이후 이를 동호의 문화로 보는 견해들이 많아졌다.<sup>11)</sup> 이와 같은 견해들은 1985~1991년 옥황묘(玉皇廟), 호로구(葫蘆溝), 서량

2)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其後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3)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4)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김정열,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한국상고사학보』72, 2011.

5) 水野清一·濱田耕作, 『赤峰紅山後』, 東亞考古學會, 1938; 呂遵誥, 『內蒙赤峰紅山考古調查報告』, 『考古學報』1958-3, 1958.

6) 李逸友, 『內蒙古昭烏達盟出土的銅器調查』, 『考古』1959-6, 1959.

7)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1960-1, 1960.

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赤峰藥王廟, 夏家店遺址發掘簡報』, 『考古』1961-2, 1961.

9) 劉觀民·徐光冀,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1981-1, 1981.

10)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1983-1, 1983.

11) 靳楓毅,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1987-2, 1987; 林幹, 『東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광(西梁堖) 등의 북경(연경) 군도산 일대 유적<sup>12)</sup>에서 북방계통 대형 묘지가 다수 조사되고 이를 산용의 문화로 보게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으며,<sup>13)</sup> 이후 하북 북부지역의 청동단검문화는 옥황묘문화로 명명된다.<sup>14)</sup>

이에 비해 일본학계는 일찍부터 영성 남산근 유적과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의 문화 성격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여 하가점상층문화(남산근유형)를 산용이라 하였으며, 현재의 십이대영자문화로 명명되는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동호의 것이라고 했다.<sup>15)</sup> 그들에겐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만이 고조선에 해당되는 문화였다. 십이대영자문화 동호설은 현재에도 일본학계에서 다수 견해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sup>16)</sup> 한국학계의 고조선 ‘평양중심설’은 이와 일정하게 관련되는 주장이다.<sup>17)</sup>

그렇지만 중국학계에서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청동단검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난 후<sup>18)</sup> 여러 문화요소에서 이질적인 면이 부각되자<sup>19)</sup> 많은 연구자는 십이대영자문화의 독자적인 문화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으며,<sup>20)</sup> 최근에는 1963~1965년 심양(瀋陽) 정가와자(鄭家窪子) 유적<sup>21)</sup>이 조사되자 요중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까지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들에게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의 문화로 인식되었고, 십이대영자문화는 보통 예맥의 문화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한국학계에도 발전적·비판적으로 수용되었는데, 하가점상층문화는 공병식동검과 삼족력을 표지유물로 하여 서기전 10~6세기경 내몽고 동남부 지역에서 유행했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이며, 십이대영자문화는 비파형동검(또는 요령식동검)과 이중구연점토대토기를 표지유물 하여 서기전 9~4세기경 요서~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통 청동단검문화라는 점이 상당부분 밝혀지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에

12) 北京市文物研究所 編著, 『軍都山墓地—玉皇廟』, 文物出版社, 2007; 北京市文物研究所 編著, 『軍都山墓地—葫蘆溝與西梁堖』, 文物出版社, 2009.

13) 靳楓毅, 『軍都山山戎文化墓地葬制與主要器物特徵』, 『遼海文物學刊』, 1991-1, 1991.

14) 靳楓毅, 『軍都山玉皇廟墓地的特徵及其族屬問題』,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2001.

15) 秋山進午,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中心として—(下)』, 『考古學雜誌』, 54-4, 1969.

16) 宮本一夫, 『戰國燕의 擴大』,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2000; 加藤謙一, 『匈奴 帝國』, 第一書房, 1998.

17) 尹武炳, 『遼寧地方의 青銅器文化』,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18) 林澧,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2, 1980.

19) 朱永剛,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1987.

20) 朱永剛, 『大, 小凌河流域含曲刃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2, 1997; 劉國祥,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4, 2000; 烏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7.

21) 沈陽市文物工作組, 『沈陽地區出土的青銅短劍資料』, 『考古』, 1964-1, 1964; 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1975.

22) 오강원,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2004; 이청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2008;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의미』, 『인문학연구』, 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따라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내몽고 동남부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 등의 융적계열 문화이며,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문화로서 이해하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학계의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은 대체로 이와 관련되는 주장이다.<sup>23)</sup>

결국 과거 연구에서 요서지역의 춘추전국시대 물질문화(비파형동검문화=십이대영자문화)를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시켜 보지 않고 산용이나 동호 등과 관련시켜 보게 된 것은 『사기』 흉노열전의 동호 축출과 5군 설치 기사에 지나치게 집중한 채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변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맥이나 고조선의 물질문화는 기본적으로 요령지역의 토착문화를 배경으로 하며, 산용과 동호의 물질문화는 하북 북부지역과 내몽고 동남부지역에서 유행했던 북방계통 고고문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Ⅲ. 춘추시대 연-산용-조선의 위치와 물질문화 범위

#### 1. 춘추시대 연·산용과 고조선의 위치

연나라는 서주 초기 주왕실에 의해 북경 일대에서 처음 건설되었으나 늦더라도 서주 후기 이후에는 주변 이민족의 침략으로 쇠퇴하여 그 세력이 영정하의 이남지역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는 북경(北京) 유리하(琉璃河) 유적<sup>24)</sup>으로 대표되는 서주시기 중원문화 유적으로 파악된다. 유리하와 그 주변에는 중원계통의 고성지-거주구-묘장구가 서로 조합되어 위치하고 있고, ‘연후(燕侯)’관련 청동예기류가 다수 출토된 바 있어 문헌 기록대로 서주시기 연의 지배층과 관련된 거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서주말~춘추초 이후부터 전국 전기까지 문헌 사료에는 연나라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나라의 천도 과정이나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이를 반영하듯 중원문화 유적들은 서주 후기 이후 북경 일대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급격하게 쇠퇴하며, 이후에는 보정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정하의 이남지역에서 주로 확인

23)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1, 1991; 李清圭, 「青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6, 2005; 박준형,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韓國古代史研究』66, 2012; 吳江原,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53, 2013; 趙鎭先,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56, 2014.

24) 北京市文物研究所, 『琉璃河西周燕國墓地 1973~1977』, 文物出版社, 1995.

된다. 그리하여 춘추시대 연나라의 영역이나 중심지에 대해서는 전국시대의 기록이나 춘추시대의 고고학적 유적·유물 자료 분포권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춘추시대 하북지역의 물질문화를 통해 보면 영정하의 이북지역에는 북방계통의 청동단검문화(옥황묘문화)가 유행하고, 영정하의 이남지역에만 연나라와 관련되는 전형적인 중원문화 유적들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연나라는 춘추시대에는 북방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며 그 이남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중원 제국의 협조하에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5)</sup> 다만 연나라의 동북방면에는 중원문화 요소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인적·물적 교류와 전쟁 등을 통해 중원문화가 주변으로 파급되었음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당산 일대에는 같은 춘추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른 단계에는 중원문화와 북방문화의 요소들이 모두 확인되나 늦은 단계에는 중원문화 일색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산(唐山) 가각장(賈各莊) 유적<sup>26)</sup>은 이를 잘 반영하는 중원문화 유적인데, 춘추 후기 이후에는 북방적인 색채는 사라지고 연나라와 관련된 중원문화의 특징적인 유물만이 확인되고 있다.

춘추시대의 연나라가 쇠퇴했던 배경에는 산용(山戎)이나 북용(北戎) 같은 용적계통 집단들이 강성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진문헌에 등장하는 용적계통 집단들은 춘추시대 이전부터 태항산맥 주변 또는 그 북쪽 방면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력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춘추시대 이후 주로 활동했던 산용 또는 북용으로 불린 집단이다. 중원지역으로 진출했던 용적세력들이 보통 지명이나 부족 성씨를 그 집단의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에 비해, 중원지역의 동북 방면에서 활동했던 산용이나 북용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리 환경(山)이나 주된 활동지역(北)만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했다. 이는 당시 중원인이 산용으로 대표되는 동북방면 용적 집단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용과 북용은 선진문헌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좌전(左傳)』에는 산용 또는 북용이 중원 제후국과 충돌했던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며, 『관자(管子)』와 『사기(史記)』에는 산용이 연나라나 제나라를 자주 침입하였으며, 제나라의 환공(桓公)이 연을 구원하기 위해 산용 등을 정벌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산용과 북용은 좌전』 주석으로 볼 때 같은 집단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용이 주로 연의 근방에서 활동하였으며, 북용은 하남-산동 방면에서 활동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sup>27)</sup> 다만

25) 裴真永, 「西周 前期 燕國의 成立과 燕文化의 形成」, 『東洋史學研究』73, 2001.

26) 安志敏, 「河北省唐山市賈各莊發掘報告」, 『考古學報』1953-6, 1953.

27) 『管子』大匡篇, “桓公乃北伐令支 下梟之山 斬孤竹 遇山戎”.

『管子』封禪篇, “齊桓公曰 寡人北伐山戎 過孤竹”.

산옹과 북옹을 달리 보더라도 산옹의 주된 활동 무대가 연의 북방 일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관자』 대광편(大匡篇)과 봉선편(封禪篇)을 보면 제나라의 환공이 연을 구원하기 위해 산옹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영지(令支)와 고죽(孤竹)을 거쳤으며,<sup>28)</sup> 소광편(小匡篇)에 따르면 이에 더해 예맥(穢貉)과도 조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9)</sup> 일단 환공이 산옹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영지와 고죽을 지나야만 하니, 산옹은 영지와 고죽이 위치했던 난하 하류 방면(당산시 일원) 이북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사기』 흉노열전에서 산옹은 주로 산곡간에 분산 거주하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sup>31)</sup> 산옹은 연산산맥 일대(북경시 일원)에서 노로아호산맥 일대(적봉시 일원)까지 분포하는 산간지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태항산맥 북쪽에서 활동했던 용적 집단까지 포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예맥 조우 기사는 다른 선진문헌에서 예맥 관련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제 환공의 업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후대 추가되었다고 보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가 많다.<sup>32)</sup> 그렇지만 후대 편집과정에서 추가 또는 윤색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서 방면 집단으로 ‘예맥’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전국시대 이후 요서 방면 주민들을 ‘예맥’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춘추시대에 ‘예맥’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국시대의 요동 방면 ‘예맥’과 환치될 수 있는 주민집단이 요서 방면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기사가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의 춘추시대 물질문화가 같은 비파형동검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管子』 규탁편(揆度篇)과 경중갑편(輕重甲篇)에는 제나라의 환공이 ‘발조선(發朝鮮)’과 문피를 교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3)</sup> 그렇지만 『管子』의 편찬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고조선사와 관련하여 긍정론<sup>34)</sup>과 부정론<sup>35)</sup> 모두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이를 춘추시대의 교류 내용으로 인식하는 경우<sup>36)</sup>와 전국시대의 교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sup>37)</sup>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管子』의 기록에만 근거하여 춘

28) 『管子』 大匡篇, “桓公乃北伐令支 下梟之山 斬孤竹 遇山戎”.

『管子』 封禪篇, “齊桓公曰 寡人北伐山戎 過孤竹”.

29) 『管子』 小匡篇, “桓公曰 …… 北至于孤竹山戎穢貉 拘黍夏”.

30) 배진영, 「고대 북경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2009;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韓嘉谷, 「從軍都山東周墓地談山戎·胡·東胡의考古學文化歸屬」, 『內蒙古文物考古文集』1, 1994.

31)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各分散居谿谷 自有君長 往往而聚者百有餘戎 然莫能相一”.

32)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23, 1990;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4.

33) 『管子』 卷23 揆度篇 第78, “管子對曰 …… 發朝鮮文皮”.

34)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29, 1996;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5) 盧泰敦, 「古朝鮮 中心地의 變遷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23, 1990.

36) 박준형, 「古朝鮮의 대외교역과 의미-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2, 고구려연구재단, 2004.

37)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한국사학보』57, 고려사학회, 2014.

추시대 고조선의 발전 단계와 대외교류를 상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은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國’이라는 지역 정치체와 그들 간의 연맹체로 설정되고 있어 그 규모와 성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조선의 중심지가 십이대영자문화(또는 비파형동검문화) 내부라면 이른 단계에는 그 내부의 소지역권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늦은 단계에야 소지역권을 벗어나서 연맹체로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초기 중심지는 요서지역의 조양 일대와 금서(현 호로도) 일대가 지목되며, 그 후기 중심지는 요중지역의 심양 일대가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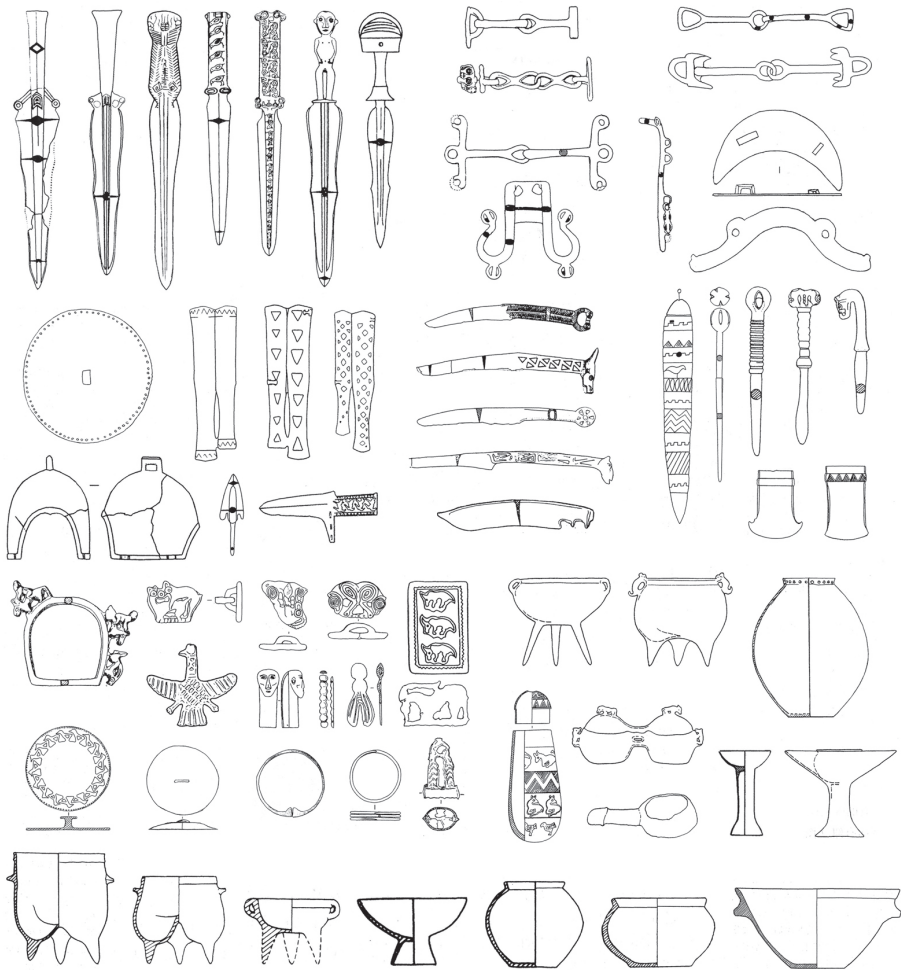
## 2. 춘추시대 하북~요령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범위

앞서 언급하였듯이 춘추시대 산용으로 대표되는 용적 세력들은 연산산맥에서 노로아호산맥까지 분포하는 산간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연산산맥 일대에는 ‘옥황묘문화’로 명명되는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가 유행하였고, 칠로도산~노로아호산 일대에는 ‘하가점상층문화’가 유행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어 크게 두 세력이 흥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되는 예맥이나 초기 고조선의 물질문화로는 흔히 비파형동검문화로 명명되는 ‘십이대영자문화’이다.

하북지역에서 요령지역(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서~요중지역)에 걸쳐 있는 이 세가지의 물질문화는 청동단검으로 대표되는 청동무기를 비롯하여 함께 출토되는 토기류가 달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주민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용 등의 용적집단들은 옥황묘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학계 모두 긍정하는 추세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옥황묘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 중에 어느 것이 산용의 중심 집단에 해당되는 지가 논란이며,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가 같은 용적 계통 주민집단의 문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문화인지 논쟁 중에 있다.

먼저 내몽고 동남부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는 서주 중기~춘추 중기(또는 서기전 10~6세기 대)에 적봉 일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는데, 초기에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후기에는 중국 북방에서 가장 역동적인 세력으로 부상한다. 초기 중심지는 서요하 상류의 대정이나 용두산 유적으로 대표되는 임서 일대이며, 후기 중심지는 노합하 상류의 남산근과 소흑석구 유적으로 대표되는 영성 일대이다. 각각 ‘용두산유형’과 ‘남산근유형’이라 명명되고 있다.

〈도면 1〉 춘추시대(서기전 8~7세기) 하가점상층문화의 주요유물(남산근·소흑석구)



하가점상층문화의 특징적인 면은 서기전 8~7세기대에 유행했던 남산근유형의 영성 일대 유적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남산근유형의 지배층은 적석시설의 석관묘나 석곽묘를 조영하였는데, 무덤 주축은 대개 남북(남서-북동) 방향이다. 또한 공병식동검과 삼족기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중원 계통의 청동무기와 청동예기를 포함하여 요서 계통의 비파형동검문화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어 주변 세력과는 전쟁과 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하가점상층

38) 김정열,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한국상고사학보』72, 2011; 강인옥,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문화와 山戎·東胡」, 『백산학보』106, 2016.

문화(남산근유형)는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여 남산근과 소흑석구 같은 대형묘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늦더라도 춘추 후기(또는 서기전 6세기대)에는 와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융적 계통문화이며, 산용의 중심집단과 관련되는 문화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다음으로 하북 북부지역의 옥황묘문화는 연산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으나 그 연대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sup>39)</sup> 옥황묘문화의 연대관에 대해서는 춘추 초기~전국 초기(기원전 8~5세기대)로 올려보는 입장<sup>40)</sup>과 춘추 중기~전국 중기(기원전 7~4세기대)로 내려보는 입장<sup>41)</sup>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견해들을 고려하면 옥황묘문화는 서기전 700년경부터 서기전 400년경 전후까지 유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이에 따라 연산산맥 일대에서 옥황묘문화가 연문화로 대체되는 것은 보통 전국 전기(서기전 4세기 전반) 무렵으로 이해되고 있다.<sup>42)</sup>

초기(서기전 8·7~6세기대)에는 연경 옥황묘와 회래 감자보 유적으로 대표되며, 연산산맥 중심부(군도산)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후기(서기전 5~4세기대)에는 회래 북신보 유적으로 대표되는 연산산맥 북변이나 난평 포대산과 이수구문, 능원 오도하자 유적으로 대표되는 연산산맥 동변에서 유적들이 지속된다. 연산 중심부의 유적들이 일찍 쇠퇴하는 것에 비해 동변부의 유적들은 늦게까지 존속하는 점이 특징이다.

옥황묘문화의 특징적인 면은 연산산맥 중심부의 옥황묘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주로 간략화된 적석시설이 있는 목관묘나 토광묘를 조영하였으며, 무덤 주축은 기본적으로 동서 방향이다. 또한 유병식동검(직인비수식동검)과 홍색평저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중원 계통 청동무기와 청동예기는 일부 무덤에서 확인되고 있어 중원 제후국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동무기와 청동예기에서 제나라의 양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 역시 융적 계통 문화이며, 산용이나 백적(白狄) 혹은 대(代)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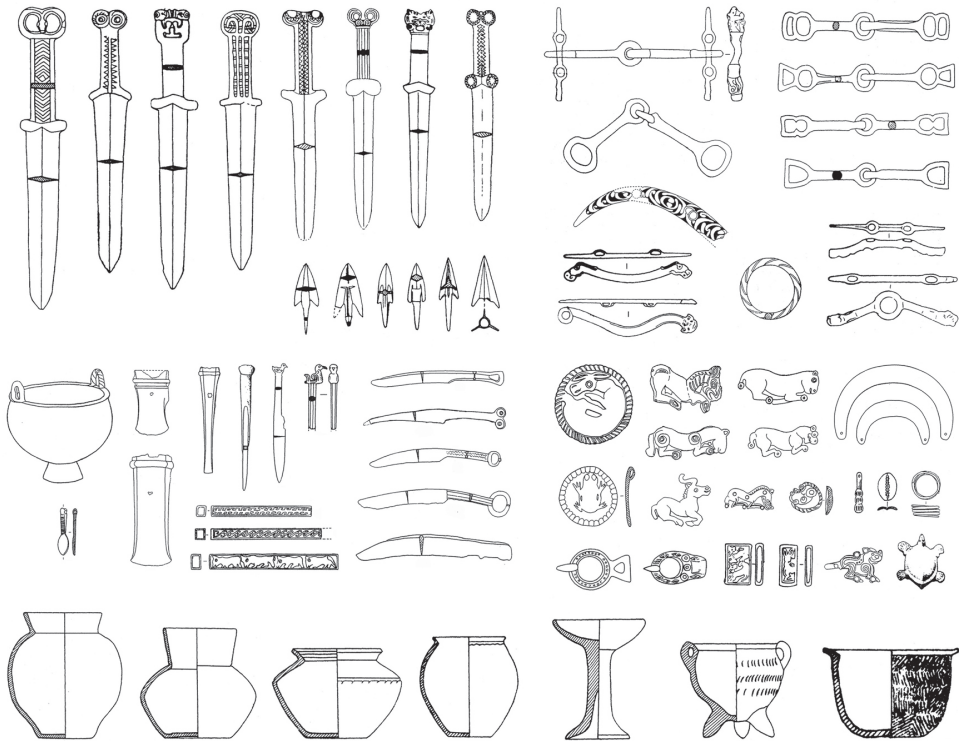
39) 滕銘予·張亮,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2011-4, 2011.

40) 烏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2007.

41) 楊建華,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2004.

4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中國考古學 兩周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524~525쪽.

〈도면 2〉 춘추시대(서기전 7~6세기) 옥항묘문화의 주요유물(옥항묘 · 이수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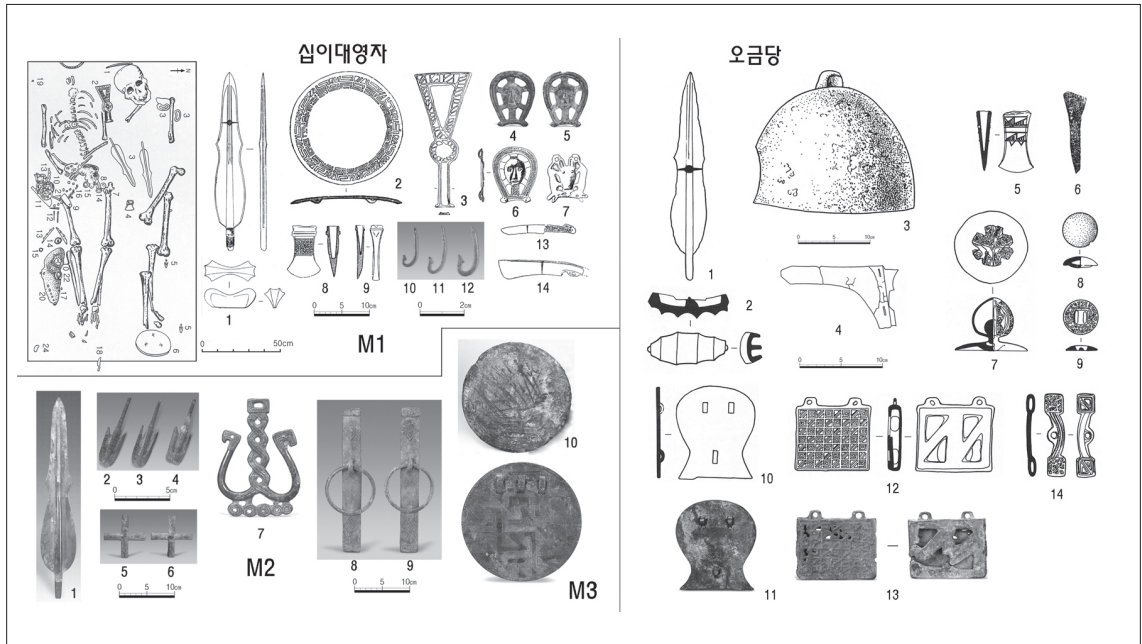


한편 십이대영자문화는 서주 후기~전국 중기(또는 서기전 9~4세기대)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는데, 크게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9~5세기대)와 세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4세기대 전후)로 구분된다. 대략 춘추시대가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 해당되며, 전국시대는 세형동검문화 단계에 해당된다. 비파형동검문화 단계는 다시 전기(서기전 9~6세기)의 십이대영자유형과 후기(서기전 6~5세기)의 정가와자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두 지역문화가 고조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의 십이대영자문화(십이대영자유형)는 요서지역에만 분포하였는데, 십이대영자 유적으로 대표되는 조양 일대와 오금당 유적으로 대표되는 금서(현 호로도) 일대가 각각 소지역권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고조선이 춘추 전기(서기전 8세기대)부터 성립하여 있었다면 유적 분포 밀도가 높고, 분묘 규모나 부장유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며, 요중지역과의 문화적인 관련성이 깊은 조양 일대를 초기 중심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무렵이 고조선의 前史인지 그렇지 않으면 前期인지 현재까지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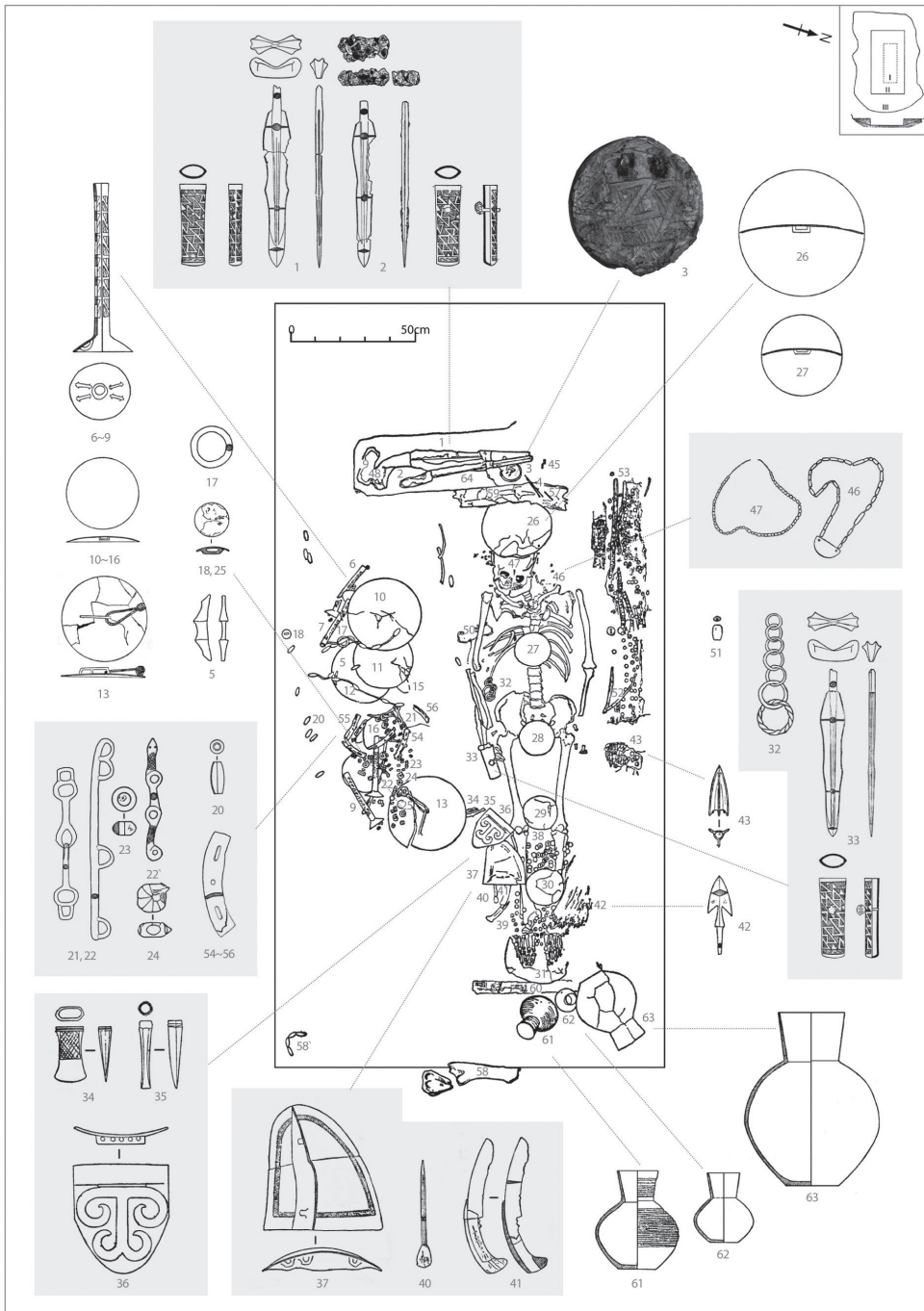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던 『관자』의 ‘발조선’ 관련 기사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고조선의 성립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도면 3〉 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9~6세기) 요서지역 수장묘와 출토유물



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의 십이대영자문화(정가와자유형)는 요서지역뿐만 아니라 요중지역까지 확산된다. 남동구 유적으로 대표되는 객좌 일대와 원대자와 전구구 유적으로 대표되는 조양-금서(현 호로도) 일대, 정가와자 유적으로 대표되는 심양 일대가 각각 소지역권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는 요동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대형목곽묘로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서 부장유물이 가장 풍부하여 주목된다. 또한 정가와자유형의 청동기와 토기류는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로 계승되고 있어 고조선과 직접 관련되는 물질문화로 판단된다. 고조선이 춘추 후기(서기전 6세기대) 이후 성립하였거나 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면 분묘 규모와 부장유물이 그 전후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월등하며, 세형동검문화와의 관련성이 깊은 심양 일대를 그 중심지로 볼 수 있다.

〈도면 4〉 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6~5세기) 요중지역 수장묘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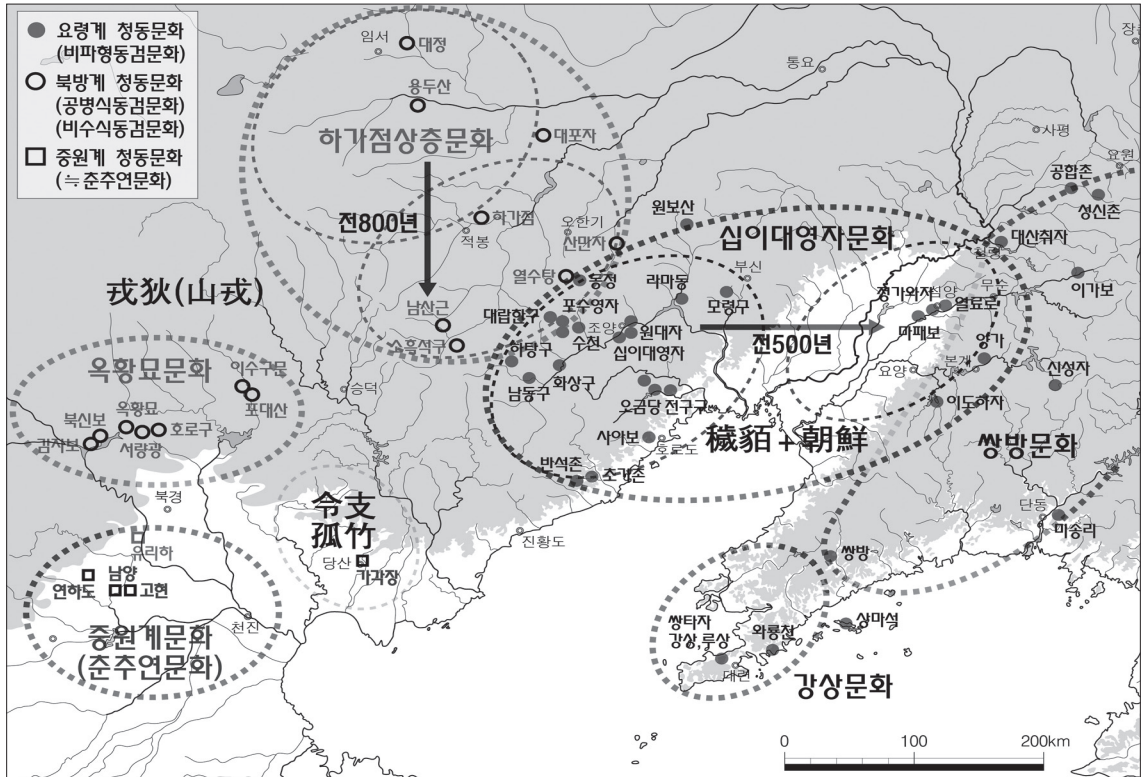


1-2. 비파형동검+석제검피두식+청동검표세트 3. 다뉴늬문경 5. 청동고구 6~9. 나팔형동기 10~12-14~16. 원형동식 13. 원개형동기 17. 동환 18-25. 동포 20. 동관 21-22. 청동마함+동표세트 23. 동주 24. 청동질약 26~31. 경형동식 32-33. 7연동환+착장동검세트 34~36. 동부+동착+청동부낭패식세트 37~41. 청동도낭패식+동추+동도지세트 42. 유경양익동촉 43. 유공삼익동촉 46-47-51. 석제경식 54~56. 골포 58. 소뼈 59-60. 탄화목재-관재 61~63. 장경호

〈표 1〉 춘추시대 하북~요령지역 물질문화의 제유형과 그 특징

문화 명칭	하가점상층문화 (남산근유형)	옥황묘문화 (군도산유형)	십이대영자문화 (비파형동검문화단계)
연대	전 8~6세기	전 8·7~4세기	전 9~5세기
지형	칠로도산~노로아호산	연산산맥	노로아호산~의무려산 요하평원
수계	서요하상류(서랍목문화)	영정하중상류~난하중상류	대-소릉하/요하동안
표지 유적	영성 남산근·소흑석구	연경 옥황묘 회래 복신보 난평 포대산	조양 십이대영자 금서 오금당 심양 정가와자
주요 묘제	석곽묘(일부 적석), 석관묘(일부 적석)	목관묘(일부 적석) 토광묘	석곽묘, 토광묘 목관(곽)묘(일부 위석)
표지 유물	공병식동검 삼족토기(력)	유병식동검(직인비수식) 평저토기(호·옹)	단경식동검(비파형동검) 이중구연점토대토기(발)
기타 유물	중원계 무기-예기(악탈?) 북방계 무기-동물장식	중원계 무기-예기(교류?) 북방계 무기-동물장식	요령계 다뉴경 요령계 무기·마구
문화 성격	북방초원 계통 (목축)농경	북방초원 계통 (목축)농경	토착 계통 (농경)목축

〈도면 5〉 춘추시대(서기전 8~5세기) 고조선과 연·산웅의 물질문화 범위



한편 고조선과 중원 제후국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게 하는 유물로는 산동반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하(栖霞) 행가장(杏家莊) 유적(M2)<sup>43)</sup>에서는 중원계 청동무기와 함께 비파형동검이 공반되었는데,<sup>44)</sup> 비파형동검은 정가와자 유적 출토품에 후행하는 형태여서 춘추말~전국초(서기전 5세기대)로 편년된다. 이와 같은 형태를 지닌 비파형동검은 이때에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의 해상교통로를 보았을 때 요동지역에서 제작되어 산동반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늦더라도 전국시대 이전에는 고조선과 제나라가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 IV. 전국시대 연-동호-조선의 위치와 물질문화 범위

### 1. 전국시대 연·동호와 고조선의 위치

전국시대 이후 연나라와 고조선이 각기 성장하고, 연의 북방에서 산융을 대신하여 동호가 등장함에 따라 ‘연-동호-조선’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연나라는 연하도로 대표되는 중심거점을 새로 마련하고 연산산맥 일대를 점차 통합시켜 나가면서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호와 조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것은 『삼국지(三國志)』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魏略)』과 『사기(史記)』 흉노열전에 일부 기록되어 있다.

『위략』에는 연과 고조선이 서로 ‘王’을 칭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며, 양국간의 전쟁 결과 연은 고조선의 서방 2천여리를 취하였고 만번한을 경계삼아 대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sup>45)</sup> 이는 『사기』 흉노열전에서 확인되는 연의 동호 습격 기사와도 맞물리는 내용인데, 당시 연은 동호의 내부 사정을 파악한 후 기습 공격하여 1천여리를 물러나게 하였으며,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5군을 설치하였다고 한다.<sup>46)</sup> 두 사서에는 공통적으로 전국 중기 무렵 ‘연-동호-조선’이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듯이 기술되어 있어 상대적인 위치와 세력 범위를 비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烟臺市文物管理委員會, 「山東栖霞縣占瞳鄉杏家莊戰國墓清理簡報」, 『考古』1992-1, 1992.

44) 왕칭, 「산동출토 동북계통 청동단검과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東北亞歷史論叢』13, 2006.

45)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所引『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46)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먼저 전국시대 연나라는 북경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연하도(武陽城)를 건설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했던 것은 전국 중기 이후이다.<sup>47)</sup> 춘추 후기 이후 또는 전국 전기에는 ‘易市’ 명문 토기 등이 출토되어 ‘臨易’ 또는 ‘易’일 가능성이 높은 용성 일대(남양촌-고현촌)가 거점으로 지목되며, 전국 후기에는 연상도(薊城)가 중심지로 기능하였다고 한다.<sup>48)</sup> 연나라가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은 바로 연하도가 중심지로 기능하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연산산맥 일대는 가장 먼저 연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연산산맥 일대가 연의 세력하에 편입되는 과정은 문헌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아 연문화의 확산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산산맥 일대에 연문화가 대거 확산되는 것은 전국 전기(서기전 4세기 전반) 무렵이다. 문헌 기록에서 엿보이는 영역화의 과정과는 달리 연문화의 확산 과정은 점진적이어서, 우선 거점별로 확산되는 단계를 거치다가 이후 전면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장성이나 토성으로 상징되는 지배거점이 설치되는 것이 영역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 중기(서기전 4세기 후반)에는 연산산맥 일대가 연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호 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연산산맥을 직접 지배하는 것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동호는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흉노열전의 관련 기록<sup>49)</sup>은 얼핏 보면 동호가 요서 방면에서 동쪽으로 물러났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이 동호를 퇴축시킨 것과 이후 연이 장성을 축조하고 5군을 설치했던 것은 어느 정도 시공간적 틈이 있는 사건이다.<sup>50)</sup> 흉노열전의 다른 기록<sup>51)</sup>을 보면 동호는 연의 북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을 따름으로 역시 북쪽으로 퇴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52)</sup>

동호는 장성 이북지역으로 퇴축되고 난 후에도 조나라나 연나라를 침입한 바 있고, 흉노에게 멸망당해 일부 잔족들이 동쪽 또는 동북 방면으로 재차 이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연나라와 충돌하기 이전 동호의 주된 활동 범위는 영정하 상류(장가구 일원)에서 난하 상류(연산산맥 이북지역)를 거쳐 서요하의 상류(적봉시 일원) 일대까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국시대 동호의 활동 범위는 춘추시대 산융의 활동 범위와 일정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다.

47) 趙鎮先,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96, 2015.

48) 裴眞永,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25, 2003.

49)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其後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50) 林滢, 「東胡與山戎의 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知識出版社, 1995.

51)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52)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1, 1991.

한편 전국시대의 고조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충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정가와자유형)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이 동호를 퇴축시킨 후에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鹽鐵論)』 벌공편의 기사를 존중하면 전성기때 고조선의 최대 영역은 의무려산 이서지역으로 보기 어렵지만, 연과 싸워 서방 2천여리를 잃었다는 『위략(魏略)』의 기록에 주목하면 전성기때 고조선의 최대 영역은 하북-요서 접경지역으로 볼 수도 있다. 전성기때 고조선은 요동지역과 요서지역의 여러 지역 정치체를 연맹체적 관계하에 결속시켜 이를 바탕으로 ‘왕’을 칭하면서 연나라와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전국시대 하북~요령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범위

전국시대(또는 서기전 5~4세기대) 연나라의 전형적인 물질문화는 연하도(燕下都)를 중심으로 하북 중남부의 북경시와 보정시를 잇는 선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보통 ‘연하도문화’로 규정되고 있다.<sup>53)</sup> 다만 무양성(武陽城)과 성내 궁전건축유구 및 대형묘구의 주요 분묘들이 전국 중기 이후 조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하도는 문공(文公; 서기전 358~330년 재위) 당시<sup>54)</sup> 또는 소왕(昭王; 서기전 311~279년 재위) 초기<sup>55)</sup> 조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하도문화’는 전국 중기 이후 단계의 문화내용은 잘 반영하나 그 이전 단계의 문화내용이나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형성과정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기묘와 달리 동기묘가 연하도와 그 주변 지역보다 경진당(북경-천진-당산)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은 연상도(燕上都)와 같은 또 다른 거점도시(薊城)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와도 관련된다.<sup>56)</sup>

전국 중기(서기전 4세기 후반) 이전 단계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 도성지가 아직 조사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연하도와 함께 경진당 일대의 중원문화에서 연계 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은 전국시대 연문화의 확산과정이나 연나라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경진당 일대의 중원문화 유적에서 연하도문화와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53) 裴真永,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25,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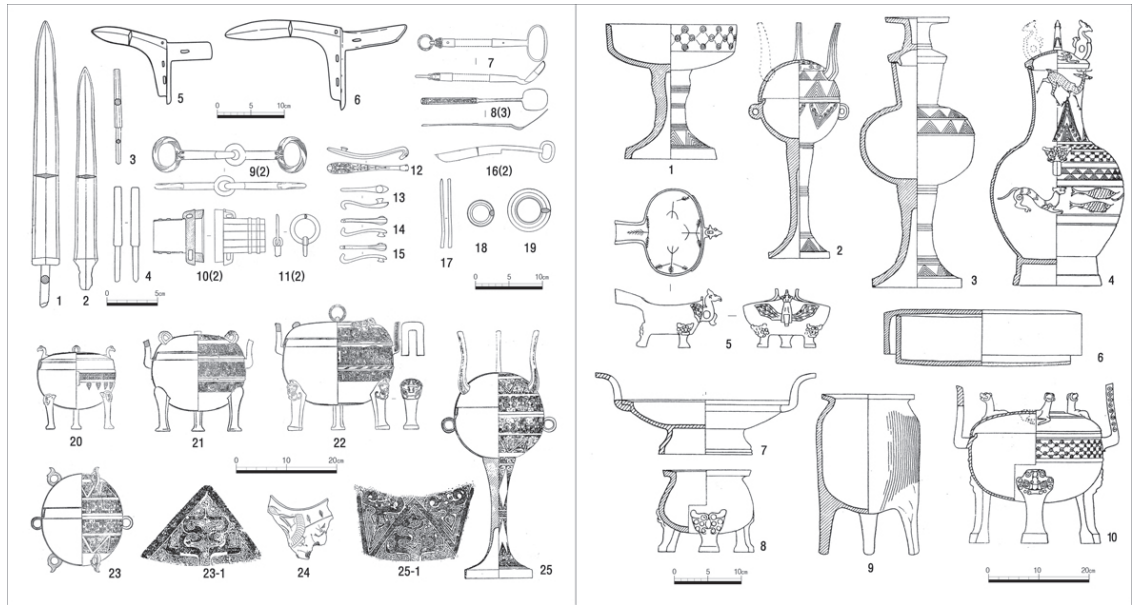
54) 白雲翔,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韓·中鐵器資料集Ⅱ-하북성 출토 燕國 철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許宏, 「燕下都營建過程의 考古學考察」, 『考古』1999-4, 1999.

55) 裴真永,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25, 2003; 趙鎮先,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96, 2015; 陳平, 「燕文化」, 文物出版社, 2006.

56) 陳平, 「燕文化」, 文物出版社, 2006.

확인되는 무덤이나 유물들은 통현(通縣) 중조보(中趙甫)<sup>57)</sup>, 당산(唐山) 가각장(賈各莊)<sup>58)</sup>, 천서(遷西) 대흑정(大黑汀)<sup>59)</sup>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도면 6〉 전국시대 하북지역 연문화의 출토유물(좌: 중조보, 우: 연하도 M29)



연하도와 경진당 일대의 연계 분묘들은 주축이 보통 남북 방향이며, 출토유물에는 반리문 동호, 기룡문동정, 삼각운문동두, 삼각운문동돈 등의 청동예기류와 도호, 도정, 도두 등의 도제예기류가 있다. 이 예기류는 문양이나 장식으로 보아 연의 독자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기종들이 많다. 특히 청동예기류는 경진당 일대와 요서 건창 일대에서 동일 기종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동무기류는 동주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중원식동촉(장경세장촉) 등이 출토되고 있다. 무기류는 대부분이 중원지역과의 공통 양식에 해당되며, 연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sup>60)</sup>

전국시대 연계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문화는 가장 먼저 연

57) 程長新, 「北京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1985-8, 1985.

58) 顧鐵山·郭景斌,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 『文物』1996-3, 1996.

59) 安志敏, 「河北省唐山市賈各莊發掘報告」, 『考古學報』1953-6, 1953.

60) 이후석,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94, 2016.

문화로 대체된다. 옥항묘, 호로구, 서량광 등의 관련 유적에서 토착 계통의 주축 동서 방향 분묘들은 전국연계의 주축 남북방향 분묘들로 대체된다. 또한 이때에는 북방식 동검이 사라지고 전국연계 토기류가 대거 확산되어 부장유물 역시 전국연계 위주로 변모한다. 다만 능원(凌源) 오도하자(五道河子) 유적<sup>61)</sup>으로 대표되는 연산산맥 동쪽 외곽 유적에는 전국 중기까지 토착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옥항묘문화의 동변까지 연의 영역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국시대의 내몽고 동남부 지역에는 철영자문화(또는 정구자문화)가 하가점상층문화에 이어 등장한다. 이미 1990년대에는 칠로도산~노로아호산 일대에서 임서(林西) 정구자(井溝子)<sup>62)</sup>나 오한기(敖漢旗) 수천(水泉)<sup>63)</sup> 등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하가점상층문화를 파괴하고 조영되었으며, 전국 후기 이후에는 연계 물질문화로 완전 대체되고 있어 대략 기원전 5~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또한 동물순생 등의 양상으로 보아 유목적인 성향이 강한 북방초원계통 문화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철영자문화는 시공간적으로 볼 때 연에 의해 장성 이북으로 쫓겨나기 전의 동호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화라고 생각된다.<sup>64)</sup> 다만 기존 조사 유적에서 계층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를 흉노 동방에서 강성했던 집단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며, 동호가 본격 등장하는 전국 후기 이후에는 관련 문화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서 언급되고 있다.<sup>65)</sup> 그리하여 흉노문화에 선행하는 몽골 동부지역의 판석묘문화를 동호와 관련시켜 본다면<sup>66)</sup> 서방에서 유입되는 사카문화 요소들을 흉노와 동호의 등장과 관련시켜 보는 견해<sup>67)</sup>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기』 조세가에 동호가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의 동쪽에 있으면서 함께 3호(三胡)로도 불렸다고 하는 것<sup>68)</sup>은 동호가 흉노와 같은 신래 유목문화 집단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난하 상류 또는 요하 상류 방면에서 먼저 흥기했던 집단까지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중기(서기전 4세기 후반) 무렵 연나라와 경쟁했던 동호와 전국 말기(기원전 3세기 후반) 이후 흉노가 멸망시켰다는 동호는 시공간적 배경이 달라 주민 구성이나 문화상이 상당부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6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 『文物』1989-2, 1989.

62) 王立新·塔拉·朱永剛 主編, 『林西井溝子』, 科學出版社, 2010.

63) 郭治中,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 『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2000.

64) 王立新, 「探東胡遺存的一介新線索」, 『邊疆考古研究』3, 2004.

65) 姜仁旭, 「內蒙古 동남부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목문화에 대한 이해」, 『韓國青銅器學報』9, 2010.

66) 吉本道雅, 「東胡考」, 『史林』91-2, 2008.

67) 강인욱,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백산학보』106, 2016.

68) 『史記』卷43 趙世家 第13, “變服騎射, 以備燕三胡·秦·韓之邊”.

〈도면 7〉 전국시대 내몽고 동남부지역의 철영자문화 출토유물(철영자)



최근에는 칠로도산 일대에서 정구자유형의 중심 유적이 조사되어 계층성의 문제 역시 거의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객라심기(喀喇沁旗) 철영자(鐵營子) 유적<sup>69)</sup>은 도굴 분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중대형묘(M23·M33)의 경우 묘광 규모와 출토유물, 순장 양상으로 보았을 때 최고 수장급에 해당된다. 또한 유물 구성에서 청동예기 등의 전국연계 유물들이 다수 보이지만 토기 등은 정구자나 수천 유적 등과 같이 비중원적 문화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전국시대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 중심 유적에 해당되는 건창 동대장자유적에서 확인되는 양상과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연나라와 전쟁 전의 동호문화는 철영자문화(유형)를 중심으로 하북 북부지역에서 내몽고 동남부지역에 걸쳐 여러 지역군이 있었으며, 전쟁 후의 동호문화는 흉노문화 요소들이 복합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전국시대의 철영자문화(유형)는 십

69) 趙國棟 編著, 「喀喇沁旗西橋鐵營子戰國墓地」, 「赤峰古代墓葬」, 內蒙古文化出版社, 2014.

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에 대비되는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담당자가 ‘동호’라면, 전쟁 이전 요서지역에는 북방 유목문화 요소들이 증가해야 하나 그 반대로 점차 소멸하며, 요서지역 집단들이 전국연의 요서 진출 과정에서 요하 이북 방면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면 그 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 요소들이 일정하게 확인되어야만 하나 그와 같은 증거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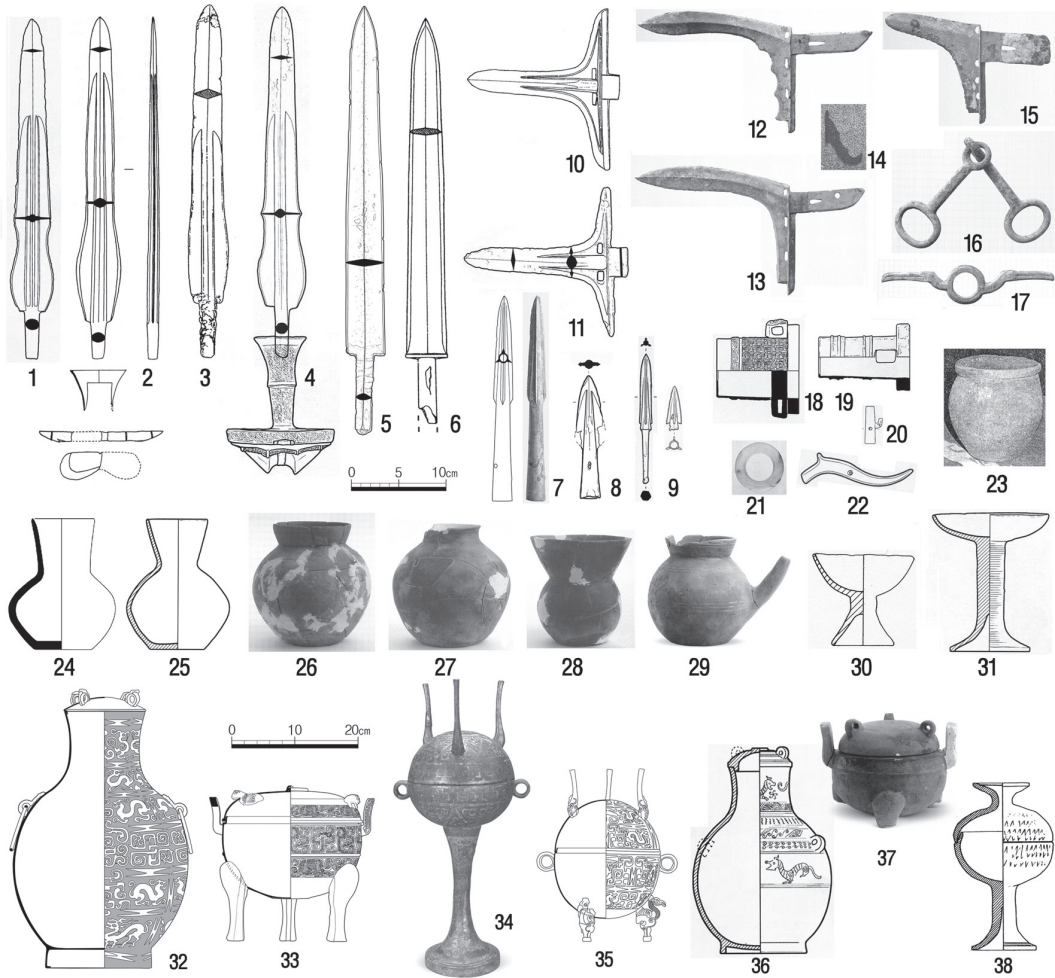
한편 전국시대(또는 서기전 5~4세기대)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과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었으며, 각기 요서지역의 건창 일대와 요중지역의 심양 일대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성장했다. 두 지역의 문화에는 적석목관묘형 분묘, 요령식의 세형동검, 점토대토기옹과 평저장경호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문화적인 유사성이 상당부분 확인되나, 요서지역에는 다뉴경이 없는 대신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부장되며, 요중지역에는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없는 대신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다뉴경이 부장되고 있어 일정부분 차이점도 확인되고 있다.

전국시대의 십이대영자문화가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으로 분화되어 각기 요서지역과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상호 간에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상사성과 상이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지역의 지배층이 서로 교류하면서도 권력기반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대장자유형의 수장층은 전국연과의 대외 교류망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정가와자유형의 수장층은 제의권을 행사하며 주변 집단과의 유대 의식을 바탕으로 점차 권력을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sup>71)</sup>

70) 이후석,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94, 2016.

71)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의미」, 『인문학연구』28, 2015.

〈도면 8〉 전국시대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 출토유물(동대장자)



이와 같은 문화 양상을 문헌사료와 접목했을 경우, 한때 연과 교류하며 전쟁까지 불사하였다는 『위략』의 기사에 집중하면 고조선은 요서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이 동호를 축출하고 난 후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중시하면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요동지역(요중지역)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고조선은 주변 정치체와 일정하게 교류하며 관계망을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요서지역의 정치체는 일단 고조선과 문화 기반을 공유하는 예맥 등의 동류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료 모두 당시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것이므로 고조선의 국가 구조 또는 정치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고조선이 여러 지역정치체

가 연맹체적 관계하에 결속되어 있는 초기국가로 설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sup>72)</sup> 요동지역의 정치체(정가와자유형)가 고조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요서지역의 정치체(동대장자유형)도 그 관계망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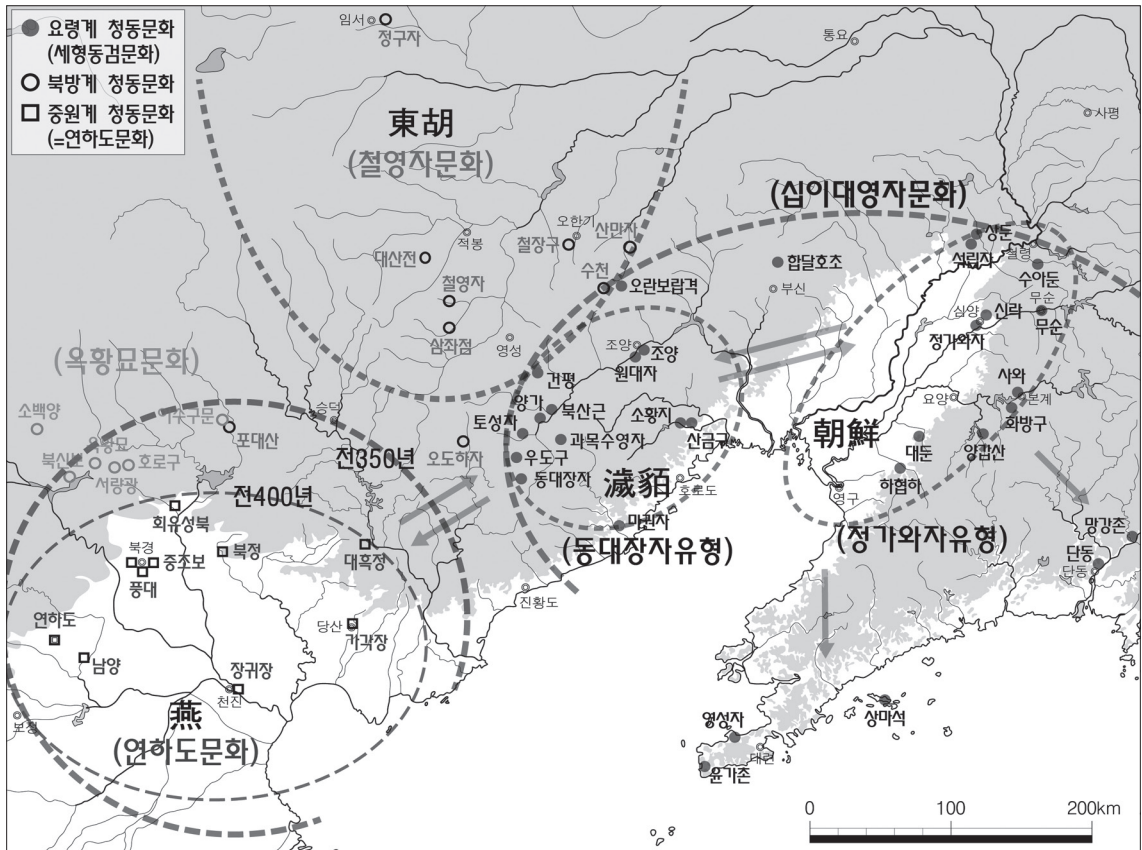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국 전기(기원전 4세기 전반) 이후에는 연의 물질문화가 요서지역까지 확산된다. 다만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연계 물질문화는 대릉하 중상류 일대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릉하유역에서는 관련 문화 요소들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기류와 예기류는 요서 서부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어 연계 물질문화는 제한적으로만 파악되었으며, 토착유물들과 공반되는 예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요서지역 주민집단의 주류들은 연계 유이민이 아닌 예맥 계통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 연나라는 요서지역으로 직접 진출하지 못했으며, 연맹체적 결속관계 하에 있는 고조선과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요서 서부지역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고조선과 연의 경계 역시 이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전국시대 하북~요령지역의 물질문화 제유형과 그 특징

문화 명칭	철영자문화 (정구자문화)	십이대영자문화(세형동검문화단계)	
		동대장자유형(요서)	정가와자유형(요동)
연대	전 5~4세기대	전 4세기대 전후	전 4세기대 전후
지형	철로도산~노로아호산	노로아호산~의무려산	의무려산~천산산맥
수계	서요하상류(영금하~노합하)	대릉하~소릉하	하요하~혼하·태자하 중하류
표지 유적	임서 정구자 오한기 수천 객리심기 철영자	건창 동대장자·우도구 조양 원대자	심양 정가와자 요양 양갑산
주요 묘제	목관(곽)묘(일부 위석) 토광묘	목관(곽)묘(일부 적석) 토광묘	목관묘(적석) 토광묘
표지 유물	유병식동검 평저단경호 중상쌍환이관(웅)	단경식동검(초기세형동검) 이중구연점태대토기(발)	단경식동검(초기세형동검) 이중구연점태대토기(발)
기타 유물	중원계 예기·무기?	요령계 무기 중원계 예기·무기·거마구	요령계 무기·마구
문화 성격	북방초원 계통 (유목·목축)농경	토착+중원 복합 (농경)목축	토착 계통 (농경)목축

72) 박대재, 「고조선의 정치체제」, 『東北亞歷史論叢』47, 2015; 박준형, 「古朝鮮의 稱王과 연맹체의 형성」,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도면 9〉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과 연·동호의 물질문화 범위



## V. 맺음말

문헌 사료에 근거하면 연나라의 북방이나 동북 방면에서 춘추시대에는 산옹이, 전국시대에는 동호가 각각 활동하였는데, 대개 연산산맥에서 칠로도산을 지나 노로아호산에 걸쳐 분포하는 산간지대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검토하면 산옹과 동호는 모두 북방계통 종족(또는 주민집단)에 해당되며 문화적인 성향 역시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산옹으로 대표되는 북방 융적 집단들은 내몽고 동남부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와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제나라의 북벌 이후 쇠퇴하고, 전국시대 이후에는 점차 연나라에 귀속된다. 다만 춘추말~전국초(서기전 5세기대 전후) 이후 내몽고 동남부 지역에서는 동호가 철영자문화를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연나라는 동호 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고조선은 춘추시기 요령지역에 중심지를 두었다고 생각되나 문헌이나 고고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일찍부터 성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조선은 늦더라도 춘추 후기(서기전 6~5세기경)에는 요중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정가와자유형)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관계망을 강화하며 성장하였는데, 전국 중기(서기전 4세기 후반)에는 ‘왕’을 칭하면서 연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다 전쟁에서 패해 요동지역의 천산산맥 이남지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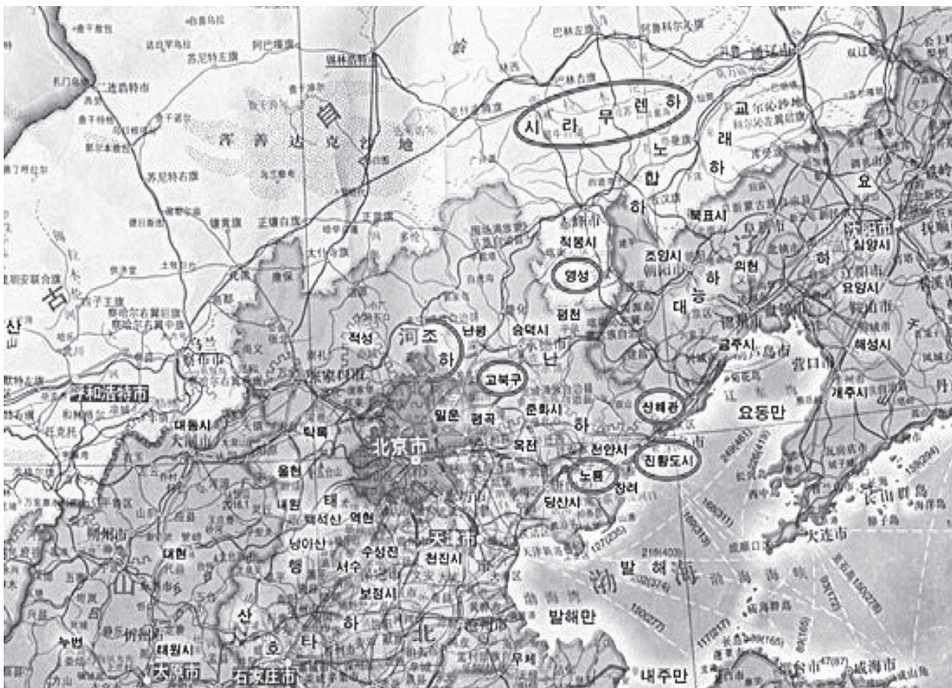
이때 연하도를 건설하고 연산산지의 융적집단(옥황묘문화)을 동화시키면서 동북 방향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던 연나라는 요서지역의 ‘예맥’(동대장자유형)과 연맹체를 결성했던 요중지역의 ‘조선’(정가와자유형)을 공격하여 요하 방향으로 진출하였는데, 당시 중국인의 시각에는 연맹체적 관계하에 있는 두 정치체가 동류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분포 범위를 통하여 문헌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초기 정치체의 세력 범위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며, 정치적인 해석상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역사문화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헌 사료 중심에서 고고 자료 중심으로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극히 적은 문헌사료만을 갖고 초기 고조선의 역사문화상을 과대하게 복원하는 것은 이미 학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1. 머리말

고조선은 발해를 끼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나라였다. 이 위대한 나라를 대동강 유역의 보잘 것 없는 나라로 전락시킨 주범이 한의 요동군, 요서군이다. 한국고대사 왜곡의 정점에 요동군, 요서군이 있고 그 중심에 요녕성의 요하遼河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요녕성의 요하를 기준으로 고조선시대 즉 연, 진, 한 대의 요동군과 요서군을 비정한 것이

기존학계의 견해이다. 한국 사학계의 통설인 대동강 낙랑설은 요동군이 요녕성 요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요동군이 요하의 동쪽에 있었다면 낙랑군은 그 동쪽인 대동강 유역에 있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병도, 노태돈, 송호정으로 이어지는 주류 강단사학으로 대표 된다.<sup>1)</sup>

중국의 연, 진, 한시대의 요동군, 요서군은 고조선의 발상지, 서쪽 강역, 낙랑군의 위치 등을 비정할 때 매우 큰 비중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요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한국 사학계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돌이켜보면 요하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이는 한국 사학계가 고조선사와 낙랑사 연구의 핵심을 간과한 커다란 실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오늘 발표자는 『사고전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와 고조선시대의 요하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전혀 다른 강이며 현재는 요녕성에 있는 요하를 중심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지만 고조선시대에는 하북성에 있던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동군 동쪽에 있었던 낙랑군이 압록강 동쪽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에 있었던 사실도 아울러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동원될 것이며 간접자료는 물론 직접자료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한국 최고의 사서로 평가되는 사료보다도 연대가 더 올라가는 1500년~2000년 전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본 발표가 제시하는 논증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요녕성의 요하는 현재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고 연, 진, 한 시대의 요동군, 요서군은 중국사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한국사를 넘어서 중국사를 포괄한다. 오늘의 이 새로운 자료에 의한 발표가 한, 중 학계에 요동군, 요서군,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 중의 고대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1) 노태돈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러한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한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에 있었고, 그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지역에 있었다면,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 p.47 참조.

## 2. 현재의 요하

현재의 요하는 중국 하북성 승덕시 동쪽 평천현平泉縣 칠노도산七老圖山 산맥의 광두산光頭山(박터산, 박달산)에서 발원하여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길림성을 경유한 다음 요녕성을 가로질러 서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주입된다. 전장이 1345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강으로서 중국의 7대 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조선시대에는 요녕성에 요하라는 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의 요하는 고조선 시대에는 요하가 아니라 구려하句驪河로 불렸다. 고조선의 제후국가로서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의 전신인 구려국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sup>2)</sup> 고구려 건국 이후에도 구려하는 수, 당을 거치면서 수 백 년 동안 그대로 구려하로 불렸다. 고구려가 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구려하가 언제부터 구려하가 아닌 요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가. 대략 오대五代시대 이후로 추정한다. 오대(907~960)란 중국역사 상에서 907년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960년 후주後周의 조광윤趙匡胤이 진교陳橋에서 병변을 일으켜 후주의 정권을 빼앗아 북송을 건국하기까지 그 중간시기에 중원지역에 활거하고 있던 5개정권, 즉 후양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를 가리킨다.

그러면 한, 당 이전에는 구려하로 불려오던 이 강이 왜 오대시대를 지나 북송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요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오대시대에는 이곳 구려하 일대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정권의 영토로 편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요나라(916~1125)는 거란족이 세운 왕조이다. 210년 동안 존속했다. 916년 요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정식으로 건국하여 국호를 거란이라 하였고 임황부臨潢府 즉 지금의 내몽고 적봉시 파림좌기에 수도를 정했다. 947년 요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변량汴梁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를 점령하여 후진後晉을 멸망시켰고 태종 야율덕광耶律德光이 개봉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이때부터 국호를 요나로 바꾸었다.<sup>3)</sup>

2)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 있는 《단군고기》에 단군이 다스리던 제후국으로 조선, 시라尸羅, 고례高禮 등 아홉 개 나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례, 구려는 한자 표기 상의 차이이며 실제로 동일한 나라였다고 본다. 중국의 사서에서 영지수支를 혹은 영자수疵로 표기하고 상곡군 조양造陽을 혹은 조양阻陽으로 표기하기도 한데서 그러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홍정성경통지』 권 16에는 요하가 본래는 구려하로 불렸다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志稱今遼河 乃古之句驪 枸柳及巨流 訛傳日以滋”

3) 『요사』 권1, 『본기』, 태조 상, 하, 태종 상, 하 참조.

요나라의 전성기 강역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알타이산, 북쪽으로는 액이고납하(額爾古納河), 대흥안령 일대, 남쪽으로는 하북성 남부 백구하(白溝河)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소유한 강대한 나라였다. 본래 고구려 영토였던 현재의 요하유역 일대는 요나라시기에 이르러 모두 요나라 강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구려하는 이때부터 요나라의 강이란 뜻의 요하로 명칭이 바뀌어 불려지게 된 것이다.

청나라 이전에는 심양보다 요양(遼陽)이 요녕성의 중심도시였다. 요양은 운주(雲州), 남경(南京), 중경(中京)과 함께 요나라 4대 성시의 하나였다. 그러나 요나라 이전에는 현재의 요하는 구려하였고 요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이란 지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요녕성에 요양이란 지명이 생긴 것 또한 요나라시기부터이다.

그런데 우리의 강단사학계는 지금의 요녕성의 요하를 한나라 때의 요하로, 현재의 요양현을 한나라 때의 요동군 양평현으로 간주한다. 현재의 요녕성 요하 동쪽에 한나라시대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요동군의 군청소재지가 지금의 요양현이었으며 요동군의 동쪽인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병도로부터 노태돈, 송호정에 이르는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요녕성의 요하나 요양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시대에 비로소 생긴 명칭이다. 그 이전 한나라 시대에는 요하라는 강은 요녕성이 아닌 하북성에 존재했다. 이러한 사실이 만일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문헌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면 강단사학이 70년 동안 주장해온 요하 동쪽의 한 군현 요동군설, 요동군 동쪽의 대동강 낙랑설은 모두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아래에서 요나라가 오대시대에 요하유역을 지배하기 이전인 연, 진, 한 시대에는 요동군, 요서군은 현재의 요녕성 요하유역에 존재하지 않았고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여 설치한 한사군의 낙랑군 또한 대동강 유역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고전서』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 3. 현재의 요하를 고조선시대의 요수로 볼 수 없는 문헌학적 근거

#### 1)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갔던 요수

요수라는 명칭은 『산해경』의 「해내동경」에 최초로 나온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수는 위고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유입되며 요양으로 들어간다.(遼水出衛臯東東南注渤海入遼陽)”

현재 요녕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하는 동남쪽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요녕성의 요하는 지리적 위치상으로 볼 때 발해로 주입되기 위해서는 서남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동남쪽으로 흘러서는 불가능하다.

『산해경』에 말한 요수의 방향을 본다면 고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와는 다른 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시대의 요서, 요동군은, 서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주입되는 지금의 요녕성의 요하를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유입된 고대의 요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가는 강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북성에 있는 강물들은 지리적 조건상 동남쪽으로 발해에 유입되는 강들이 많다. 예컨대 난하, 조하, 영정하, 역수 이런 강들은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가고 호타하는 동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그런데 『산해경』 「해내동경」에서는 요수가 하북성 남쪽의 호타하와 함께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이는 『산해경』에 나오는 고대의 요수는 요녕성이 아니라 하북성의 호타하 부근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요수遼水로 표기되어 있어 지금의 요하遼河의 요遼자와는 글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혹자는 『산해경』의 요수는 요동, 요서의 기준이 된 요하와는 다른 강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나라의 오임신吳任臣(1628~1689)은 그의 유명한 저서 『산해경광주』에서 “요수는 임신이 생각할 때 바로 요수이다.(遼水 任臣按 卽遼水)”라고 하여 요수遼水와 요하遼河를 동일한 강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서진시대의 저명한 학자인 곽박郭璞(276~324)은 『산해경』에 말한 요양현에 대한 주석을 내면서 “요양현은 요동군에 속한다.(遼陽縣 屬遼東)”라고 하였다. 곽박의 설명에서 우리는 요동遼東이 바로 요동遼東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였으며 요수遼水가

요동, 요서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 2) 서한시대 만리장성의 마지막 관문 거용관居庸關의 위치로 본 요수

중국의 사서에 나오는 ‘새塞’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요새를 표시하고 하나는 장성을 표시한다. 그런데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요한 요새마다 관문을 설치했다. 그 대표적인 관문이 9개가 있었다. 안문관雁門關, 거용관居庸關 등이 그러한 요새에 세워진 관문들이다.

유방의 손자 회남자淮南子 유안劉安이 쓴 『회남자』 권 4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어떤 곳을 구새라고 말하는가. 태분, 민액, 형원, 방성, 효관, 정경, 영자, 구주, 거용이다.(何謂九塞曰 太汾 澠陘 荊阮 方城 穀阪 井陘 令疵 句注 居庸)”

고대에 안문관을 안문새라고도 말한 데서 보듯이 관과 새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회남자가 말하는 9새는 곧 아홉 개의 관문 9관을 뜻한다.

동한시대의 학자 고유高誘는 『회남자』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 하고 있다. “태분은 진펄에 있고 민액은 지금의 홍농 민지弘農 澠池가 그곳이다. 형원과 방성은 다 초楚에 있다. 효관은 홍농군 민지의 효흙음穀欽吟이 그곳이다. 정형은 상산常山에 있다. 태원관太原關과 통한다. 영자는 요서遼西에 있다. 구주는 안문雁門의 음관陰館 구주句注에 있다. 거용은 상곡上谷 조양阻陽의 동쪽에 있으며 운도관運都關과 통한다.”<sup>4)</sup>

이 기록에 의거하면 태분, 민지, 효관은 중국의 서방에 있던 변경 요새를 말하고 형원, 방성은 중국의 남쪽에 있던 변경 요새를 말하고 정경, 영자, 구주, 거용은 중국의 북방, 동방에 있던 변경 요새를 말한다.

회남자가 말한 서한시기 중국 9새에는 만리장성의 요새에 세워졌던 중국의 서방으로부터 북방, 동방에 이르는 주요 관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천하 9새의 마지막 관문으로 거용관이 언급되었고 거용관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현재의 산해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용관은 현재 북경 시내에서 서쪽으로 5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창평구昌平區 경내에 위치해 있다. 옛 진, 한시대 상곡군 지역이다. 거용관이란 명칭은 진시황시대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할 때 죄수, 군졸, 그리고 강제로 징집한 백성들을 이곳으

4) “太汾在晉 澠陘今弘農澠池是也 荊阮方城 皆在楚 穀阪弘農郡澠池 穀欽吟是也 井陘在常山 通太原關 令疵在遼西 句注在雁門陰館 句注 居庸在上谷阻陽之東 通運都關”

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래서 용도庸徒들을 이주시켜 거주하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거용관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시대에는 진나라에서 사용하던 거용관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북경시 서북쪽의 거용관이 만리장성 위에 세워진 동쪽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서한시대 회남자가 생존했을 당시의 한나라 동쪽 국경은 거용관 일대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서한시기에는 현재의 하북성 진항도시 산해관 일대는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천하 9새天下九塞에 산해관이 포함되지 않고 거용관까지가 중국의 마지막 관문이 되었던 것은 그 동쪽의 산해관 일대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거용관을 천하 9새의 하나로 기록한 것은 『회남자』 뿐만 아니라 『여씨춘추』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씨춘추』 역시 천하 9새에 산해관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산해관 지역이 만리장성의 종착 지점이었다면 당시 천하 9새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을 더 추가하여 천하 10새가 되어야 한다.

『회남자』와 『여씨춘추』에 나오는 천하 9새에 산해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한나라 이전에는 거용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었으며 그 밖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주요한 근거인 것이다.

서한시대에 중국 한나라 장성의 관문이 요서에 있던 영지관, 안문에 있던 구주관을 지나서 상곡에 있던 거용관이 천하 9새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서한의 강역은 지금 북경시 서북쪽 거용관 일대까지이고 그 이동은 고조선 땅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산해관 일대로부터 그 동쪽은 중국의 땅이 아니라 모두 고조선 땅인데 여기에 어떻게 지금의 요녕성 요하를 중심으로 중국 한나라의 행정구역인 요서군과 요동군이 설치될 수가 있었겠는가.

현재 중국 신화서점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지도에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산해관까지 그려져 있다. 하지만 회남자 생존 당시만 해도 중국의 만리장성은 북경시 서북쪽 거용관 일대까지 왔었고 산해관 일대는 만리장성 밖에 있었다. 산해관 일대가 중국의 영토로 포함된 것은 한나라 훨씬 이후 동이족이 중원에 들어가 지배하면서부터 생긴 현상이다. 아마도 오호 십육국시대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나라시대의 만리장성지도를 그린다면 동쪽 끝은 산해관이 아니라 거용관 일대까지 그려야 옳다. 지금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중국역사지도집』에는 진, 한시대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여서 청천강까지 그려놓았다. 이는 역사에 대한 고증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여

공정한 시각으로 다루지 않고 사료적 가치가 빈약한 만번한滿番汗 자료 같은 중국에 유리한 일부 자료만을 편파적으로 선택한 데서 온 오류이다.

북경시 서북쪽의 거용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회남자』의 기록은 요수가 하북성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직접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한의 강역은 지금 북경시 서북쪽 일대까지 도달했으며 산해관 동쪽에 위치한 현재 요녕성의 요하는, 한의 군현인 요동군과 요서군을 가르는 기준이 된 요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자료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 3) 갈석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 요수

『회남자』 권4 「추형혼墜形訓」에는 중국에 대표적인 강물이 여섯 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름을 다음과 같이 거명하고 있다. “어떤 것을 6수라고 말하는가. 하수, 적수, 요수, 흑수, 강수, 회수이다.(何謂六水曰河水赤水遼水黑水江水淮水)”

동한시대 고유의 『회남자』 주석에는 “하수는 곤륜산의 동북쪽 모퉁이에서 발원하고 적수는 그 동남쪽 모퉁이에서 발원한다. 요수는 갈석산碣石山에서 발원하여 장성의 요새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 요동의 서쪽으로 직행하여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흑수는 웅주雒州에 있다. 강수는 민산에서 발원하여 촉蜀의 서쪽 변방에 있다. 회수는 동백산桐柏山 남쪽 평양에서 발원한다.”라고 하였다.<sup>5)</sup>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양하의 사이를 기주라하고 하남을 예주라 하고 하서를 웅주라 하고 한남을 형주라 하고 강남을 양주라 하고 제하의 사이를 연주라 하고 제동을 서주라 하고 연을 유주라 하고 제를 영주라 한다.(兩河間曰冀州 河南曰豫 河西曰雒州 漢南曰荊州 江南曰揚州 濟河間曰兗州 濟東曰徐州 燕曰幽州 齊曰營州)”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웅주에 있는 흑수는 오늘날의 흑룡강이 아니라 황하서쪽 섬서성 일대에 있던 강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동한의 고유가 요수를 설명하면서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碣石山)”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회남자』 「추형혼墜形訓」에는 요수에 대한 언급이 뒤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요출지석遼出砥石”이 그것이다. 앞에서 회남자는 요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 여섯 개 중의 하나라고만 말하였는데 여기서 회남자는 “요수

5) “河水出崑崙東北趣 赤水出其東南趣 遼水出碣石山 自塞北東流 直遼東之西 南入海 黑水在雒州 江水出岷山 在蜀西徼 淮水出桐柏山南平陽也”

가 지석산에서 발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고유高誘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지석은 산의 이름으로 장성 요새밖에 있다. 요수가 발원한 곳이다.(山名在塞外 遼水所出)”

고유는 앞에서 회남자가 요수가 중국의 6대강의 하나라고 언급한 부분의 주석에서는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礪石山)”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 “요수가 지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礪石)”라고 회남자가 다시 말한 부분의 주석에서는 고유가 지석산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이 “지석은 산명인데 요수의 발원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고유가 지석산과 갈석산을 동일한 산으로 이해했음을 말해준다.

만일 고유의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한다”라는 주석과 “지석산이 요수의 발원지이다”라는 주석이 서로 장을 달리하여 다른 곳에 나온다면 혹시 고유가 지석산과 갈석산은 서로 다른 산인데 이를 두고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모두 『회남자』 권4 「추형훈」 같은 장 안에서 하나는 앞부분에 하나는 조금 뒷부분에 나온다. 그렇다면 바로 앞뒤에 나오는 문장을 두고 고유가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씨춘추』 권 13에도 『회남자』 「추형훈」에서 말한 바와 같은 중국의 6대 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씨춘추』의 주석 작업 또한 동한의 고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유는 역시 “요수는 지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礪石山)”라고 말하였다. 『회남자』와 『여씨춘추』 모두 동한시대의 고유에 의해 주석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오류가 있었다면 분명 어느 하나는 시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서 변화가 없고 두 주석이 서로 동일하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유는 갈석산과 지석산을 동일한 산으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수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좀 더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산해경』에는 “요수는 백평산 동쪽에서 발원한다.(遼水出白平東)”라고 말하였다. 상흠의 『수경』에는 “대요수는 새외의 위백평산에서 발원한다.(大遼水 出塞外衛白平山)”라고 하였다. 북위 역도원의 『수경주』에는 “요수는 지석산에서 발원한다고 말하기도 한다.(遼水亦言出礪石山)”라고 하였다.

고유의 『회남자』 주석에서는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礪石山)”라고 하였다. 고유의 『여씨춘추』 주석에서는 “요수가 지석산에서 발원한다.(遼水出礪石山)”라고 하였다. 『전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항에는 고구려현 주석에 “요산이 있는데 요수가 발원한다. 서남쪽으로 요대현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 入大遼水)”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항에는 원문에 “고구려현, 여기에 요산이 있다. 요수가 발원한다.(高句麗遼山遼水出)”라고 하였고 주석에 “요산은 소요수가 발원하는 곳이다.(遼山小遼水所出)”라고 하였다. 『수경』에는 “고구려현에 요산이 있다. 소요수가 발원하는 곳이다.(高句麗縣有遼山小遼水所出)”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인용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요수의 발원지로서 백평산, 위백평산, 갈석산, 지석산, 요산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수의 발원지로서 등장하는 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산 중에서 어떤 산이 과연 요수의 발원지인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자료를 차분히 분석해보면 대요수의 발원지는 백평산 또는 위백평산이고 지석산, 갈석산, 요산은 소요수의 발원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요수의 발원지인 지석산과 갈석산은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산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석산은 우리말로 솟돌 산이고 갈석산은 빗돌 산이란 뜻이다. 솟돌이나 빗돌은 그 모양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 산 정상에 네모반듯하면서 길쭉길쭉하여 솟돌이나 빗돌처럼 생긴 돌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빗돌 산, 또는 솟돌 산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요산이란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설문해자』에 “요자는 멀 원자와 같은 뜻이다(遼遠也)”라고 하였다. 요수를 중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강이라 해서 중국인들이 멀리 있는 강이란 의미로 요수라 호칭했다. 이런 것을 미루어보면 갈석산이 한쪽의 산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라 하여 요산으로 불렀을 수 있다.

또 갈석산은 요수가 발원한 산이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요산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갈석산, 지석산이 그곳에 거주하던 토착민들이 부르던 산 이름이라면 요산은 중원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갈석산, 지석산, 요산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산에 대한 다른 명칭이었던 것이다.

역사상에서 요녕성이나 길림성이나 한반도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갈석산은 하북성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갈석산에서 발원하여 요동군의 서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발해에 유입된 요수가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가 될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 4) 몽염이 쌓은 만리장성이 뚫고 지나간 북방에 있던 요수

『회남자』 권18 「인간훈人間訓」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진시황이 『녹도錄圖』를 펼쳐들고 거기 적혀 있는 글을 보니 ‘진나라를 망칠 자는 호胡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로

인하여 군졸 50만 명을 동원하여 몽공과 양옹자로 하여금 장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서쪽은 유사에 속하고 북쪽은 요수를 뚫고 지나가고 동쪽은 조선에서 끝마무리 되었다.(秦皇挾隸圖見其傳曰 亡秦者胡也 因發卒五十萬 使蒙公楊翁子 將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여기서 서속유사西屬流沙는 만리장성의 서쪽 출발지점이 중국의 서방 감숙성 임조臨洮임을 말하고 북격요수北擊遼水는 만리장성이 북방의 요수를 뚫고 지나간 것을 의미하며 동결조선東結朝鮮은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종결된 것을 가리킨다.

중원에서 북방이란 산서성, 하북성 방향을 가리킨다. 요녕성은 동방 또는 동북방에 해당한다.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는 방위상으로 볼 때 중원의 동북방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북방이 아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대의 요수는 중원의 북방에 위치하였고 동방에 있지 않았다. 동방에는 고조선이 있었다.

진박사秦博士 노생盧生은 방사方士로서 연燕나라 사람이다. 그는 사방으로 신선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올 때 참위서에 해당하는 『녹도』라는 책 한권을 구해서 진시황에게 바쳤다. 거기에 “진나라를 망칠 자는 호다(亡秦者胡)”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 호는 호족이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胡亥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데 진시황은 이를 호족으로 착각하고 북방의 호족을 방어하기 위해 장수 몽염과 양옹자를 시켜서 만리장성을 쌓도록 했다. 이때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북쪽으로 요수를 지나서 지금의 북경시 서북쪽의 거용관 부근에서 멈추었고 거기서 더 이상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산해관 일대로부터 그 이동은 모두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서 쌓은 만리장성이 뚫고 지나간 북방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가 아닌 하북성의 거용관 남쪽에 있던 다른 강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 5) 하북성 난하 유역 희봉구喜逢口 남쪽에 있던 요수

원나라때 허유임許有壬이라는 문신이 있었다. 그의 자는 가용可用 호는 문충文忠이다. 생전에 저서 100권을 남겼는데 지금은 일부가 유실되고 81권만이 전해진다. 그의 저서 『지정집至正集』이 『사고전서』안에 수록되어 있다. 허유임이 희봉구喜逢口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지정집』 8권에 실려 전한다.

저자는 시를 쓰기에 앞서 그가 희봉구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난양역滌陽驛에서 동북쪽으로 40리쯤 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

다. 세간에서는 이 무덤을 두고 이런 말이 전해온다. ‘옛적에 변방에 수자리 살러나가서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찾아 나섰는데 마침 이 산 아래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크게 웃었는데 기쁨이 극에 달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드디어 이곳에 장사지냈는데 민간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곳을 희봉구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마치 망부석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 일이 어느 시대의 일인지 또 그들의 성씨가 누구인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족히 사람을 감동시킬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시를 지어 기록으로 남긴다. (滌陽驛 東北四十里 山有雙塚 世傳 昔有久戍不歸者 其父求之 適相遇此山下 相抱大笑 喜極而死 遂葬於是 俗因謂之喜逢口 亦猶望夫之有石也 雖莫究其世代姓氏 而其言有足感人者 故作詩而記之)”

원나라시대의 문신이었던 허유임이 ‘희봉구’라는 시 제목 아래에 덧붙인 이 짙막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희봉구’라는 곳에 갔다가 지명과 얽힌 이야기를 지방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시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허유임의 시에 시제로 등장한 ‘희봉구’라는 지명은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 ‘희봉구’는 하북성 동쪽의 천서현遷西縣과 관성현寬城縣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하북성 당산시唐山市 소속이다.

‘희봉구’이 일대의 도로는 지난날 하북 평원에서 동북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희봉구’에 관문이 설치되었는데 이 길목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고대사회에서 ‘희봉구’일대는 한족과 북방 및 동북방 민족이 빈번하게 교류하던 곳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수비를 하였다. 위진시대와 그 이후 당나라시기에는 이곳을 노룡새盧龍塞라 호칭하였다.<sup>6)</sup> 이곳을 당산唐山으로 지명을 바꾼 것이 당나라 때이다.

이곳이 본래 당나라 땅이었다면 왜 당나라가 새삼스럽게 이름을 당산으로 바꾸었겠는가. 아마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이곳을 빼앗은 것이 당산으로 지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나라시기에 이르러 당의 동쪽 국경선이 한나라시대의 북경시 서쪽 거용관 일대에서 이곳 당산시 지역 노룡새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부자 상봉의 가슴 아픈 미담이 전해지는 희봉구喜逢口는 명나라 때 오류로 인해 희봉구喜峯口로 불리게 되었고 명나라 대종代宗 경태景泰 3년(1452년) 성을 쌓아 관문을 설치하고 희봉구관이라 하였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희봉구喜峯口라 호칭한다.

6) 수경주, 「유수」 조항. 「삼국지」 「위지」, 「진서」 「재기」, 「당서」 「지리지」 등에 노룡새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저자가 희봉구에 대한 부자 상봉의 내력을 쓰면서 어느 시대에 벌어진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당나라시기 여기에 노룡새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희봉구의 주인공은 바로 당나라시기에 고구려와 당의 접경지대인 노룡새에서 수자리하던 군졸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희봉구가 지금 중국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저자는 희봉구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난양역溱陽驛에서 동북쪽으로 40리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난양의 연혁을 살펴보면 금나라 장종章宗 승안承安 2년(1197)에 난양현이 설치되었고 치소는 지금의 하북성 천서현遷西縣 서북쪽에 있었다. 금 장종 태화泰和 4년(1204)에 폐지되었다. 원나라시대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명나라 홍무洪武 초기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하북성 당산시 천서현 관할아래에 난양진溱陽鎭이 소속되어 있는데 하북성 천서현 북쪽의 만리장성 아래 난하의 물가에 위치해 있다. 난하의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양이라는 지명이 붙게 된 것이다. 강물은 통상적으로 강의 북쪽을 일컬어 양이라고 한다. 현재의 난양진은 원래의 난양과 희봉구 두 향鄕을 합병하여 1996년에 설치되었다. 난양진 관할구역 안에 반가구潘家口, 희봉구喜峯口, 철문관鐵門關 등이 소속되어 있다.

이 시에 나오는 희봉구와 난양역 등의 지명은 하북성 동쪽, 장성 남쪽, 난하 북쪽에 그대로 살아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의 하북성 천서현 북쪽의 장성 남쪽 난하 북쪽 지대를 무대로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원나라의 문신 허유임의 시가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희봉구喜逢口를 제목으로 쓴 그의 시를 직접 살펴보기로 한다.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이가 추우면 내가 입던 옷을 벗어 입히며 어루만져주었고, 아이가 굶주리면 내가먹던 밥을 먹여주었나니 꾸지람이 웬 말인가. 장성이 나라를 지켜주어 군대 나갈 일 없다더니, 한번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질 않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떠나갈 때 동북변방에 수자리 살리간다면, 곧바로 유관을 나가 요수를 건너갔네.(兒寒解衣重撫摩 兒飢推食孰忍訶 長城與國遠負戈 一去不返當如何 去時云戍東北鄙 直出榆關度遼水)”

아들이 수자리 살리갔다 나중엔 부자가 상봉한 곳이 희봉구이고 그곳은 현재의 하북성 동쪽, 장성 남쪽, 난하 북쪽의 난양진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아들이 떠나갈 때 유관을 나가서 요수를 건너서 갔다고 말했다.

이 요수가 만일 현재의 요하이고 수자리하는 아들이 요하동쪽에 살았다고 한다면 하북성

난하 북쪽의 난양지역은 서쪽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북쪽으로 수자리 살리 갔다고 말해야 맞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아들이 떠나갈 때 동북변방으로 수자리 살리간다고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북성 난하 유역은 현재의 요녕성 요하 동쪽에서 보면 서쪽지역이 되지만 섬서성이나 하남성 등지의 중원일대에서는 동북방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수자리 살리간 아들은 섬서성이나 하남성에 거주하던 청년으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중원지역에 거주하던 젊은이가 동북방의 난하 유역으로 떠나갈 때 유관을 나가 요수를 건너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 유관은 요수를 건너기 전에 경유한 관문이므로 지리적으로 요수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야 한다. 유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사기』「초세가楚世家」에 “도왕 11년에 삼진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우리 대량과 유관을 패배하도록 하였다.(悼王十一年 三晉伐楚 敗我大梁榆關)”라는 기록이 있고 사마정司馬貞의 「사기색은」에서는 “이 유관은 마땅히 대량의 서쪽지역에 있었을 것이다.(此榆關當在大梁之西)”라고 하였다. 대량은 현재의 하남성 개봉시 서북쪽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국시대 『맹자』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양혜왕梁惠王 6년(서기전 364)에 최초로 대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또 『사기집해』에는 “도왕 2년에 삼진이 와서 초나라를 공격하여 승구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悼王二年 三晉來伐楚 至乘丘而還)”라는 주석에 “서광은 말하기를, ‘연표에 의하면 3년에 유관을 정나라에 되돌려주었다.’고 했다.(徐廣曰年表三年 歸榆關於鄭)”라고 하였다. 춘추시대의 정나라는 하남성 서북쪽에 있었다.

『전한서』 권51 「매승열전」에는 “매승이 다시 오왕에게 유세하여 말하기를, ‘…진나라가 북쪽으로 유종의 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枚乘 復說吳王曰…秦北備榆中之關)”라는 기록이 있고 안사고顔師古의 이에 대한 주석에는 “지금의 유관이다.(卽今所謂榆關也)”라고 하였다. 이는 진나라의 북쪽에 유관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의하면 유관은 섬서성 북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유자산집』 권 3에는 “유관에는 소식이 끊기었고 한나라 사신은 경유하는 일이 두절되었네.(榆關斷音信 漢使絕經過)”라고 나온다. 여기서 한나라 사신이란 장건張騫, 감영甘英등을 가리키는데 남북조시대 유신은 장건, 감영 등이 서역으로 사신 갈 때 경유했던 관문이 유관이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명, 청 이후에는 하북성 진황도시 임유관臨渝關을 통상 유관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기록에 의거하면 한, 당 이전에는 하남성 서북쪽에 유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시에 등장하는 젊은이는 이 유관을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원에 거주하던 이 젊은이가 동북방 변경의 노룡새에 가기 위해 유관을 나와서 건넌던 요수는 현재의 요녕성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의 난하와 하남성 서북쪽 유관의 중간지대에 있던 강이 분명하다. 그 중간에 경유하게 되는 큰 강은 어떤 강이 있는가. 하북성 남쪽의 호타하와 역수 등이 있다.

이 시는 하북성 요양역 사람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시를 쓰던 원나라시대까지는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와 다른 요수가 하북성 남쪽에 실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자가 이런 지명을 조작하여 시를 쓸 수가 있었겠는가.

남북조시대 남조의 양나라 사람으로 왕훈王訓(서기 511~536)이라는 시인이 있었다. 자는 회범懷範인데 문장을 잘 하였으며 벼슬은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그의 시에 ‘도관산度關山’이란 제목으로 쓴 시가 있다. 『고시기古詩紀』 권 96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도 요수와 유관이 대칭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소년이 전쟁을 익혀서, 14세에 종군을 하였네. 지난해엔 상군을 경유했고, 금년에는 운중군으로 나왔네. 요수는 깊어서 건너기 힘들었고, 유관은 단절되어 통하지 않았네.(少年便習戰十四已從戎 昔年經上郡 今歲出雲中 遼水深難渡 榆關斷未通)”

이 시는 남북조 당시에는 요수와 유관이 변경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군은 전국시대 위魏나라 문후시기에 최초로 설치된 군으로서 지금의 섬서성 동북쪽 수덕현綏德縣에 군청 소재지가 있었다. 운중군은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처음 설치했는데 그때는 오늘날의 내몽고 토목특우기土默特右旗 지역에 있었고 그 뒤 당나라시대에 산서성 대동시로 옮겼다.

시인이 상군과 운중군을 말하고 이어서 요수와 유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수와 유관은 상군과 운중군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한다. 즉 유관은 상군, 요수는 운중군 부근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조시대(420~589)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시대에 해당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374~412)은 서한에게 빼앗겼던 한사군 지역을 통일하여 고조선 땅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당시 고구려의 서쪽 변경은 운중군의 동쪽 오늘날의 하북성 동남쪽 일대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왕훈의 ‘도관산度關山’이란 시에 요수가 유관과 대칭적으로 언급된 것을 통해서도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가 고조선시대의 요수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명백해진다.

## 6) 옛 백이, 숙제의 나라 고죽국孤竹國 땅에 있던 요수

『수경주』 권3 유수濡水 조항에는 “유수가 변방 요새 밖으로부터 흘러와서 동남쪽으로 요서군 영지현 북쪽을 통과한다.(濡水從塞外來 東南過遼西令支縣北)”라는 상흠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상흠은 유수가 변경 밖에서 나와 영지현 북쪽을 지나간다고 하였는데 영지현이 어디인가.

북위의 역도원은 『수경주』에서 「지리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지현에 고죽성이 있다. 옛 고죽국이다.(令支有孤竹城 故孤竹國也)”역도원은 또 『사기』를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사기』에는 말하기를, ‘고죽군의 두 아들인 백이, 숙제가 이곳에서 나라를 양보하고 수양산에서 굶주리며 살다가 죽었다’고 하였다.(史記曰 孤竹君之二子 伯夷叔齊 讓國於此 而餓死於首陽)”

역도원이 옛 백이, 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던 곳이 요서군 영지현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에 백이, 숙제의 고죽국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요녕성 요하 서쪽이 요서가 아니라 옛 고죽국 즉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가 옛 요서군 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역도원은 또한 유수濡水 조항에서 요서태수와 숙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하고 있다. “한나라 영제 때 요서태수 염번이 꿈을 꾸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고죽군의 아들, 백이의 아우이다. 요해에 나의 관곽이 표류하고 있다. 태수께서 어질고 선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관을 좀 물어주었으면 한다.’ 그 다음날 보니 물위에 떠다니는 관이 있었는데 아전 중에서 비아냥거린 자는 모두 아무런 질병도 없이 죽었다. 태수가 다시 장례를 치러 주었다.(漢靈帝時 遼西太守廉翻夢 人謂己曰 余孤竹君之子 伯夷之弟 遼海漂吾棺槨 聞君仁善 願見藏覆 明日視之 水上有浮棺 吏嗤笑者 皆無疾而死 於是改葬之)”

이 이야기는 『수경주』 뿐만 아니라 『태평환우기』, 『요사습유』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재한 일었음을 보여준다.

역도원은 다시 『진서잡서』 「지도지地道志」에서 고죽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요서에 사는 사람이 요수에 떠다니는 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파손시키려고 하자 말하기를, ‘나는 고죽국의 임금이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나를 파손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그로 인해서 사당을 건립했는데 사당은 산 위에 있고 성은 산 곁에 있었다. 비여현 남쪽 12리의 물이 합수 되는 곳이었다.(遼西人 見遼水有浮棺 欲破之 語曰 我孤竹君也 汝破我何爲 因爲立祠焉 祠在山上 城在山側 肥如縣南十二里 水之會也)”

역도원이 앞에서 인용한 한 영제시기의 자료 안에는 요서태수 염번이 꿈에 속제를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런데 『진서』 「지도지」는 꿈 이야기는 없다. 요서태수도 생략하고 요서인이라고 하였고 백이의 아우라는 말도 없이 고죽군이라고 만 하였다. 위에서는 관이 떠 있던 곳이 요해라고 하였는데 『진서』 「지도지」는 그곳이 요수라고 하였다. 이 두 기록은 표현상에서 상세하고 간략한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관이 떠있던 장소를 한 군데는 요해라 말하고 한군데는 요수라 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요해는 발해를 가리킨다. 백이, 수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던 하북성 노룡현은 발해만 부근에 있다. 고죽국은 발해만 부근에 위치하였으므로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해에 속제의 관이 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요서인이 요수 위에 관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사당을 세워 모셨다고 했는데 고죽국은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에 있었고 이곳은 나중에 요서군 지역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진서』에서 말한 요서군의 요수는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부근, 옛 고죽국 지역에 있던 요수가 분명하며 결코 요녕성의 요하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죽군의 사당은 산 위에 있고 성은 산 곁에 있다. 비여현 남쪽 12리 물이 합수 되는 곳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비여현 남쪽의 물이 합수가 되는 양지바른 명당자리에 고죽군의 묘를 쓰고 거기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준 사실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비여현은 요서군의 속현인 비여현이다.<sup>7)</sup> 비여현은 하북성 노룡현과 이웃해 있었다. 현재 요녕성 요하의 서쪽에 노룡현이나 비여현이 설치된 사례는 없다.

역도원의 『수경주』에 등장하는 옛 고죽국 땅, 진짚나라시대 요서군 비여현 부근에 있던 요수는,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와는 다른 요수가 하북성 노룡현의 옛 고죽국 지역 부근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7) 제나라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기 위해 건넜던 요수

『춘추별이春秋別異』는 명나라 때 학자 설우기薛虞畿와 그의 아우 설우빈薛虞賓이 공동으로 편찬한 책이다. 모두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전서』 안에 실려 있다. 책 앞의 저자 서문에서 『춘추좌전』, 『춘추공양전』, 『춘추곡양전』 『춘추』 「삼전三傳」에 수록되지 않은 춘추시대의 자료를 따로 모아 이를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편찬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7) 「전한서」, 「후한서」, 「진서」, 「위서」 「지리지」에 모두 비여현은 요서군의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춘추별이』 2권에는 요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환공이 북쪽으로 고죽국을 정벌하기 위해 출발하여 비이계곡을 십리쯤 남겨두고 있었는데 흠칫하고 멈추어서 깜짝 놀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흰칠한 키에 인물이 갖추어진 어떤 사람이 보였다. 관을 쓰고 있었고 왼쪽다리는 옷을 걸어 올렸으며 말을 몰아 빠른 걸음으로 앞을 스쳐지나갔다. 좌우에 물어보니 좌우의 신하들은 못 보았다고 하였다.

관중이 말했다. ‘필시 이곳에 물을 건널 일이 있을 것입니다. 등산의 신을 유아라고 합니다. 신은 패왕의 임금의 나오면 등산의 신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달려 앞을 빨리 지나간 것은 인도를 한 것이고 옷을 걸은 것은 앞에 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왼쪽 옷을 걸어 올린 것은 주변으로 건너야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공이 과연 관중의 말을 따라서 왼쪽으로 요수를 건넜다. 드디어 고죽국을 얻어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桓公北征孤竹 未至卑耳谿中十里 閤然而止 睜然而視 有頃 見人長尺而人物具焉 冠左袂衣 走馬前疾 以問左右 左右不見也 管仲曰 事必濟此 登山之神俞兒也 臣聞霸王之君興 則登山神見 且走馬前疾 導也 袂衣 視前有水也 左袂衣 視從房方涉也 桓公果從 左渡遼水 遂得孤竹 霸天下)”

다른 문헌 자료에도 제나라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환공의 고죽국 정벌은 춘추시대에 실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환공이 고죽국을 공격할 때 요수를 건너가서 정벌하여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고죽국은 하북성 동쪽 지금의 진황도시 노룡현 부근에 있었고 환공의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동북쪽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기 위해 건넌 강이 요수였다면 이 강은 결코 현재의 요녕성 요하가 될 수 없다. 산둥성 서북쪽과 하북성 동남쪽 중간지대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던 강이 분명하다.

이와 동일한 기록이 『수경주』의 우수 조항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수경주』에는 설명은 보다 상세하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고 요수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수경주』는 중국 역사상에서 워낙 많이 알려진 책이다. 그래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화의 한족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후인의 첨삭이 가해졌다고 본다.

## 8) 안문산과 함께 거명된 우수

남북조시대 남조의 시인 양강엄梁江淹(444~505)은 자가 문통文通이다. 그의 『강문통집』이 『사고전서』에 실려 있다. 강문통이 이별을 노래한 ‘별부別賦’에는 “간혹 변방의 군현이 평

화롭지 못하면 화살을 등에 메고 종군을 한다.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안산은 구름에 닿아 있다.(或乃邊郡未和 負羽從軍 遼水無極 雁山參雲)”라는 글귀가 나온다.

여기서 안산은 안문산을 말한다. 『여씨춘추』에 “천하에 9새가 있는데 구주가 그 중의 하나이다.(天下九塞 勾注其一)”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구주산이 바로 안문산이다. 안문산은 천하 9새 중의 하나로 옛적에는 구주산으로 호칭되었다. 현재 안문산은 중국 산서성 대현代縣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강문통의 이 ‘별부’는 전쟁이 터져서 군인이 무장을 하고 변경에 수비하러 달려가는데 앞에 요수와 안문산이 펼쳐져 있는 정경을 형상화한 것이다. 요수와 안문산은 다 중원의 북방 변경에 위치한 강과 산이다. 요수는 수 백리를 굽이쳐 하염없이 흐르고 안문산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치솟아 있었다. 시인은 가족과 이별한 채 변경에 수자리 살러가는 군졸의 심경을 그리면서 북방변경의 요수와 안문산을 아울러 묘사한 것이다.

북방 산서성 대현의 안문산과 함께 거명한 요수가 동북방 요녕성의 현재의 요하일수는 없다. 산서성의 대현代縣과 하북성의 역현易縣은 지명 상에서 교대, 교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요수는 대현의 안문산 부근 역현에 있는 역수여야 한다. 그래야 대현의 안문산과 짝을 이룬다. 강문통이 말한 요수는 안문산과 동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강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문산 부근에 있는 산이어야 하고 변경에 위치한 강이어야 한다.

요녕성의 대표적인 산은 의무려산이다. 만일 이 요수가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를 가리킨 것이라면 강문통은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안문산은 하늘에 닿아 있다.(遼水無極 雁山參雲)”라고 말하지 않고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의무려산은 하늘에 닿아 있다.(遼水無極 醫巫參雲)”라고 썼을 것이다.

남북조시대 강문통이 말한 군졸은 의무려산이 있는 현재의 동북방 요녕성 요하유역이 아닌 산서성의 안문산과 그 부근의 요수가 있는 북방 변경지역으로 수자리 살러 갔었다. 요녕성의 의무려산과 함께 거명되지 않고 산서성의 안문산과 짝을 이루어 언급된 이 요수는 결코 현재의 요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4. 고조선시대의 요수는 어디인가

### 1) 남북조시대 유신庾信이 역수易水를 요수遼水라고 말하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고조선시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 쪽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간접자료일 뿐이며 직접자료는 아니다. 즉 하북성의 어떤 강이 요수라고 못 박아서 말한 결정적인 자료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조시대 북조 북주北周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유신庾信(513~581)이 형가荊軻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떠나가면서 건넜던 그 유명한 역수를 요수라고 표기하였다. 유신의 호는 유개부庾開府 자는 자산子山이다. 『사고전서』 안에는 유신이 쓰고 청나라 때 예번倪璠이 주석을 낸 『유자산집庾子山集』이 실려 있다.

『유자산집』권 3에는 ‘애강남부哀江南賦’와 함께 유신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영회詠懷 27수’가 들어 있다. ‘영회’는 글자 그대로 감회를 읊은 것이다. 유신이 자신의 고국인 남조의 양梁나라를 떠나 북조의 북주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아 지은 것인데 여러 가지 비유법을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잘 표현했다. 이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연나라의 자객은 요수를 생각하고 진나라의 사람은 농산 머리에서 바라본다(燕客思遼水 秦人望隴頭)”

이 시의 앞 귀절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는 유신이, 연나라의 자객 형가荊軻와 역수易水에 얽힌 고사를 요약하여 묘사한 것이다. 유신은 연나라 태자 단丹의 문객으로 있던 형가가 진秦나라에 가서, 역수에서 태자가 자기를 전송하고 친구 고점리高漸離가 자신을 위해 악기 공筑을 연주하고 자신이 역수가易水歌를 부르던 것을 생각한다는 장황한 내용을 다섯 글자로 농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시의 뒷 귀절 “진인망농두秦人望隴頭”는 농隴은 농산을 가리킨다. 농산은 진나라에 있던 동서에 걸쳐 180리에 달하는 큰 산이다. 진시황 당시에 산동성에서 진나라로 끌려와 부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산위에 올라가 동쪽으로 고향을 바라보면서 향수에 잠겼다는 기록이 『진주기秦州記』에 실려 있다. 이 글귀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압축해서 묘사한 것이다.

형가荊軻는 본래 전국 7웅 중에 들지 못하는 작은 나라인 위衛나라 사람이었다. 위나라는

일찍이 이미 진나라에 의해 병합되었다. 진왕 20년(서기전 227년) 고국을 잃어버린 형가는 연나라에 와서 연 태자 단의 문객門客으로 머물고 있었다.

진왕 영정嬴政은 천하통일의 야망을 품고 동방의 6국을 차례로 통일시켜 나갔다. 통일전쟁은 서기전 23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한韓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를 연이어 정벌하여 차례로 멸망시켰다.

당시 북방에 있던 약소국가 연나라는 진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머지않아 위기가 닥쳐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연 태자 단은 진왕 영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형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형가는 자기 고국을 멸망시킨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한 태자 단이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준 따뜻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태자 단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연 태자 단과 형가는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연나라로 도망쳐온 번어기樊於期的 수급首級과 연나라의 비옥한 땅 독항督亢의 지도地圖를 받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진시황에게 접근하여 암살한다는 계략을 세웠다. 서기전 227년 형가가 출발하는 날 연 태자는 여러 문객들과 함께 역수의 물가에 이르러 형가를 전별했는데 이때 형가의 가까운 친구였던 고점리가 쟁箏과 모양이 비슷한 고대의 악기인 공筑을 연주하였고 형가는 높은 소리로 “가을바람 스산한데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길을 떠나니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우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역수가易水歌이다.

역수는 하북성 역현 경내에서 발원한다. 남南역수, 중中역수, 북北역수로 나뉜다. 강물의 흐르는 위치에 따라 남과 북, 중앙으로 나뉜 것을 볼 때 굉장히 방대한 강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하북성 보정시 역현 일대에 있는데 전국시대 형가가 진나라로 떠나갈 당시에는 연나라의 남쪽 국경선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므로 형가는 이 역수를 건너서 진나라로 떠나가기에 앞서 ‘역수가’를 불렀던 것이다.

유신이 자신의 시에서 ‘역수가’에 나오는 역수를 역수가 아닌 요수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남쪽 국경선에 있던 형가가 건너서 간 역수가 남북조시대엔 요수로도 불렸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신이 말한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의 요수는 역수의 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즉 “연객사역수燕客思易水”라 써야할 것을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라고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요녕성의 요하를 요수라고 믿어온 우리들로서는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를 요수로 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자인지 오자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역수를 요수로 표기한 기록이 만일 유신의 문집 가운데 단지 이곳 한군데만 보이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오키라고 강변해도 달리 대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유자산집』 가운데는 역수를 요수라고 표현한 것이 이곳 뿐 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확인이 된다.

## 2) 하북성 남쪽에 있던 연나라의 역수가 바로 고조선시대의 요수이다

“비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요수를 건넜고, 부절을 지니고 양관을 나갔다. 이릉은 이곳으로부터 떠나갔고, 형경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네.(悲歌度遼水 弭節出陽關 李陵從此去 荊卿不復還)”

이 시는 역시 유신이 쓴 ‘영회詠懷’ 27수 중의 한 단원으로 앞의 시귀에 이어서 후반부에 나온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유신은 역시 형가가 건넜던 강을 역수가 아닌 요수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형가와 이릉李陵 두 사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축약해서 표현했다. 여기서 미절弭節은 지절持節과 같다. 사신이 부절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다. 두예杜預는 “절은 국가의 부신이다.(節國之符信)”라고 말하였고 『사기색은』에서는 “절은 사신이 간직하고 가는 것이다.(節使者所擁也)”라고 하였다.

양관陽關은 서역 쪽에 있었다. 『한서』 「서역전」에는 “돈황으로부터 서쪽으로 옥문, 양관을 나간다.(自燉煌 西出玉門陽關)”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릉은 서한시대의 장군이다. 사마천은 이릉이 흉노에게 항복한 것을 두고 한 무제에게 그를 두둔하는 간언을 올리다가 결국 치욕적인 궁형을 당했다. 『한서』 「이릉전」에는 “이릉의 자는 소경이다. 천한 2년(서기전 99년)에 보졸 5000명을 인솔하고 변경을 나가 흉노와 싸우다가 흉노에게 항복하였다.(陵字少卿 天漢二年 率步卒五千人 出塞 與匈奴戰 乃降匈奴中)”라는 기록이 나온다.

『사기』 「자객열전」에 “형가는 위나라 사람이다. 그 선조는 제나라 사람인데 위나라로 옮겨갔다.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경慶卿이라 불렀다. 연나라로 가자 연나라 사람들은 그를 형경이라 호칭하였다. 형경이 진나라로 들어갈 때 연태자 단이 역수에서 전별을 하였다. 고점리가 악기 공을 연주하자 형가가 거기에 화답하여 ‘바람은 스산한데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길을 떠나니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노래를 불렀다(荊軻衛人也 其先乃齊人 徙於衛 衛人謂之慶卿 而之燕 燕人謂之荊卿 荊軻入秦 燕太子丹 餞之易水 高漸離擊筑 荊軻和而歌曰 風蕭蕭兮 易水寒 壯士一去兮 不復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역수에서 비장한 노래를 부르며 건너간 고사와 이릉이 서쪽으로 흥노에 가서 싸우다가 부득이 항복하게 된 파란만장한 역사를 글자 20자에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유신은 앞에서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라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비가도요수悲歌度遼水”라고 하여 형가가 비장한 노래를 부르며 건너간 역사를 요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의 요수가 역수의 오기가 아니라 남북조시대의 유신은 전국시대의 연나라 역사를 요수로 인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유자신집』의 주석의 저자인 청나라의 예번 또한 유신의 “비가도요수悲歌度遼水”의 요수를 설명하면서 오기라 말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역수라 하고 어떤 경우는 연수라 한다.(一作易水 一作燕水)”라고 주석하여 요수를 역수와 동일한 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번의 설명에 따르면 역수는 요수, 역수, 연수 3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연수는 연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강물이니까 연수라는 호칭이 붙었을 것이다. 그러면 연나라에 있는 강물을 또 역수라고 부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국시대 이전 상나라시기에는 이곳이 유역有易 즉 상나라 제후국인 역국易國의 땅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역수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수가 연수보다 먼저 생긴 이름이 될 것이다. 서주세력이 이곳에 진출하여 연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연국보다 앞서 동이의 역국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면 요수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삼서성에 거점을 둔 서주가 동쪽의 상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옛 동이의 터전에 여러 제후 국가를 건립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오늘날 하북성 남쪽 역수유역에 있던 연나라였다. 따라서 연나라의 역수가 중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족 국가의 강물이라는 의미에서 요수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연나라의 북쪽에는 흥노가 있었고 동쪽에는 조선이 있었다. 흥노나 조선에도 수많은 강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민족 국가인 남의 나라에 있는 강들이다. 한족 국가의 강으로서 중원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강이 연나라의 역수였으므로 한족들의 입장에서 이 역수를 요수로 바꿔 부른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8) 『노사路史』 권26 「역易」 조항에 상나라시대에 역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所謂朔易 古有易之地 商上甲微 伐有易者 今之易州 北終東始 有代易意 故遷于代” 역주라는 지명이 “북방이 끝나고 동방이 시작되는 대체, 교역의 의미가 있다.(北終東始 有代易意)”라는 『노사』의 해석이 흥미롭다. 『노사』에 따르면 중원의 북방은 사실상 역주에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동이의 영토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허북성의 역수를 요수라고 말한 유신은 누구인가

유신은 남북조시대의 남양南陽 신야新野, 지금의 하남성 신야 사람이다. 유신은 문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연속 5대에 걸쳐서 문집을 남겼다고 하니 어떤 가문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유신의 아버지 유견오庾肩吾는 남조 양梁의 중서령中書令을 역임했다. 역시 당시의 저명한 문학가였다.

527년 15세의 유신은 궁중에 들어가 태자 소통蕭統의 동궁강독東宮講讀이 되었다. 531년 소통이 세상을 떠나고 뒤에 양간문제梁簡文帝가 된 소강蕭綱이 다시 태자로 책봉되자 유신의 아버지 유견오는 태자 중서자太子中庶子의 직무를 맡아 문서를 주관하였다. 이때 19세가 된 유신 또한 동궁의 초찬박사抄撰博士를 담당하여 부자가 모두 동궁에 있게 되었다. 문장에 소질이 뛰어났던 유신은 이를 계기로 나중에 궁체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하였다. 벼슬은 차츰 승진하여 우위장군右衛將軍에 이르렀고 무강현후武康縣侯에 봉해졌다. 이것이 유신이 남조의 양나라에서 보낸 전반기 생애이다.

554년 4월 유신은 그의 나이 24세 때 양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북조의 서위西魏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가 장안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되어 양나라가 서위에 의해 멸망하였다. 유신은 남방문학을 경모하던 북조의 임금과 대신들의 만류로 장안에 눌러앉게 되었다. 서위 조정에서는 유신을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등의 중요한 관직에 임명하여 예우하였다. 뒤에 서위는 북주北周로 대체되었는데 북주 왕조에서도 역시 서위에서 처럼 유신에게 표기대장군表騎大將軍, 개부의동삼사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기며 정중히 대우하였다.

그 당시에 남조의 진陳왕조와 북조의 북주가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북조에 억류되어 있던 남방문인들 대부분의 고국으로의 귀환을 허락했다. 그런데 오직 유신과 왕포王褒 두 문인에 대해서만은 남방으로의 귀환을 북주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의 문학적 재능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다.

유신의 북조에서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문단의 대종사로서 황제의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극도의 영화를 누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적국에서 벼슬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대한 분노 등이 서로 뒤얽힌 삶이었다. 그래서 그의 후반기 작품에는 이런 애처로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유신은 581년 끝내 그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역 북방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그때 그의 나이 69세였다.

유신은 남북조시대라는 특수한 시대를 배경으로 태어나 남방과 북방의 이질적인 문화 요

소를 두루 경험하면서 그의 문학은 성숙되어갔고 끝내 남북조 문학의 집대성자로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애강남부哀江南賦, 고수부枯樹賦, 소군사응조昭君辭應詔, 연가행燕歌行, 영회27수詠懷二十七首는 유신이 남긴 명작들이다. 특히 북주당대의 고관대작들은 유신의 뛰어난 글 솜씨를 빌려 그들의 묘비명과 묘지명을 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유신은 또한 수많은 금석문을 남겼다.<sup>9)</sup>

유신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료로 평가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가 쓰여진 시기보다 600여 년 앞서 태어나 살다간 인물이다. 유신은 문인이자 역사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에는 뒷날 명, 청시대의 왜곡의 곡필이 가해지지 않은 우리 상고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내용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다.

요수는 고조선시대 한의 요동군,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의 위치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 그런데 유신은 오늘날의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를 요수라고 말했다.

남북조 문학의 집대성자인 천하의 유신이, 형가의 역수가로 유명한 역수와 요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착각했을 이는 만무하다. 유신이 역수를 요수라 말한 “연객사요수燕客思遼水” “비가도요수悲歌度遼水”는 요수에 대한 간접자료가 아닌 직접자료이다. 유신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남북조시대에는 현재 요녕성의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 남쪽의 역수가 요수였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다.

## 5. 고조선시대의 요수로 본 한의 요동군과 요서군

중국의 연, 진, 한시대 즉 고조선시대에 중국의 군현인 요동군과 요서군이 현재의 요녕성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과 서쪽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국과 중국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사고전서』의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서 현재의 요하가 고조선시대의 요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연나라의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건넬던 역수를 요수라고 말한 1500년 전 남북조시대 유신의 기록에 의해서 현재의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가 바로 고조선시대의 요수였다는 확증을 얻었다.

9) 『유자산집』 권 수수에 실린 전당錢塘 예번倪璠이 편찬한 유신의 「연보年譜」 참조.

한의 요동군, 요서군의 기준이 된 요수가 현재의 요녕성에 있는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에 있는 역수라면 당시 요동군, 요서군의 위치는 대략 지금의 어디쯤에 해당하는 지역일까.

요동군은 지금의 북경시 서북쪽 일대를 중심으로 그 북쪽 지방에 있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요동군에 소속된 현이 18개가 있었는데 그 수현首縣 즉 군청소재지가 있던 현이 양평현이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는 이 한 대의 요동군 양평현을 현재의 요녕성 요하 동쪽 요양현으로 간주해왔다. 그것은 현재의 요하 동쪽을 한 대의 요동군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필자는 이 한 대 요동군의 수현인 양평현을 현재의 북경시 창평구昌平區 일대로 본다. 창평구는 북경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중국 수도 북경의 북대문北大門이다. 북경시의 중심부에서 33킬로 밖에 안 떨어진 창평은 북경의 위성도시로서 북경의 후원으로 일컬어진다. 현재 약 18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창평은 최근에 생겨난 지명이 아니라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지명으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다.

필자가 이 북경시 창평구를 한 대의 요동군 양평현 지역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한서』 「지리지」 요동군 양평현 조항에 “양평현, 목사관이 있다. 왕망은 창평이라고 하였다. (襄平有牧師官 莽曰 昌平)”라는 기록이 나온다. 즉 서한시대의 양평현을 서한말기 신조新朝를 세운 왕망이 창평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 바뀐 창평현이란 지명이 지금까지 북경시 서쪽에 그대로 전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수경주』에 의하면 상흙은 대요수가 “요동군의 양평현 서쪽을 경유한다”라고 말했고 북위의 역도원은 상흙이 말한 양평현을 설명하면서 “왕망시대에는 창평현이라고 하였다. 옛 평주의 치소이다.”라고 하였다. 위진시대에 창평은 평주의 치소로서 그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위진시대의 평주는 오늘날의 북경시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후한서』 「원소열전」의 주석에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한다. 옛 성이 평주 노룡현 서남쪽에 있다.”라고 말했다. 북경시 창평구는 북경시 노룡현의 서남쪽 방향에 속하기 때문이다.

넷째 진나라의 만리장성은 서쪽의 임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요동군에 이르렀다고 『한서』 「오행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회남자』에 의하면 한나라 때 장성의 동쪽 마지막 관문이 거용관이다. 그 거용관 유적이 현재 북경시 창평구 관내에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요동군 18개 현 중의 하나가 서안평현이다. 『요사』 「지리지」 상경도 임황부 조항에는 “상경 임황부는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현의 땅이다. 신국의 왕망은 북안평이라고 하였다.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 西安平之地 新莽曰 北安平)”라는 기록이 나온다. 요나라시대의 상경 임황부는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파림좌기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한 대의 요동군은

북경시 창평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현재의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 파림좌기 일대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북경시 창평구 일대에서 적봉시에 이르는 지역은 하북성 남쪽의 역수에서 바라볼 때 방위상으로 서쪽, 남쪽이 아닌 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역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지역을 요동군으로 간주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서군은 지금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일까. 요동군이 그 수현인 양평현이 현재의 북경시 창평구이고 서안평현이 내몽고 적봉시 일대라면 요서군은 북경시 창평구로부터 그 남쪽으로 하북성 보정시 역현 일대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한시대에 요서군은 현재의 하북성 서수현 수성진에서 낙랑군 수성현과 접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북경시 서쪽에는 상곡군이 있었으므로 서쪽으로는 탁록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현재의 밀운현 일대에 있던 어양군, 동쪽으로는 현재의 노룡현 일대에 있던 낙랑군 조선현과 경계를 마주하였을 것이다. 현대의 요서군은 하북성 동쪽 발해만 부근과 하북성 남쪽 역수유역에서 낙랑군과 경계가 교차하였을 것이다.

## 6. 고조선시대 요동군, 요서군의 위치로 본 한사군의 낙랑

앞에서 고조선시대의 요동, 요서군은 역수를 기준으로 그 동, 서에 설치되었고 그 위치는 대략 현재 북경시 서쪽 창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일대, 남쪽으로는 하북성 역현 일대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고전서』의 문헌자료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냈다.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보는 종래의 견해는 요동군이 압록강 서쪽에 있었다고 인식한데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한의 요동군과 요서군이 북경시 창평구를 중심으로 그 동북쪽으로는 내몽고 적봉시 파림좌기, 그 남서쪽으로는 하북성 역수유역에 걸쳐 있었다면 한사군의 낙랑군이 압록강 건너 대동강 유역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이때 낙랑군은 오늘날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지금의 요녕성 조양시, 하북성 진황도시, 당산시, 천진시, 보정시 일대에서 요서군과 경계가 서로 겹치면서 위치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낙랑군은 동쪽은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로부터 서쪽으로는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던 것이다.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과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에 걸쳐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노룡현에 낙랑군의 수현인 조선현이 있었다는 기록이 『진서』와 『위서』에 전하고 있고 낙랑군 25현 중의 하나인 수성현이 현재의 서수현 수성진인 사실이 여러 기록을 통해서 증명 이 되기 때문이다.<sup>10)</sup>

낙랑군이 요서군과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두 군의 강역이 서로 교차하였다고 본 것은 『진서』와 『위서』 등에 요서군 비여현과 낙랑군 조선현이 서로 이웃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sup>11)</sup>

『태평환우기』 「노룡현」 조항에는 이 지역의 고대유적으로서 조선성, 고죽성, 요서성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다. 이는 하북성 노룡현에 시대를 달리하면서 고조선, 고죽국, 요서군이 아울러 존재했던 사실을 말해준다.<sup>12)</sup>

그리고 이 밖에도 한사군의 낙랑의 위치가 지금의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진황도시 노룡현 지역에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 예컨대 『전한서』 「가연지전」에는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현도, 낙랑으로써 군을 삼았다.(東過礪石 以玄菟樂浪爲郡)”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서한 무제가 갈석산 부근에 낙랑군을 설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서한시대의 갈석산이 어디인가. 동한의 고유는 『회남자』에 나오는 요수에 대한 주석에서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다”라고 하였다. 고유의 주에 의하면 요수는 바로 갈석산을 발원지로 하여 그 산 아래를 흐르는 강물이었다.

남북조시대 유신은 하북성의 역수를 요수라고 하였다. 이는 갈석산은 하북성 역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요수와 갈석산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기』 「소진열전」에서 확인된다. 소진은 “하북성 남쪽 호타하 부근에 역수가 있고 역수 부근에 안문산과 이웃하여 갈석산이 있다.”라고 말했다.<sup>13)</sup>

역수는 호타하 북쪽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이 역수 부근에 있던 갈석산에서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닿는 곳이 지금의 당산시, 진황도시이다. 따라서 『전한서』에서 말한 한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현도, 낙랑으로써 군을 삼았다. (東過礪石 以玄菟樂浪爲郡)”라는 것은 낙랑군이 오늘날의 진황도시 노룡현 부근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

10) 심백강, 「낙랑군 수성현은 어디에 있었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역사』, 바른역사(주), 2014, pp.163~171 참조.

11)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중국역사지도집』의 남북조시대 위나라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일대에 평주가 있고 그 지역에 조선현과 요서군 비여현이 서로 이웃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심백강, 「하북성 노룡현 조선성은 요서고조선 유적」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역사』, 바른역사(주), 2014, pp.105~109 참조.

12) 『태평환우기』, 제 70권, 「평주」, 노룡현 조항 참조.

13) 『사기』 「소진열전」에 “燕南有滹沱易水”, “南有礪石雁門之饒” 등의 기록이 나온다.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북송 때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요』에는 “요수가 한나라의 낙랑, 현도 땅에 있다.(遼水在漢樂浪玄菟)”라고 하였다. 대동강 유역에는 요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낙랑군이 대동강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거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낙랑군이 하북성 동쪽 노룡현에서 서쪽으로 서수현 수성진에 걸쳐 있었고 유신의 말대로 하북성 남쪽의 역현 부근의 역수가 요수였다고 한다면 이 기록은 실제와 부합된다. 현재 역수가 있는 역현은 수성진과 이웃하고 있는데 한 대의 수성현은 낙랑군 25현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기』 「소진열전」에는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燕東有朝鮮遼東)”라고 나온다. 『사기색은』에서는 이 조선을 설명하면서 “조선의 음은 조선이다. 두 강물의 명칭이다. (朝鮮音潮仙二水名)”라고 하였다. 『사기색은』의 조선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명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조선이란 나라는 거기에 조수와 선수라는 두 강물이 있어서 이를 합쳐 조선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거기 흐르는 강물을 조수, 선수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조수와 선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선이 건국을 해서 조선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사기색은』에 의하면 전국시대의 고조선 중심지에 조수와 선수라는 두 개의 강물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한반도나 요녕성에는 조수나 선수라는 강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오직 『태평환우기』에 ‘조선성’이 있다고 기록된 하북성 동쪽의 진황도시 노룡현 부근에 용선수龍鮮水가 있고 『무경총요』에 ‘조선하’가 있다고 말한 북경시 북쪽 고북구 부근에 조하潮河가 있다.

이 조하와 용선수가 바로 『사기색은』에서 말한 조수와 선수라고 믿는다. 조하는 『무경총요』에는 ‘조선하’라 기록되어 있고 용선수는 『태평환우기』에서 ‘조선성’이 있다고 말한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사기색은』, 『태평환우기』, 『무경총요』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하북성 동쪽, 북경시 동북쪽 일대에 고조선이 있었고 그 부근을 흐르는 강물이 조하, 선하, 또는 조선하로 불렸던 것이 분명하다. 이 ‘조선성’과 ‘조선하’ 일대가 한사군시대에는 낙랑군지역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현을 수현으로 거느렸던 한사군의 낙랑군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낙랑군의 교군僑郡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군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시행하던 특수한 행정제도이다. 원래의 영토가 함락된 뒤에 다른 지역으로 그곳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임시로 거주하게 하던 제도를 말한다. 서기 313년 고

구려가 낙랑군을 침략하자 낙랑, 대방 2군을 차지하고 있던 장통張統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1천여 가구를 인솔하고 요서로 가서 선비족 모용외에게 투항하였으며 모용외는 요서에 낙랑군을 교치僑置 하였다는 기록이 『자치통감』 권88 건흥建興 원년(서기 313) 조항에 실려 있다.<sup>14)</sup>

강단사학은 한사군의 대동강 낙랑설을 주장하면서 『자치통감』의 이 기록을 바탕으로, 낙랑군이 하북성 요서지역에 있는 것으로 기술한 자료들에 대하여 그것은 서한시대에 설치한 한의 군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설치된 교군, 즉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낙랑군이 나중에 요서에 이동해간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가 본래 요수이고 이 요수를 기준으로 연, 진, 한 시대의 요동군, 요서군이 설치되었으며 한 무제가 갈석산 동쪽에 설치한 낙랑군은 이 요동군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 대의 낙랑군은 대동강 유역에 설치되었다가 나중에 요서지역으로 이동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북성의 갈석산 동쪽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동강유역에 있던 낙랑군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요서로 이동해 간 것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 노룡현 일대에서 요서군과 이웃하고 있던 한의 낙랑군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당시 요서군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 이웃의 모용외에게 장통이 투항하였고 모용외는 요서지역 일부를 분할하여 거기에 낙랑군을 임시로 다시 설치하여 장통이 데리고 온 1000여 가구의 교민들을 거주하게 했던 것이다.

이때 만일 대동강유역에서 장통이 1000여 가구를 이끌고 오늘날의 하북성 동남쪽에 있던 요서지역으로 이주했다고 가정한다면 패잔병이나 다름없던 장통이 고구려의 공격을 피해 수 천리를 이동해 모용외에게 투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한의 낙랑군은 당시에 하북성 동쪽 진황도시 부근에서 모용외가 통치하는 요서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장통의 모용외에게로의 귀순이 손쉽게 가능했던 것이다.

14) 『자치통감』 권88, 「진기晉紀」10, 孝懷皇帝下 建興元年 四月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 帥其民千餘家歸 鹿 鹿為之置樂浪郡 以統為太守 遵參軍事”

## 7. 맺는말

필자는 위에서 『사고전서』에 나오는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요하가 고조선시대의 요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증했다. 특히 남북조시대 유신의 문집에 역수가 요수로 기록된 데 의거하여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가 바로 고조선시대의 요수이며 이 역수를 기준으로 연, 진, 한시대의 행정구역인 요동군과 요서군이 설치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대의 요동군을 현재 요녕성 요하의 동쪽으로 간주하고 그 요동군의 수현을 요양시로 비정하는 것이 기존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필자는 양평현이 서한시대 말기 왕망에 의해 창평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후 북경시 서쪽에 줄곧 창평현이란 지명이 지속되어오다가 최근에 북경시 창평구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들어서 북경시 창평구가 한 대의 요동군 양평현 지역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요동군과 요서군이 현재의 요하를 기준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하북성의 역수를 기준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요동군 동쪽에 있었던 낙랑군도 당연히 대동강유역이 될 수가 없으며 현재의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주장들을 펼침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고전서』의 사료를 뒷받침으로 하였으며 근거 없는 자의적인 주장은 일체 배제하였다. 오늘 여기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들은 대개가 국내, 외 학계에서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처음 발표되는 것들이다. 또 시대적으로 볼 때도 대개가 명, 청 이전의 자료들이라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대체로 지난날 중국인의 선조들이 남긴 저술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객관성이 확실하다.

다만 여기 근거자료로 제시된 귀중한 자료들 가운데는 사서류 보다는 『유자산집』, 『강문통집』과 같은 문집류에 속하는 자료들이 많다. 우리의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 취모역자吹毛覓疵 하는데 열을 올리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 점을 들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족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에 대해 역사콤플렉스가 작용했다. 그래서 저들이 중원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한, 당 이후 특히 우리나라가 저들의 속국으로 전락한 명나라시대에 엄청난 역사왜곡이 자행되었다. 우리 민족에 대해 역사적인 열등감을 지녔던 한족들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은 비단 오늘날에만 자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의 정사正史 가운데서는 고조선의 발상지, 한사군의 위치, 부여, 고구려, 백제

의 강역 등 우리민족의 상고사쟁점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올바른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민족이 대륙에 남긴 커다란 발자취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말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의 글자를 빼거나 바꾸고 아니면 아예 삭제해버리는 악랄한 마수가 문, 사, 철, 자료의 전반에 미칠 수는 없었고 주로 정사 자료가 그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상고사를 밝혀주는 값진 자료들이 중국의 역사서보다는 문학서나 기타 경서류, 제자백가류, 문집류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저들이 수 만권에 달하는 시인의 문집이나 제자백가의 저서까지 모두 찾아 일일이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기록들을 지울 수는 없었고 그 결과 『회남자』, 『여씨춘추』와 같은 제자백가, 『유자산집』, 『강문통집』 같은 문집류에 우리상고사와 관련된 보석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2000년 전 서한시대에 유방의 손자 유안이 쓴 『회남자』와 1500년 전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유신이 저술한 『유자산집』 등을 비롯한 수많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 천 년 전부터 중국 한족의 영토라고 생각해온 현재의 요녕성과 하북성 동쪽, 남쪽이 모두 고조선 땅이었고 한족이 설치한 요동군, 요서군은 북경시 창평구를 중심으로 그 북쪽과 남쪽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제 한국의 고대사는 당연히 다시 써야하고 중국의 고대사 또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요녕성에 연, 진, 한의 요동군과 요서군이 있었다는 관념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토된 명도전과 같은 유물을 모두 연나라 화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자료의 뒷받침을 통해 요동군과 요서군의 위치가 밝혀진 이상 만주지역에서 발굴된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가 아니라 고조선의 화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 발굴된 치우상이 그려진 귀면 와당을 모두 중국 연나라 와당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한족들은 서주 목왕이 치우를 악마의 수괴로 폄훼한데서 보듯이 치우를 저주하였다. 그런데 치우상이 그려진 와당을 중국의 와당으로 사용하였을 이 만무하다. 동북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광복후 한국 강단사학의 상고사연구 70년을 되돌아보면 고고학이 위주가 되고 문헌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런데 고고학의 1차 자료는 강과 산, 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조선연구에서 고고학적으로 1차 연구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갈석산, 요산, 요수, 조선성, 조수, 선수 이런 것들이 되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런 고고학의 1차 자료는 방기한 채 와당, 목간, 비문 등 이동이 가능한 2차, 3차 자료에 치중하며 문헌사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한 것은 강단사학의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본다.

필자는 이번에 발표논문을 준비하면서 고대의 요하는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가 아니라는 사

실을 밝혀주는 직접, 간접 자료가 이렇게 많은 사실에 놀랐다. 그런데 우리사학계는 그동안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은 채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삼고 고고학연구를 보조로 삼아 한국의 상, 고대사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고대사 논쟁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 사학계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와 민족이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런 파멸의 상황을 맞기까지 화합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버려둔 채 분열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강조해온 강단사학계에 일말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요즘 방영되는 KBS의 ‘한국사기’를 보면서 우리자신의 손으로 우리역사를 왜곡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역사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본래 동양학자인 필자가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매 달려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일찍이 북송 때 편찬된 『무경총요』에서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는 보석을 발굴하여 초라한 반도사관을 청산하고 위대한 고조선사를 바로 세우는데 점 하나를 찍은 바 있다. 오늘 또 1500년 전 유신의 문집에서 하북성 남쪽의 역수가 바로 요수라는 보석을 찾아내고 한의 요동군 양평현이 현재의 요녕성 요양현이 아니라 북경시 서쪽 창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고조선사 연구에 두 개의 점을 다시 찍는다.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획이 되며 따라서 필자는 우리 고조선사 연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자부한다.

1600여 년 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활과 창으로 한사군을 몰아내고 고조선영토를 회복하는데 전공을 세웠다면 오늘 필자는 『사고전서』를 바탕으로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걷어내고 고조선의 역사주권을 되찾는데 기여했다고 확신한다.

다만 요동군, 요서군, 낙랑군을 설치한 것은 2000여 년 전 고조선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1개월여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완전무결하게 논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동군과 요서군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사의 영역에까지 파급된다. 따라서 오늘 필자가 발표한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내 학계는 물론 중국의 학계에서도 자료에 기반한 논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류가 지적되면 수정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론이 제시된다면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

## 토 론 문

---

-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고조선과 연 · 산용 · 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박준형 (연세대)



#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고조선과 연·산용·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 1. 한국고대사 주류학계가 일으킨 사이비역사학 전쟁

이후석 박사의 발표문인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사회-고조선과 연·산용·동호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비평』에 기획시리즈로 게재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이라는 글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이비역사학 전쟁을 일으킨 한국고대사 주류학자들이 사이비역사학으로 매도하는 주요 학설이 바로 ‘고조선 요서설’이고, 십이대영자문화, 십이대영자문화를 계승한 동대장자유형문화와 정가와자유형문화를 ‘고조선’ 혹은 ‘고조선+예맥’ 문화로 주장하는 학자들(발표자 포함) 또한 사이비역사학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연구에만 매진해 왔다. 때문에 이달 들어서야 역사문제연구소와 역사비평사에서 발행하는 『역사비평』 2016년 봄·여름·겨울호에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비판’이라는 연속기획시리즈로 9명의 젊은 학자가 쓴 9편의 글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이 글들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오늘(2017.03.19.)에서야 “한국고고학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상고사학회가 주관하는 ‘고고학·역사학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가 ‘요서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를 주제로 이화여대 인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상고사를 둘러싼 재야사학(또는 유사역사학) 쪽 주장에 정면 대응을 자제해왔던 강단학계가 본격 ‘응전’에 나서는 이번 행사에선 △상고사 부풀리기의 부당성과 위험성(하일식 연세대 교수) △요서지역 고고학·고대사 연구의 역사와 현황(송호정 교원대 교수)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종일 서울대 교수) △홍산문화, 시각과 쟁점(김정열 숭실대 교수) △요

서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와 종족(조진선 전남대 교수) △요서지역과 연·진 세력의 확대(김병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노태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를 맡고, 이청규 영남대 교수와 심재훈 단국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는 등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 학술대회가 요서지역을 한국사 영역으로 보는 연구를 유사역사학 혹은 사이비역사학으로 몰고 그 연구자들을 유사역사학 혹은 사이비역사학자로 매도하는 학술대회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들을 검색하여 보게 된 것이다.

『역사비평』에 글을 실은 위 9명의 학자들과 위 학술대회 주요 참가자들이 사이비역사학, 유사역사학을 대략 ① 단군과 단군의 고조선을 역사적 존재로 믿고 주장하는 것, ② 고조선(위만조선 전대의 조선과 위만조선) 영역을 요서지역까지로 주장하는 것, ③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 위치를 한반도 밖의 요하 서쪽 지역으로 주장하는 것, ④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營子文化) 유물들을 포함한 요하 서쪽 지역의 고고학 유물들을 고조선, 예, 맥 등의 유물로 주장하는 것, ⑤ 요하문명을 고대 한국 문명으로 주장하는 것, ⑥ 백제가 북경에서 상해까지 중국 동부지역을 통치하였다는 것, ⑦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을 우리의 종족으로 보는 것, ⑧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것, ⑨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등이 중국 본토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⑩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실로 신봉하고 인용하는 것, ⑪ ‘낙랑군 재란하유역설’, ‘낙랑군 재북경설’, ‘낙랑군 재보정설’, ‘갈석산 백석산설’, ‘요수 역수설’, ‘요수란하설’, ‘갈석궁 부정설’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사이비역사학자’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시 부정설’, ‘단군 부정설’,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부정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백제의 중국지배 부정설’, ‘고구려, 신라, 백제 전기 역사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 한국사 배제설’ 등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을 ‘사이비 역사학’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어떻게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정통역사학이고 어떠한 학자가 정통역사학자인지, 어떻게 어떤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사이비역사학이고 어떠한 학자가 사이비역사학자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한국고대사학계와 한국고대사교육을 지배해온 주류학자들의 ‘신

1) 위 ⑨, ⑩, ⑪번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사이비역사학이라고 비판하고, 위 ⑨, ⑩, ⑪번과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사이비역사학자로 비판하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⑨, ⑩, ⑪번에 대한부분은 논외로 한다.

시 부정설, ‘단군 부정설’,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부정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백제의 중국지배 부정설’, ‘고구려, 신라, 백제 전기 역사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 한국사 배제설’ 등이야말로 반역사적, 반실증적, 반논리적, 반객관적, 반민족적인 사이비역사학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거나 추종하는 학자들이야말로 반역사적, 반실증적, 반논리적, 반객관적, 반민족적인 사이비역사학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 2. 한국사교육을 독점해온 한국고대사학계 주류 학설이 사이비역사학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논자들로 대표되는 한국고대사학계의 주류세력이 ‘고조선 재요서설’, ‘한사군 재요서설’을 ‘사이비역사학’으로 몰고, ‘고조선 재요서설’, ‘한사군 재요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사이비역사학자’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정통역사학(진짜 역사학)’이고 무엇이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 가짜 역사학)’인지 분류하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가 이들이 선택한 ‘사이비역사학’, ‘사이비역사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역사학을 ‘정통역사학(진짜 역사학)’과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 가짜 역사학)’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 1) 진짜 역사학(정통역사학)

‘진짜 역사학(정통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진행 당시를 살던 사관·학자 등이나 그 사건의 발생·진행 과정을 알 수 있던 시대를 살던 사관·학자 등이 남긴 기록과 그 사건의 발생·진행 당시의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논리적·실증적·과학적 고증으로 역사적 사실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 2) 사이비역사학(혹은 유사역사학, 가짜 역사학)

‘가짜 역사학(혹은 사이비 역사학, 유사역사학)’은 특정한 목적(한국의 경우 신시·고조선사 부정 및 한국사 영역을 요하 동쪽·한반도로 한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의 발생·진행 당시를 살던 사관·학자 등이나 그 사건의 발생·진행 과정을 알 수 있던 시대를 살던 사관·학자 등이 남긴 기록조차 배척하거나 왜곡하고, 후세에 조작되거나 위조된 기록과 위조된 유물·유적을 증거로 채택하고, 자의적으로 유물·유적을 해석하는 등 반역사적·

반객관적·반논리적·반실증적·반과학적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과 역사의 진실을 말살, 왜곡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통역사학(진짜 역사학)’과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 가짜 역사학)’을 구분한다면, 일본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역사학계를 지배하고 한국고대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신시 부정설’, ‘단군 부정설’,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부정설’, ‘한국 고대국가가 건국사 부정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전기 고구려 압록강유역 소국설’, ‘백제의 중국 동부지배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 한국사 배제설’ 등을 주장하는 역사학이야말로 사이비역사학이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학자들이야말로 사이비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객관적, 논리적, 실증적,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해본 결과 ① 고조선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관중, 사마천 등과 같은 중국의 학자·사관 등이 남긴 기록인 『관자』, 『산해경』, 『사기』, 『전국책』, 『여씨춘추』, 『설원』, 『회남자』, 『한서』 등의 역사지리 기록들은 모두 고조선·예·맥·부여·임둔·진번 등의 위치를 발해 북쪽·요하 서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② 또한 한사군(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군), 한이군(낙랑군·현도군), 한삼군(낙랑군·대방군·현도군) 등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사관 등이 남긴 기록인 『한서』, 『후한서』, 『무릉서』, 『설문해자』, 『수경』, 『삼국지』, 『진서』의 기록들은 모두 한사군과 낙랑군·대방군을 산해관 동쪽지역에서 요하 서쪽 사이로 가리키고 있었으며, 요서군과 요동군 위치는 영정하(북경·천진 서부지역)로부터 당산·진황도시 산해관까지로 가리키고 있었다. 또한 필자는 부여·고구려·백제가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사관 등이 남긴 기록인 『후한서』, 『삼국지』, 『송서』, 『남제서』, 『양서』 등을 연구 분석하여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족은 부여·고구려와 같은 언어와 혈통을 가진 부족이기도 했고 부여·고구려에 속하기도 했던 부족이며, 혈통적으로 여진족 피의 90% 이상이 고구려·백제인 것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또한 고구려는 서기 49년에 중국 영토 수천 리를 정벌했을 만큼 건국초부터 강대국이었고, 백제는 약 200년간 북경·천진 지역으로부터 중국 동남부 지역까지 지배한 제국이었던 것도 밝혀낸 바 있다.<sup>2)</sup>

2)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그러나 ‘신시 부정설’, ‘단군 부정설’,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부정설’, ‘한국 고대국가 건국사 부정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전기 고구려 압록강유역 소국설’, ‘백제의 중국 동부지배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 한국사 배제설’ 등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고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 부여, 고구려, 백제의 역사가 진행 중일 당시를 살던 관중, 사마천 같은 중국 학자·사관 등이 남긴 (위에서 본) 역사지리 기록들을 철저히 배척하거나 왜곡하였다. 자신들이 추종하고 주장해온 학설들이 허구로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것은 삼국시대 이후에 위조된 기록인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 고조선과 한사군 등이 소멸한 이후에 중국인들이 왜곡한 기록, 세칭 낙랑유물 등 뿐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고조선, 한사군, 낙랑군·대방군이 한반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물로 주장되어 온 세칭 낙랑유물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본 결과 낙랑군 호구부, 봉니, 인장, 와당, 벽돌, 점제현신사비, 전범, 대구(帶鉤), 마구(馬具), 옥기(玉器) 등의 유물들은 대부분 조악한 위조품이거나 한반도 북부 지방이 전한(前漢)·신(新)·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세력,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은 삼국시대 이후에 위조된 기록이고, 청천강(혹은 압록강) 또는 요동반도까지 만리장성이 이르렀다는 주장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 만리장성의 동단(東端)인 갈석산(碣石山)은 산해관 북부의 갈석산(碣石山, 695m)·조산(祖山, 1,428m)·장수산(長壽山, 약 907m)이라는 것 등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요하문명(홍룡와문화·홍산문화·하가점하층문화 등)이 고대 한국 문명이라는 것, 주나라 초기 영역이 요하의 서쪽에 이른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언(匭)자의 고문자를 연(燕)자로 왜곡하였다는 것 등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sup>3)</sup>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8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김중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3)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따라서 고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 부여, 고구려, 백제의 역사가 진행 중일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사관 등이 남긴 위와 같은 역사지리 기록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위조된 낙랑 유물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삼고, 유물유적을 해석을 왜곡하여 주장해온 ‘요수 요하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전기 고구려 압록강유역 소국설’, ‘백제의 중국 동부지배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 한국사 배제설’을 주장하고 추종하는 학문은 반역사학적, 반실증학적, 반객관적, 반논리적, 반과학적, 반민족적인 학문으로 역사학에서 도태시켜야 할 사이비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역사학적, 반실증학적, 반객관적, 반논리적, 반과학적, 반민족적인 사이비역사학에 매몰된 학자들 또한 사이비역사학자로 비판받고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필자 1인 대(對) 한국고대사학계의 주류세력으로 한국사 교육을 독점해온 ‘요수 요하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전기 고구려 압록강유역 소국설’, ‘백제의 중국 동부지배 부정설’, ‘여진(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 한국사 배제설’ 논자들 모두와 한국고대사의 모든 문제, 모든 쟁점마다 객관적, 실증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논하여 어떤 것이 사이비역사학이고, 어떤 것이 진짜 역사학인지 겨뤄보기를 청한다.

### 3. 이후석 박사의 발표문에 대한 반론 및 질문

#### 1) 반론 및 질문 1 :

연나라 소왕(昭王)이 진개를 시켜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기술은 반실증적, 반역사적인 역사와 곡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중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8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김중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권, 한국학연구원, 2015년 4월 13일.

김중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2권,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4일.

김중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헌박사학위 논문, 2005, 12.

이후석 박사는 발표문에서, “『위략』에는 소왕(昭王; 서기전 312~279년 재위)대의 연이 고조선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전쟁까지 벌였는데, 그 결과 고조선의 서방 2천여리를 취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① 『위략』의 조선 관련 기사에는 연나라 소왕(昭王)에 대한 기사가 없다. ② 『사기』와 『전국책』에도 연나라 소왕이 동호에 인질로 간 장수 진개를 불러들였다는 기록이 없고, ③ 소왕이 조선을 공격한 기록도 없으며, ④ 소왕이 진개를 시켜서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기록도 없다. ⑤ 소왕이 진개를 시켜 동호를 공격하였다는 말도 없고, ⑥ 소왕이 동호 땅 1,000리를 빼앗았다는 말도 없다.<sup>4)</sup>

다만 소왕이 진개를 시켜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말은 이병도가 “연(燕)은 진개란 장수를 보내어 조선의 서방을 공침하여 2천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한이란 곳에 이르러 조선과 경계를 삼았다…… 이때는 아마 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소왕(서기전 331~279)의 치세에 당한다”<sup>5)</sup> 하고 주장한 말이 있다. 또 이러한 이병도의 주장을 발전시킨 노태돈이 “『사기』 「조선전」에 의할 때에, 즉 진개가 활약한 연의 소왕(昭王 : BC 311~BC 270) 대에 연이 조선을 공략하여 그 영토를 빼앗았다고 하였으니, 그 때 고조선이 일부 영토를 상실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겠다. 소왕대에 연이 동북으로 5군(郡)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요동군이 가장 동쪽에 있었으니, 연의 요동군이 된 지역, 적어도 그 일부가 고조선 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 BC 4세기 말에서 BC 3세기 초반인 연의 소왕대에 연에게 패해 그 서쪽지역을 크게 상실하고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 이어 진의 요동군과 국경을 접했는데, 그 경계는 앞장서 말하였듯이 청천강 이었다.”<sup>6)</sup> 라고 조작한 말이 있다. 또한 송호정이 “소왕은 동호에 인질로 간 장수 진개를 불러들여 군대를 이끌고 북상케 하였다. …… 명도전을 사용한 시기가 연 소왕이 국력 강화를 마친 후 장수 진개를 중심으로 동호를 치고 계속해서 고조선을 경략한 이후이므로……”<sup>7)</sup> 라고 조작해낸 말 등이 있을 뿐이다.<sup>8)</sup>

이후석 박사의 인용 예에서 보듯이 이들이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끼쳐온 큰 권위 때문에 이렇게 조작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인용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기까지 한다.

‘고조선 재한반도설 · 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 · 패수 혼하설 · 한사군 재한반도설 · 낙랑군 재한반도설 · 낙랑군 · 대방군 재한반도설’등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고조선과 한사군,

4)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4, 156~228쪽.

5)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67쪽.

6) 노태돈, 「고조선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2000, 73쪽.

7) 송호정, 『한국사속의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245, 303, 333~334쪽.

8)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4, 156~228쪽.

낙랑군·대방군 등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사관 등이 조선·예·맥·부여·임둔·진번, 임둔군·진번군·낙랑군·현도군·대방군 등의 위치를 발해 북쪽·요하 서쪽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관자』, 『산해경』, 『사기』, 『전국책』, 『여씨춘추』, 『설원』, 『회남자』, 『한서』 『한서』, 『후한서』, 『무릉서』, 『설문해자』, 『수경』, 『삼국지』, 『진서』 등의 기록은 철저히 배척하거나 왜곡하고, 연나라 소왕과 진개의 이야기를 조작해내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고조선 재한반도설·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패수 혼하설·한사군 재한반도설·낙랑군 재한반도설·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등의 근거나 증거로 삼아 왔다.

이러한 한국고대사학계 주류학자들의 반역사적, 반실증적, 반논리적, 반객관적, 반과학적, 반민족적인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이비역사학, 사이비역사학자라는 비판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석 박사는 ‘연나라 소왕(昭王)이 진개를 시켜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 한국고대사학계 주류학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 2) 반론 및 질문 2 :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이 중국 삼국시대 이후 조작된 기록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고조선 재한반도설·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패수 혼하설·한사군 재한반도설·낙랑군 재한반도설·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등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고조선과 한사군, 낙랑군·대방군·현도군·요동군 등의 중국 군현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 관리들이 남긴 기록을 철저히 배척한 반면,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침탈했다는 기록, 고조선과 한사군 소멸 후 중국인들이 고조선과 한사군 위치에 대해 왜곡한 기록, 세칭 낙랑유물 등만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그러나 연나라 장수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침탈했다는 『위략』의 기록은 실재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후에 위조된 기록이다. 필자는 이 『위략』의 기록이 위조된 기록이라는 증거로 대략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바 있다.

① 2천리 영토를 가진 연나라의 장수 진개가 연나라 영토크기 만한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연나라 역사에서 큰 사건이므로 연나라 역사서인 『사기』 「연소공세가」에 그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2,000리를 빼앗은 기록은 물론 연나라와 조선의 전쟁 기록, 진개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② 조선이 연나라에 2,000리 영토를 빼앗겼다면 조선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므로 조선 역사 기록인 『사기』 「조선열전」에 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나라에게 2,000리를 빼앗긴 기록은 고사하고 연나라와의 전쟁기록도 없고, 진개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③ 전국시대 연나라 기록인 『전국책』 『연책』에도 연나라와 조선의 전쟁기록, 진개의 이름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전국시대 사람들이 연나라와 조선 간의 2,000리 땅을 뺏고 뺏기는 전쟁, 연나라 장수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전쟁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전쟁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못했다는 증거이다. ④ 진개가 만약 동호 땅 1,000리를 빼앗고,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진개가 춘추전국시대 최고의 영웅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사마천은 당연히 춘추전국시대 최고의 공로자인 진개의 공적을 기리는 「진개열전」을 짓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사마천은 「진개열전」을 짓지 않았다. ⑤ 사마천이 『사기』 「연소공세가」와 『사기』 「조선열전」에 연나라가 조선 땅을 2,000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개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마천이 연나라와 조선 간의 2,000리 땅을 뺏고 뺏기는 전쟁, 연나라 장수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2,000리 영토를 가진 연나라 장수 진개가 만약 동호 땅 1,000리를 빼앗고,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사마천이 5,000리 영토의 큰 나라인 연나라를 2,000리 영토를 가진 제나라, 2,000리 영토를 가진 조나라, 만이에 둘러싸인 최 약소국이라고 말했을 리 없다. ⑦ 연나라의 장수 진개가 연나라 영토크기 만한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사기』 『전국책』,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등의 모든 서책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연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가능 연대인 서기전 284년경으로부터 720여년이나 지난 서기 429년에 남송(420~478)의 배송지가 『삼국지』에 달아 논 주석의 형태로 나타날 수는 없다. ⑧ 사마천의 필법을 벗어난 상식 밖의 『사기』 「홍노열전」의 기록이고, ⑨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기록은 중국 삼국시대 이후에 조작된 기록이다. ⑩ 연나라 역사서인 『사기』 「연소공세가」에 연나라와 동호의 전쟁기록은 물론 접촉기록도 없는데, 『사기』 「조세가」에 조나라와 동호가 대(代)지역을 놓고 뺏고 뺏기는 전쟁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만약 진개가 동호를 1,000리 물러나게 하였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진개가 조나라 장수로서 동호를 기습 공격하여 동호에 빼앗겼던 땅 1,000리를 물러나게 한 기록이 연나라 이야기로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밝혀낸 바 있다.<sup>9)</sup>

이처럼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은 삼국시대 이후에 위조된

9)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4, 156~228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 32~35, 312~317쪽.

기록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후석 박사의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문화유형·정가와자유형 문화를 예·맥과 조선 문화로 보는 학설과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은 양립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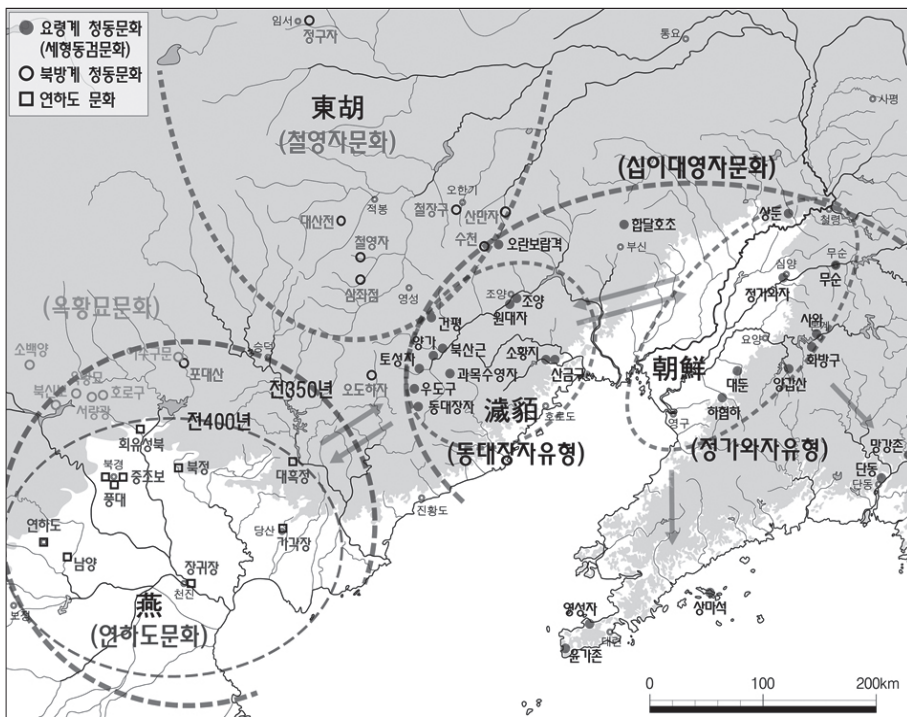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문화유형·정가와자유형문화가 예·맥과 조선 문화일 경우, 요동국은 진황도시를 포함한 란하 하류유역으로부터 북경·천진 지역일 수밖에 없고, 북경·천진으로부터 천산산맥까지는 3,000여리나 되고, 청천강까지는 약 4,500여리나 되어 연나라가 요동·조선 땅 2,000여리를 빼앗았다는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후석 박사의 『위략』의 연나라 장수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의 진위(眞僞)에 대한 생각은?

또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과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문화유형·정가와자유형문화가 예·맥과 조선 문화라는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이후석의 <도면 9>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과 연·동호의 물질문화 범위



### 3) 반론 및 질문 3 :

‘십이대영자문화· 동대장자유형문화유형· 정가와자유형문화’를 고조선· 예· 맥문화로 보는 발표자의 학설과 ‘고조선 재한반도설· 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 패수 혼하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등은 양립할 수 없다.

발표자의 선택은?

이후석 박사는 발표문에서, ㉓ 십이대영자문화를 비파형동검(또는 요령식동검)과 이중구연 점토대토기를 표지유물로 하여 서기전 9~4세기경에 존속된 문화로서 ‘예맥+ 고조선문화’라고 하고, 그 문화권을 위 ‘〈도면 9〉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과 연· 동호의 물질문화 범위’와 같이 표시하였고, ㉔ 십이대영자문화는 전국시대(또는 서기전 5~4세기대)에 요서 지역의 동대장자유형과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으로 분화되었는데, 동대장자유형문화를 예맥문화, 정가와자유형문화를 조선문화라고 하였다. 그런데

- ① 소진이 연나라 군주인 문후(서기전 361년~332년 재위)에게 연나라 동쪽에 조선(朝鮮)과 요동(遼東)이 있다고 한 기록이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에 있고,
- ② 『염철론』 「벌공」 편에는 연나라가 요동을 넘어서 조선을 공격하였다고 하였으며,
- ③ 연나라는 요동국을 정벌하고, 요동국을 동서로 나누어 그 땅에 요서군과 요동군을 설치하였다.
- ④ 동대장자유형문화는 서기전 4세기 전후 문화이고,
- ⑤ 소진이 연나라 요동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한 때도 서기전 4세기이다.
- ⑥ 또한 서기전 4세기 이전부터 서기전 2세기까지도 조선과 예· 맥이 존속하고 있었다.
- ⑦ 따라서 서기전 4세기 연나라 동쪽에 있던 요동국은 동대장자유형문화권의 서쪽인 란하 하류유역의 진황도시· 당산시와 북경· 천진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
- ⑧ 그러므로 ㉓ 십이대영자문화가 ‘예맥+ 고조선문화’이고, 동대장자유형문화가 예맥문화이며, 정가와자유형문화가 조선문화라고 한 학설은 ㉔ (요동국을 동서로 나누어 그 동쪽에 설치한) 요동군이 요하의 동쪽 요동반도에 있었다는 대전제하에 성립한 ‘고조선 재한반도설’, ‘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 재한반도설’, ‘낙랑군· 대방군 재한반도설’ 등과 양립할 수 없다.
- ⑨ 또한 ㉓ 십이대영자문화가 ‘예맥+ 고조선문화’이고, 동대장자유형문화가 예맥문화이며, 정가와자유형문화가 조선문화라고 한 학설은 ㉔ 현재의 요하가 고대 중국과 고대 한국의 국경선이었던 요수이고, 요수의 동쪽에 요동군을 설치하고, 요수의 서쪽에 요서군을 설치하였다는 대전제하에 성립한 ‘고조선 재한반도설’, ‘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

패수 혼하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낙랑군 재한반도설', '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등  
과도 양립할 수 없다.

- ⑩ 뿐만 아니라 『후한서』 「군국지」에 기록된 낙양에서 요서군·요동속국·요동군 간의 거리 기록을 수학적 위치고증방법(㉔ 한대도로와 현대 고속도로의 비교, 청대도로와 고속도로를 비교하여 찾아낸 현대도로의 비교로 위치를 찾는 방법, ㉕ 도로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㉖ 지도상의 단순거리 비교로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고증한 요서군·요동속국·요동군 위치 또한 북경·천진·당산·진황도시에 있었으며,<sup>10)</sup>
- ⑪ 후한 영제(168~188 재위) 때 학자인 응소처럼 요서군과 요동군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 관리들이 남긴 기록도 요서군·요동군이 란하 하류유역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sup>11)</sup>

때문에 '요수 요하설·고조선 재한반도설·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한사군 재한반도설·낙랑군 재한반도설·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 주장자들은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문화·정가와자유형문화'를 고대 한국문화권에서 배제시켜 온 것이고, 고조선과 한사군, 낙랑군·현도군·현도군·요동군 등이 실존하던 당대의 기록을 철저히 배척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후석 박사는 한국 고대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요수 요하설' '고조선 재한반도설' 등에 반하는 '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문화·정가와자유형문화'를 '예맥+조선문화'라는 주장을 폐기하던지, '요수 요하설·고조선 재한반도설·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한사군 재한반도설·낙랑군 재한반도설·낙랑군·대방군 재한반도설'등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석 박사는 견해 어떠한지?

10)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김중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11)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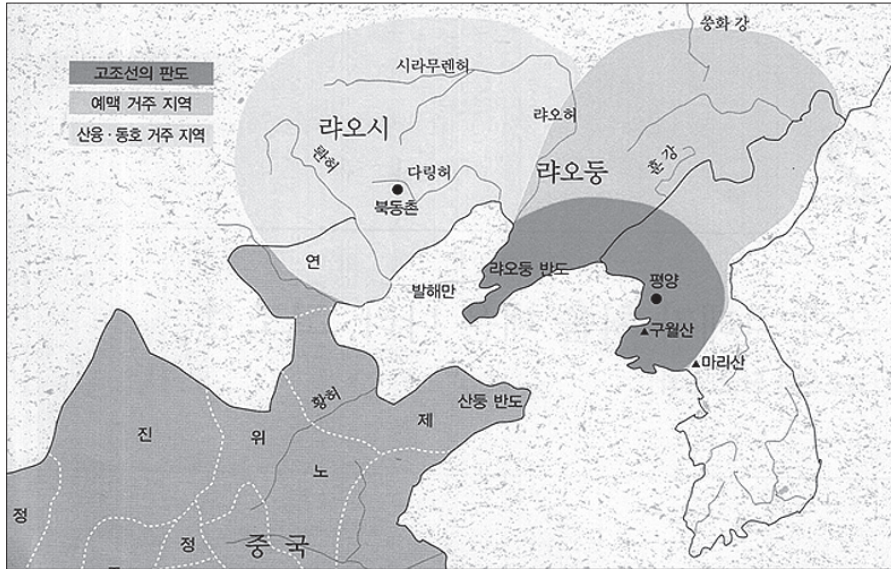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중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4) 반론 및 질문 4 :

‘산용 · 동호 재요서설’에 대한 견해는?

송호정의 고조선 영역과 산용 · 동호 위치<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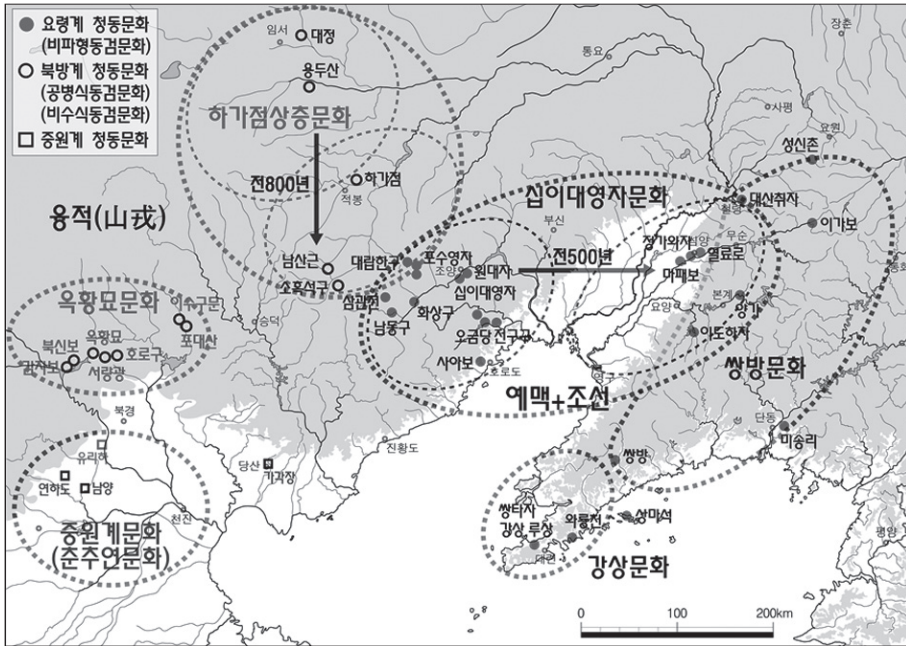
산용과 동호가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 사관들이 남긴 역사지리 기록들인 『관자』, 『춘추』, 『산해경』, 『전국책』 등에는 산용 · 동호가 란하(혹은 영정하)에서 요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전혀 없다.

또한 이후석 박사의 십이대영자문화 · 동대장자문화유형 · 정가와자유형문화가 고조선 · 예 · 맥 문화라는 발표문으로 볼 때도 산용 · 동호는 란하에서 요하 사이에 있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의 고조선 영역과 산용 · 동호 위치’에서 보듯이 산용 · 동호 영역이 란하(혹은 영정하)와 요하 사이에 위치했다는 대전제하에서 전개된 것이 ‘고조선 재한반도설’, ‘패수 청천강설(혹은 압록강설)’, ‘한사군 재한반도설’이고, 중 ·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잘못된 학설만을 독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육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이후석 박사의 견해는?

12) 송호정,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고조선 · 부여 · 삼한시대)』, 고래실, 2003, 42쪽.

이후석의 <도면 1> 춘추시대(서기전 8~5세기) 고조선과 연·산용의 물질문화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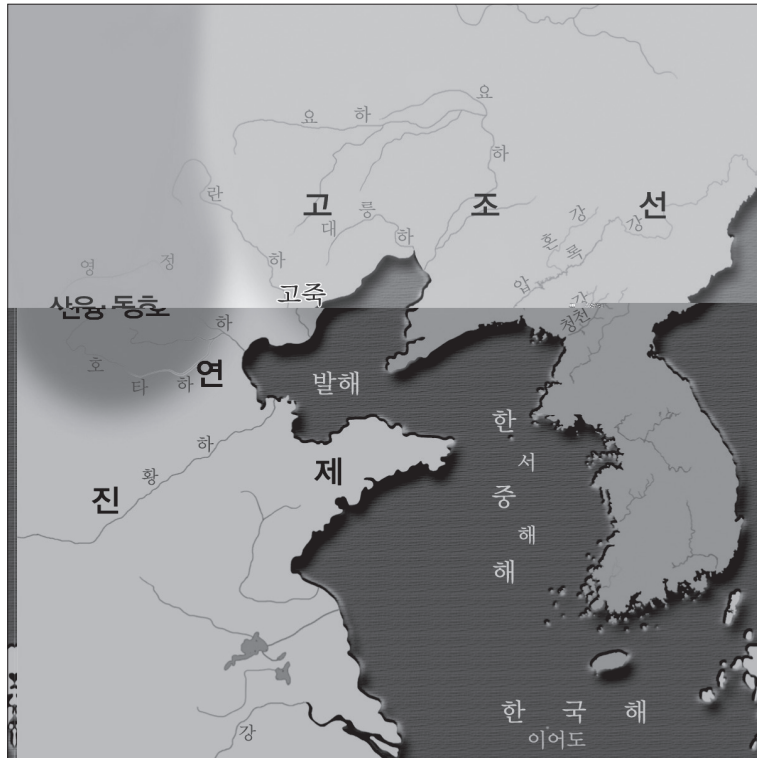


5) 반론 및 질문 5 :

하가점상층문화가 구려, 예·맥, 옥저, 북부여 문화 중의 하나일 가능성은?

이후석 박사가 제시한 ‘<도면 2> 춘추시대(서기전 8~7세기) 하가점상층문화의 주요유물 (영성 남산근과 소흑석구)’, ‘<도면 4> 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9~6세기) 요서지역의 수장묘와 출토유물’, ‘<도면 5> 후기비파형동검문화 단계(서기전 6~5세기) 요령지역의 수장묘와 출토유물’, ‘<도면 3> 춘추시대(서기전 7~6세기) 옥황묘문화의 주요유물(연경 옥황묘, 난평 이수구문)’을 비교하여 보면, 하가점상층문화의 비파형 동검의 검신과 전기비파형동검문화와 후기비파형동검문화의 비파형 동검의 검신은 같거나 유사하고, 철영자문화의 비파형동검의 검신과 옥황묘문화 동검의 검신은 전혀 다르다.

## 고조선과 산용·동호의 실제 위치도



또한 산용은 동호가 되고, 동호는 오환·선비가 되었으며, 산용·동호·오환·선비의 영역은 태원 북쪽의 훈주(忻州)·대현(代縣)과 태행산맥·항산산맥과 그 이북지역이었고, 산용·동호·오환·선비의 동쪽 영역의 한계는 란하의 중·상류까지였고, 란하 중·상류와 요하 상류 유역은 고조선에 속한 부족인 구려, 예·맥, 옥저, 북부여 등의 영역이었다.<sup>13)</sup>

따라서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동호의 문화가 아니라 예·맥, 옥저, 북부여 중의 한 부족이나 이들 부족중의 복수 부족의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후석 박사의 견해는?

13)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 129~228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 32~35, 171~173, 185~236쪽.

6) 반론 및 질문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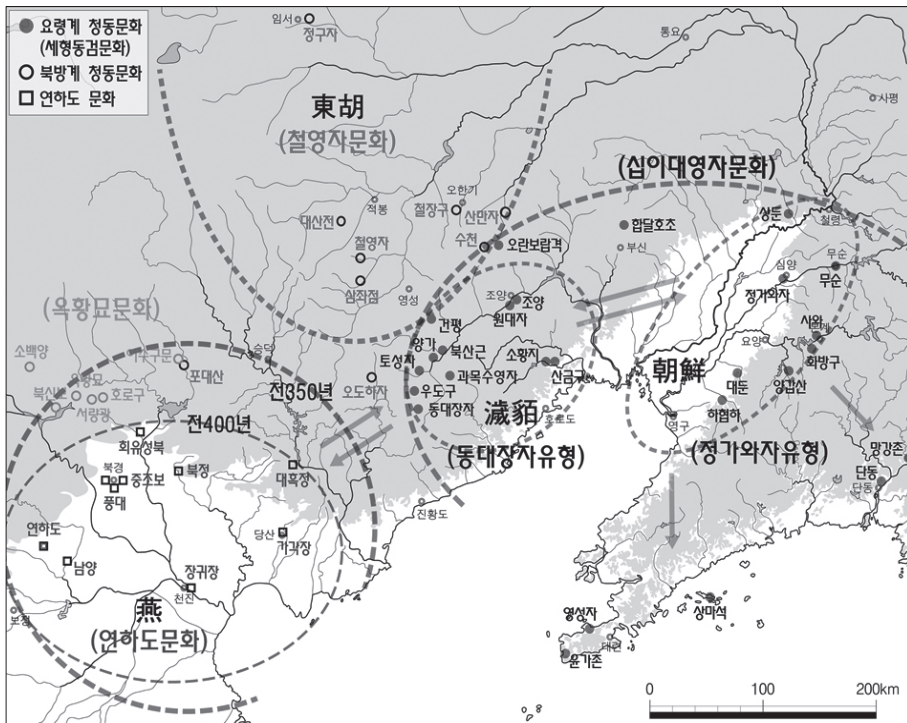
철영자문화(또는 정구자문화)권을 고대 한국문화권으로 볼 수 없는지?

이후석 박사는 ‘이후석의 <도면 7> 전국시대 내몽고 동남지역의 철영자문화 출토유물(괘라 심기 철영자)와 위 ‘이후석 박사의 <도면 9>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과 연·동호의 물질문화 범위’에서 보는 철영자문화(또는 정구자문화)를 동호문화로 보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산용·동호·오환·선비의 영역은 태원 북쪽의 훈주(忻州)·대현(代縣)과 태행산맥·항산산맥과 그 이북지역이었고, 산용·동호·오환·선비의 동쪽 영역의 한계는 란하의 중·상류까지였고, 란하 중·상류와 요하 상류 유역은 고조선에 속한 부족인 구려, 예·맥, 옥저, 북부여 등의 영역이었다.

때문에 철영자문화(또는 정구자문화)권을 산용·동호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철영자문화(또는 정구자문화)가 고조선에 속한 구려, 예·맥, 옥저, 북부여인들 문화와 연관 시킬 수 없는지?

이후석의 <도면 9>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과 연·동호의 물질문화 범위



## 7) 반론 및 질문 7 :

### 선진(先秦) 문헌의 불인정 이유

이후석 박사는 대부분의 선진문헌은 전국시대 이후 또는 전국말~서한초를 전후하여 재편찬된 것이어서<sup>14)</sup> 그 기록에는 후대 편집인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고조선은 산융·동호 등의 이민족과 함께 연의 동북방에 위치하였으나 문헌 기록만으로는 그 시공간적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신무천황(神武天皇)이 서기전 660년에 일본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한국을 영구히 지배하려던 일본인들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이 역사문화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할 것을 염려했다. 때문에 일본보다 긴 역사를 가진 한국사 말살·왜곡작업을 하였다. 때문에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고, 서기전 645년 전 이전에 고조선이 이미 중국에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인 『관자』의 조선 관련 기록과 『산해경』의 조선 관련 기록을 전국말~서한초를 전후하여 재편찬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료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해온 한국고대사학계의 주류학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몇 편 남아있지도 않는 한국 고대사 관련 역사지리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 역사의 진실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의로 사료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반역사적, 반실증적, 반논리적, 반민족적 역사학이고, 사이비역사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석 박사의 견해는?

## 8) 반론 및 질문 8 :

### 초기 고조선의 시기 문제

이후석 박사는 “예맥이나 초기 고조선의 물질문화로는 흔히 비파형동검문화로 명명되는 ‘십이대영자문화’이다.”라고 하였다. 비파형동검문화를 초기 고조선 문화라고 한다면 비파형동검문화 이전의 고조선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에 대한 이후석 박사의 견해는? 만약 비파형동검문화 이전 시기의 고조선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14)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4.

## 9) 반론 및 질문 9 :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서인가 요동인가?

이후석 박사는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존중하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이라 할 수 있고, 2천여리를 잃었다는 『위략』의 기록에 주목하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서 또는 요동 방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면, 고조선 영역이 요동에서 2,000리 서쪽에 있었을 것이므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서지역(요하 서쪽 지역)이나 요동지역(요하 동쪽 지역)으로 보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 ‘2) 반론 및 질문 2’에서 말했듯이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위략』의 기록은 삼국시대 이후 위조된 기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에 하나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나라가 요동국과 조선 땅 서부지역 땅을 합한 넓이가 2,000리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경·천진으로부터 천산산맥까지는 3,000여리가 넘는다.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하 서쪽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의 가장 많이 출토되는 대릉하 유역의 조양 지역을 고조선 중심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생각되는 데 이후석 박사의 견해는?

또한 이후석 박사의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존중하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이라 할 수 있고”라고 한 말은 연나라가 요동(요하 서쪽 지역)에 까지 간 다음에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니 고조선은 요하의 동쪽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존중하면”이라고 한 말은 오기이다. 『염철론』의 기록은 “연나라가 기습 공격하여 동호가 달아나서 1,000리를 피하였다. (연나라가) 요동을 넘고, 조선을 공격하였다.”<sup>15)</sup> 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의 요동국은 현재의 요동반도가 아니라 란하 하류 유역과 북경·천진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후석 박사는 위 주장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또 『염철론』은 연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나라가 조선에게 그 동쪽 땅을 빼앗기었다는 기록도 있다. 즉, 『염철론』 「비호」편에 “대부(상홍양 桑弘羊)가 말하기를 지나 간지 오래된 옛날에는 사방의 이종족들이 모두 다 강성하였다. 그래서 모두가 쳐들어와서는 잔인하고 참혹하게 약탈하곤 하였다. 조선은 연나라의 변경을 지키는 성채를 넘어와서

15) 『鹽鐵論』卷八「伐功」,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연나라의 동쪽 땅들을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다. 고조선과 연나라의 관계가 고조선이 연나라에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고조선과 연나라가 서로의 땅을 뺏고 뺏기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참고 바란다.

## 10) 반론 및 질문 10 :

『관자』의 예맥 기록을 부정한 견해들에 대한 견해는?

발표문에, “예맥 조우 기사는 다른 선진문헌에서 예맥 관련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제 환공의 업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후대 추가되었다고 보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7) 반론 및 질문 7 : 선진(先秦) 문헌의 불인정 이유’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악의적인 주장이다.

『산해경』 「해내서경」에도 예·맥의 맥국(貊國)에 대한 기록이 있다. 즉 “고류(高柳)는 대(代)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고, 고류의 북쪽에 안문산이 있다고 하였으며, 안문산의 북쪽에 방 100리(둘레 400리)의 대택이 있다고 하였고, 대택의 동쪽에 동호가 있다고 하였으며, 동호의 동쪽에 이인(夷人)들이 사는데 맥국이 한수 동북쪽에 있다고 하였다.〔맥국은 지금의 부여국 즉, 예와 맥의 옛 땅이다.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군에서 1,000리를 가면 있다.〕”고 하였다. 이 예·맥국, 부여국 위치는 란하 중·상류 유역 및 요하 상류 유역이고, 대택은 대해(岱海)이고, 대해는 산서성 대동시의 서북쪽에 있다. 이 대해 동쪽에 동호가 있다고 하였으니 동호의 중심지는 대동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sup>17)</sup>

이처럼 서기전 4세기에 존재한 동호의 동쪽에 맥국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서기전 7세기의 제환공 재위시에 예, 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관자』와 『산해경』의 조선, 예, 맥 관련 기록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는?

## 11) 반론 및 질문 11 :

산용은 영지와 고죽의 이북지역에 있지 않았다

발표문에, “환공이 산용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영지와 고죽을 지나야만 하니, 산용은 영지

16)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 222~227쪽.

17)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 227~236쪽.

와 고죽이 위치했던 난하 하류 방면(당산시 일원) 이북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기』 「진본기」에는 “환공이 산융을 정벌하고, 다음에 고죽에 이르렀다.”고 하였고,<sup>18)</sup> 『사기』 「진시황본기」에는 “제나라가 산융과 고죽을 정벌하였다.”고 하였으며,<sup>19)</sup> 『사기』 「봉선서」에는 “환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북으로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을 지나왔다’고 하였다.”<sup>20)</sup>고 하였고, 『사기』 「제태공세가」에는 “북으로 산융, 이지, 고죽을 정벌하였다”<sup>21)</sup> 라고 하였다. 이는 제나라 환공이 산융을 먼저 정벌하고 뒤이어 이지 고죽에 이르거나 정벌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제나라 환공의 산융, 이지, 고죽 정벌 기록을 가지고 산융이 이지(영지), 고죽보다 북쪽에 있었다는 근거, 증거로 삼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석 박사의 견해를 수정할 용의는?

## 12) 반론 및 질문 12 :

### 청동기유물의 고문자를 왜곡 해석하여 만들어 낸 연나라 초기 영역

이후석 박사는 “연나라는 서주 초기 주왕실에 의해 북경 일대에서 처음 건설되었으나 늦더라도 서주 후기 이후에는 주변 이민족의 침략으로 쇠퇴하여 그 세력이 영정하의 이남지역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는 북경(北京) 유리하(琉璃河) 유적으로 대표되는 서주시기 중원문화 유적으로 파악된다. 유리하와 그 주변에는 중원계통의 고성지-거주구-묘장구가 서로 조합되어 위치하고 있고, ‘연후(燕侯)’관련 청동예기류가 다수 출토된 바 있어 문헌 기록대로 서주시기 연의 지배층과 관련된 거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북경(北京) 유리하(琉璃河) 및 대릉하 유역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는 ‘연후(燕侯)’관련 청동예기류가 아니라 ‘연후(匱侯)’라는 고문자를 ‘연후(燕侯)’로 조작한 것임을 밝혀낸 바 있다.<sup>22)</sup>

18) 『史記』卷五「秦本紀」, “桓公伐山戎次于孤竹”

19) 『史記』卷六「秦始皇本紀」, “齊伐山戎孤竹”

20) 『史記』卷二十八「封禪書」, “桓公曰寡人北伐山戎過孤竹”

21) 『史記』卷三十二「齊太公世家」, “北伐山戎離枝孤竹”

22) 김중서, 『신시 · 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단군조선영토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기자 · 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김중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 13) 반론 및 질문 13 :

#### 『전국책』 「연책」의 기록 오기

발표문에, “『전국책』 연책에는 연나라의 문후(文侯; 서기전 4세기 중엽)대에 북쪽에는 ‘산용’과 ‘동호’가 있었으며, 동쪽에는 ‘朝鮮’과 ‘요동’이 각각 위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국책』 연책에는 동호에 대한 기록이 없다. “소진이 문후에게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 임호와 누변이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sup>23)</sup> 산용·동호가 아니라 반대로 동호·산용이 연나라 북쪽에 있다는 기록은 『사기』 「흉노열전」의 “진(晉)나라 북쪽에 임호 누변 등의 용이 있고, 연나라 북쪽에 동호·산용이 있다.”<sup>24)</sup> 라는 기록이다.

혹시 착오가 아닌지?

## 4. 심백강 박사의 발표문

### 고조선시대의 요수(遼水)로 본 요동군,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에 대한 반론

심백강 박사의 ‘고조선시대의 요수(遼水)로 본 요동군,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 대하여 몇 가지 반론만 제기하고자 한다.

#### 1) 역수(易水)가 요수(遼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

고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선이었던 요수(遼水)가 실존할 당시의 중국 역사지리 기록 중에 역수(易水)를 요수(遼水)로 볼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다. 반대로 역수(易水)가 요수(遼水)일 수 없는 기록들이 있다.

『사기』 「소진열전」에 역수(易水)가 등장하고, 『전국책』 「연책」에도 역수(易水)에 대한 동일한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역수라는 강은 서기전 4세기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수는 현재까지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역수(易水) 그대로 불리는 강이다. 그런데 요수가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지리서는 서기전 4세기 이전의 기록인 『산해경』 「해내동경」이고, 그 다음 기록이 전한(서기전 206년~서기 8년)의 회남왕 류안(劉安, 서기전 179~서기전122)이 편찬한

23) 『戰國策』卷二十九「燕一」, “蘇秦將爲從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呼沱易水地方二千餘里”

24) 『史記』 「匈奴列傳」, “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各分散居谿谷自有君長 往往而聚者百有餘戎 然莫能相一”

『회남자』 「지형훈」 편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고조선과 중국 연나라의 국경선 이었던 고대의 요수와 연나라의 남쪽에 있던 역수는 동일한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 서로 다른 강이다.

또한 역수는 연나라 남쪽 지역에 있던 강이다. 즉, 『사기』 「소진열전」에, 소진이 연(燕)나라 군주인 문후(文侯, 서기전 361년~서기전 332년 재위)에게 연나라 남쪽 지방에 호타(呼沱)와 역수(易水)가 있다고 한 기록이 있고, 『전국책』 「연책」에도 소진이 문후에게 연나라 남쪽 지방에 호타(呼沱)와 역수(易水)가 있다고 한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역수가 연나라의 남쪽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로 형가가 연나라 도읍을 떠나 진나라 진왕을 암살하러 역수를 건넜다는 『사기』 「자객열전」의 기록, 진(秦)나라 군대가 연나라 역수의 서쪽을 깨트리고 연나라 도성인 계성(薊城)을 함락시켰다는 『사기』 「진시황본기」 기록 등의 많은 기록이 있다.

또한 『설원』에 제나라 환공이 연나라를 침략한 산옹으로부터 연나라를 구하고, 산옹을 정벌한 후에 고죽을 치러가던 제나라 군대가 건넌 강이 요수였다. 따라서 요수는 연나라 북쪽이나 연나라 동쪽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기』 「소진열전」, 『전국책』 「연책」, 『사기』 「자객열전」, 『사기』 「진시황본기」 등의 기록으로서 역수가 연나라 도읍의 남쪽 지역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연나라 남쪽에 있던 역수와 연나라 북쪽 국경지역이나 동쪽 국경지역에 있던 요수는 동일한 강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백강 박사는 하북성 역현에서 발원하는 역수(易水)를 고조선과 중국 연나라의 국경선인 요수(遼水)라고 주장 하였다. 그 근거는 북주(北周)의 문인인 유신(庾信, 서기 513~581)의 글을 실은 『유개부집전주』의 의영회(擬詠懷) 27수 중에 ‘연나라 자객은 요수(遼水)를 생각하고, …… 슬픈 노래를 부르며 역수를 건너고, 부절을 차고 양관을 나아갔지만 이릉은 이곳에서 떠나갔고, 형경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네 …….’<sup>25)</sup> 라는 시와 『유자산집』의 의영회(擬詠懷) 27수 중에 ‘연나라 자객은 요수(遼水)를 생각하고, ……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요수를 건너고, 부절을 차고 양관을 나아갔지만 이릉은 이곳에서 떠나갔고, 형경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네 …….’<sup>26)</sup>를 근거로 역수를 고대의 요수라고 주장하였다.

25) 『庾開府集箋註』卷四「擬詠懷二十七首」, “燕客思遼水 …… 悲歌度易水 彌節出陽關 李陵從此去 荆卿不復還 …… ”

26) 『庾子山集』卷三「擬詠懷二十七首」, “燕客思遼水 …… 悲歌度遼水 弭節出陽關 李陵從此去 荆卿不復還”

## 연하도와 역수 위치도



연나라와 요동·고조선의 국경선이었던 고대의 요수(遼水)가 사라진지 수백 년도 더 지난 뒤 세대 사람인 유신(庾信)이 역수를 패수로 인식하고 위 시를 썼던, 패수를 역수로 인식하고 위 시를 썼던 위 유신의 시가 역수(易水)가 요수(遼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위 ‘연하도와 역수 위치도’에서 보듯이 연하도 상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연하도를 지난 후,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거마하拒馬河)과 만나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강(거마하拒馬河)과 만난 후, 동쪽으로 흐르다가 북동쪽에서 흘러오는 강(구하溝河)과 만나서 청하(淸河)로 흘러들어가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틀어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동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바다)로 들어간다.

따라서 역수는 ① 위고산의 동쪽에서 흘러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흘러 들어가는 『산해경』 「해내동경」의 요수가 될 수 없고, ② 새외(국경 밖)의 위백평산에서 흘러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새 안(국경 안 : 연나라 장성 안)으로 들어와서 요동군 양평현 서쪽을 지나고, 동남쪽으로 계속 흘러서 요동군 방현 서쪽을 지난 후, 동쪽으로 흘러서 안시현의 서남쪽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수경』의 대요수도 될 수 없고, ③ 변경 지대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물 흐르는 방향을 90°가까이 우측으로 꺾어서) 똑바로 요동의 서남부 지역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회남자』에 대한 주석서인 『회남홍렬해』 「지형훈」편의 요수도 될 수 없다.

## 2) 갈석산이 백석산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

심백강 박사는 “『전한서』, 『통전』, 『태평환우기』에서 말한 갈석산, 갈석궁, 갈석관은 바로 『사기』 「소진열전」의 ‘연나라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다.’라고 말한 그 갈석을 가리킨다. 이 갈석은 오늘날의 호타하, 역수 부근에 있었다. 현재의 하북성 보정시 역현, 서수현 부근의 백석산(白石山)이 바로 이 전국시대 역수 유역의 갈석산이라고 본다.”<sup>27)</sup> 라고 하였다.

산서성 안문관과 산둥성 무체현 갈석산진의 갈석산 위치도



그러나 심백강 박사가 『사기』 「소진열전」의 ‘연나라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다.’라고 한 주장은 역사 기록까지 조작한 역사왜곡이다.

왜냐하면 『사기』 「소진열전」에, “소진이<소진蘇秦> …… 연나라<연燕> 문후를<문후文侯> 만나보고<견見> 말하기를<왈曰>, …… 남쪽으로는<남南> 갈석과<갈석碣石> 안문<안문鴈門>의<의之> 풍요가<요饒> 있습니다<유有>.”<sup>28)</sup>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책』 「연책」에도, “소진이<소진蘇秦> …… 연나라<연燕> 문후에게<문후文侯> 말하기를

27) 심백강,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동북아역사재단, 2016.09. 29. 13쪽.

28) 『史記』卷六十九「蘇秦列傳」, “蘇秦 …… 見說燕文侯曰 …… 南有碣石鴈門之饒”

〈월曰〉, …… 남쪽으로는〈남南〉 갈석과〈갈석礪石〉 안문〈안문鴈門〉의〈의之〉 풍요가〈요饒〉 있습니다〈유有〉.”<sup>29)</sup>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에서 갈석(礪石), 안문(鴈門)이라고만 하였지, 갈석산(礪石山), 안문산(鴈門山)이라고 하지 않았다.

심백강 박사가 갈석산이라고 주장한 백석산(白石山)은 하북성 래원현(涞源縣) 성 남쪽 15km 지점에 있는 산으로 태행산맥(태행산)에 속한 산이다. 또한 안문산은 산서성 대현 북쪽의 안문관이 있는 산으로 태행산맥에 속한다. 백석산과 안문산 사이에는 첩첩산중으로 ‘갈석과〈갈석礪石〉 안문〈안문鴈門〉의〈의之〉 풍요가〈요饒〉’와 거리가 멀다. 또한 백석산과 안문산은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의 기록처럼 연나라 남쪽에 있지 않고, 연나라 도읍의 서북쪽에 있다. 따라서 백석산은 갈석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백강 박사의 갈석산이 백석산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의 ‘갈석(礪石)’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갈석산이 아니라 산둥성(山東省) 무체현(無棣縣) 갈석산진(礪石山鎭)에 있는 갈석산(礪石山)이다.

이 갈석산은 요(堯)임금 때부터 갈석산(礪石山)이라고 불리어 왔으며, 무체산(無棣山), 마곡산(馬穀山), 대산(大山) 등으로 불리기도 한 산이다. 이름만 산이지 그 산의 높이는 해발 63.4m의 아주 작은 동산이다. 아주 작은 동산이지만 광활한 대평원 지대위에 유일하게 솟은 산이기 때문에 그 이름과 역사가 긴 것이다.

구글어스에서 본 ‘산서성 안문관과 산둥성 무체현 갈석산진의 갈석산 위치도’에서 보듯이 산둥성 무체현 갈석산진의 갈석산<sup>30)</sup>과 안문관 동쪽의 태행산맥까지는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때문에 소진이 연 문후에게 “남쪽으로는〈남南〉 갈석과〈갈석礪石〉 안문〈안문鴈門〉의〈의之〉 풍요가〈요饒〉 있습니다〈유有〉.”라고 말한 것이다.

29) 『戰國策』第二十九「燕一」, “蘇秦 …… 說燕文侯曰 …… 南有礪石鴈門之饒”

30) ‘산서성 안문관과 산둥성 무체현 갈석산진의 갈석산 위치도’의 직선 서북쪽 끝 지점이 안문관이고, 직선의 동남쪽 끝지점이 갈석산이다.



서 “요동군이 그 수현인 양평현이 현재의 북경시 창핑구이고 서안평현이 내몽고 적봉시 일대 라면 요서군은 북경시 창핑구로부터 그 남쪽으로 하북성 보정시 역현 일대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한시대에 요서군은 현재의 하북성 서수현 수성진에서 낙랑군 수성현과 접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북경시 서쪽에는 상곡군이 있었으므로 서쪽으로는 탁록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현재의 밀운현 일대에 있던 어양군, 동쪽으로는 현재의 노룡현 일대에 있던 낙랑군 조선현과 경계를 마주하였을 것이다. 한대의 요서군은 하북성 동쪽 발해만 부근과 하북성 남쪽 역수유역에서 낙랑군과 경계가 교차하였을 것이다. 낙랑군은 동쪽은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로부터 서쪽으로는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던 것이다.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과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에 걸쳐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노룡현에 낙랑군의 수현인 조선현이 있었다는 기록이 『진서』와 『위서』에 전하고 있고 낙랑군 25현 중의 하나인 수성현이 현재의 서수현 수성진인 사실이 여러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심백강 박사의 주장을 종합하여 전국시대 연나라 영토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연(燕)나라, 진(秦)나라, 한(漢)나라가 설치한 연나라 5군(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과 한나라가 조선 땅에 설치한 낙랑군의 위치를 그려본 것이 위 ‘**심백강의 주장을 토대로 만든 낙랑군과 연나라 5군 위치도**’이다.

위 지도에서 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의 영역은 (적색) 원형으로 표시하였고, 낙랑군 영역은 (녹색) 곡선으로 표시하였다. 위 ‘**심백강의 주장을 토대로 만든 낙랑군과 연나라 5군 위치도**’에서 보듯이, 심백강 박사는 한(漢)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 위치를 전국시대 연나라의 남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백강 박사의 주장은 연나라와 조선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소진이 연나라 군주에게 말한 연나라 위치, 조선 위치, 요동 위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왜냐하면 아래의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에서 보듯이 소진은 연나라 군주인 문후에게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기』 「소진열전」에, “소진이<소진蘇秦> …… 연나라<연燕> 문후를<문후文侯> 만나보고<견見> 말하기를<왈曰>, ‘연(燕)나라는<연燕> 동쪽으로<동東> 조선과<조선朝鮮> 요동이<요동遼東> 있고<유有>, 북으로<북北> 임호와<임호林胡> 누번이<누번樓煩> 있으며<유有>, 서쪽으로<서西> 운중과<운중雲中> 구원이<구원九原> 있고<유有>, 남쪽으로<남南> 호타수와<호타嚙沱> 역수가<역수易水> 있습니다<유有>. (연나라) 영토는<지地> 사방<방方> 2,000리이고<이천여리二千餘里>, 대갑(帶甲, 갑옷을 입은 장졸)은<대갑帶甲> 수십만이며<수십만數十萬>, 전차(戰車)는<차車> 600<육백六百> 승(대)이고<승

乘), 기마(혹은 기병)는〈기騎〉 6,000〈육천六千〉 필이고〈필匹〉, 조(혹은 식량)는〈조粟〉 수 년을〈수년數年〉 지탱할 수 있으며〈지支〉, 남쪽으로는〈남南〉 갈석과〈갈석礪石〉 안문〈안문鴈門〉의〈의之〉 풍요가〈요饒〉 있습니다〈유有〉.”<sup>32)</sup>라는 기록이 있다.

위 『사기』 「소진열전」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 전국시대의 기록인 『전국책』 「연책」에 있다.<sup>33)</sup>

전국시대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연나라를 나누어 5군(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을 설치한 한(漢)나라 연(燕) 지역에서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하였다는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심백강 박사의 ‘연나라 남쪽에 조선이 있었고, 연나라 땅에 설치한 5군(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의 남쪽에 조선 땅에 설치한 낙랑군이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심백강 박사가 주장하는 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 위치와 낙랑군 위치는 후한의 지리서인 『후한서』 「군국지」의 다음 기록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후한서』 「군국지」 〈기주〉 편에 “조국(조국은 진나라 한단군으로 고제가 이름을 고친 것이다. 낙양 북쪽 1,100리에 있다.) 5성(현)이 있는데 …… 한단(현)”<sup>34)</sup>라는 기록과 『후한서』 「군국지」 〈유주〉 편에 “상곡군(상곡군은 진나라가 설치하였는데 낙양 동북쪽 3,200리에 있다.) …… 어양군(어양군은 진나라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2,000리에 있다.) …… 우북평군(우북평군은 진나라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2,300리에 있다.) …… 요서군(요서군은 진나라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3,300리에 있다.) …… 요동군(진나라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3,600리에 있다.) …… 현도군(현도군은 한나라 무제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4,000리에 있다.) …… 낙랑군(낙랑군은 무제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5,000리에 있다.) …… 요동속국(…요동속국은 낙양 동북쪽 3,260리에 있다.)”<sup>35)</sup>

위 『후한서』 「군국지」 기록에서 보듯이 낙양 동북쪽 2,000리에 어양군이 있고, 낙양 동북쪽 2,300리에 우북평군이 있고, 낙양 동북쪽 3,300리에 요서군이 있고, 낙양 동북쪽 3,600리에 요동군이 있고, 낙양 동북쪽 5,000리에 낙랑군이 있었다. 따라서 낙양으로부터 동북 방향으

32) 『史記』卷六十九「蘇秦列傳」, “蘇秦 …… 見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 南有噶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 南有碣石鴈門之饒”

33) 『戰國策』第二十九「燕一」, “蘇秦將爲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疋 粟支十年 南有碣石鴈門之饒”

34) 『後漢書』卷三十三「郡國二」〈冀州〉“趙國(秦邯鄲郡高帝改名雒陽北千一百里)五城…邯鄲”

35) 『後漢書』卷三十三「郡國五」〈幽州〉, “上谷郡(秦置雒陽東北三千二百里)…漁陽郡(秦置雒陽東北二千里)…右北平郡(秦置 雒陽東北二千三百里)…遼西郡(秦置雒陽東北三千三百里)…遼東郡(秦置 雒陽東北三千六百里)…玄菟郡(武帝置…雒陽東北四千里)…樂浪郡(武帝置…雒陽東北五千里)…遼東屬國(…雒陽東北三千二百里六十里)”

로 낙양 → 어양군 → 우북평군 → 요서군 → 요동군 → 낙랑군 순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백강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낙양 → 낙랑군 → 요서군 → 요동군 → 어양군 → 우북평군 순으로 배치된다. 이로서 심백강 박사가 주장하는 낙랑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 어양군 위치는 한(漢)나라의 지리지인 『후한서』 「군국지」의 기록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임이 명백해졌다.

심백강 박사가 보정시와 그 인근 지역이 한나라 때의 낙랑군 지역이었다고 한 주장의 근거를, ‘수나라의 상곡군 수성현, 당나라의 역주(易州) 수성현이 오늘날의 서수현(徐水縣) 수성진(遂城鎭)이며, 이 수성진이 바로 한(漢)나라의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낙랑군 25개 현 중에 가장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한 낙랑군 수성현이 현재의 하북성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서쪽 경계에 위치했던 패수는 당연히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부근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들었다.<sup>36)</sup>

이러한 심백강 박사의 주장은 북위의 역도원(酈道元, 466년?~527년)이 고구려 평양의 또 다른 지명이 낙랑(樂浪)이라고 하여 평양을 한나라 낙랑군이었다고 하고, 고구려 때의 대동강의 이름이 패수(溍水)였다고 대동강이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 이었던 패수라고 왜곡한 것과 같은 역사왜곡으로 보인다.

본문 대부분은 필자의 선행 연구서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2권,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단군조선 영토연구』, 『기자·위만조선 연구』,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부여·고구려·백제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를 달아서 출전을 밝혀야 하나 시간 부족 관계로 별도의 각주를 달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6) 심백강,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한(漢)의 경계 패수는 어디인가?』, 동북아역사재단, 2016.06.21. 117~119쪽.



##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 요서군과 한사군의 낙랑

박준형 (연세대)

### 1. 『사고전서』의 문제

1쪽 4째 문단에서 발표자는 “오늘 발표자는 『사고전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의 요녕성의 요하와 고조선시대의 요하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전혀 다른 강이며”라고 하면서 『사고전서』에 수록된 자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고전서』는 청 건륭제 시기에 3,503종, 79,337권의 책을 모은 대형 叢書이다. 『사고전서』는 판각하는 과정에서 오류[오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고전서』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사고전서』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 아니라면 굳이 『사고전서』를 언급하기보다는 개별 문헌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머리말 둘째 문단에서 “요녕성의 요하를 기준으로 고조선시대 즉 연, 진, 한대의 요동군과 요서군을 비정하는 것이 기존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하였다(각주1번 노태돈 견해 인용). 그러나 요하를 기준으로 요서 · 요동을 구분하는 것은 후대의 일이다. 『한서』 지리지(A.D.2년 기준) 요동군 西部都尉治가 있는 無慮縣의 명칭은 醫巫閭山에서 나온 것으로 그 위치는 대체로 오늘날 의무려산 동쪽기슭에 있는 北鎮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된다. 요동군이 요하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나온 『중국역사지도집1·2』에서도 의무려산을 기준으로 요서군과 요동군을 나누고 있다. 고조선사에서 요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요서군과 요동군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3. 2쪽 2째 문단 “고조선시대에는 요녕성에 요하라는 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의 요하는 고조선시대에는 요하가 아니라 구려하句驪河로 불렸다.”고 하였다. 『흙정성경통지』 권16 皇上聖製 詩 渡句驪河를 설명하기를 “志稱今遼河 乃古之句驪 枸柳及巨流 訛傳日以滋合流 東

入海 其源頗可稽”라고 하고 細註에 “聖京志稱遼河卽古句驪河也 一作枸柳河 謂是枸河柳河合流之處 今作巨流河…”라고 되어 있다. 즉, 요하는 옛 句驪河이며 枸柳河라고도 하는데 枸河와 柳河가 합류하는 곳을 일러 지금 巨流河라고 한다는 것이다. 句驪河=枸柳河는 구하와 류하가 합류된 것에서 유래한 것이지, 고구려의 구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구려하를 고조선시대 강명으로 보면서 전개하는 발표자의 주장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

4. 『산해경』의 潦水는 현재의 遼河가 아닌 虛沱水와 濟水 사이를 지나는 漳水에 해당된다. 『산해경』을 주석한 곽박도 “潦陽縣屬潦東”이라고 했지 이를 遼陽, 遼東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대 吳任臣이 潦陽을 遼陽으로 본 것 뿐이며 그의 견해가 맞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潦水와 遼水를 일치시켜 이해하는 발표자의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

5. 居庸關을 만리장성의 동쪽 관문으로 보는 견해의 오류

발표자는 거용관을 북경 서쪽 50km 떨어진 昌平區 경내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곳을 만리장성의 동쪽 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남자』에서 언급한 九塞라는 것이 진이 쌓은 장성 중에 대표적인 塞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국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秦은 남월, 동월까지 郡縣으로 편제했다. 그러나 『회남자』에서 언급한 9새에는 이들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발표자가 인용한 高誘의 『회남자』 주석에는 “令疵在遼西”라고 하여 令疵[令支]를 후한대의 요서에 있다고 되어 있다. 발표자는 앞절에서 요서·요동군의 위치를 제수와 호타수 사이에 비정했다. 발표자의 논리대로 한다면 요서에 있는 令疵를 하북성과 산동성 사이에 있는 塞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5쪽에서 “『회남자』와 『여씨춘추』에 나오는 천하 9새에 산해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한나라 이전에는 거용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었으며 그 밖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주요한 근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令疵 밖에 있는 산동지역은 진시황대 중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것은 요서를 무리하게 하북성과 산동성 사이에 비정함으로써 사료와 모순되는 해석을 낳게 된 것이다.

6. 『산해경』의 요수는 백평산 동쪽에서 발원한다.

발표자는 6쪽 마지막 문단에서 “『산해경』에는 “요수는 백평산 동쪽에서 발원한다(遼水出自平東)”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가 확인해 본 결과 『산해경』에서 “遼水出自平東”이라는 내용은 없다. 다시 확인 바란다. 또한 『수경』의 大遼水와 小遼水는 오늘날 시라무렌하를 포함하는 遼河와 渾河를 지칭하는 강이다. 『산해경』의 潦水와는 전혀 다른 강이다.

7. 8쪽. 발표자는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북쪽으로 요수를 지나서 지금의 북경시 서북쪽의 거용관 부근에서 멈추었고 거기서 더 이상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산해관 일대로부터 그 이동은 모두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서 쌓은 만리장성이 뚫고 지나간 북방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가 아닌 하북성의 거용관 남쪽에 있던 다른 강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발표자는 북경시 서북쪽의 거용관 이동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적봉지역에 장성유적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진나라 유물[진도량형, 그림 참조]과 산해관 이동 요령성 綏中縣에서 발굴된 秦行宮유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발표자의 견해대로 한다면 고조선유적에서 진시황이 행궁했던 유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적봉 蜘蛛山유적 출토 秦 陶量(좌)과 松山區 三眼井 출토 鐵權(우)

## 8. 고죽국의 遼水 문제

발표자는 북위 역도원(466(472??)~527)의 『수경주』 濡水조에 인용된 백이숙제 고사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한 영제대 고사에 이어 이를 다시 수록한 『晉書』 地道志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수경주』에서 濡水는 오늘날 灤河에 해당한다. 난하유역의 노룡현, 천안현 인근에 백이숙제가 있었던 고죽, 영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발표자도 지적한 것처럼 후한대 고사에서는 ‘遼海’[渤海]로 되어 있는 것이 『晉書』에서는 ‘遼水’로 되어 있다. 발표자는 遼海를 遼水로 보면서 하북성 노룡현 근처에 요수가 있었으며 그것은 고대 요수가 현재 요하가 아닌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遼海를 遼水로 볼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 앞의 고사는 (후)한대이고 뒤의 것은 晉代[西晉: 265~316, 東晉: 317~418]의 것이다. 두 개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전자가 앞서기 때문에 전자의 내용이 고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고사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遼海[渤海]가 遼水로 바뀐 것이다. 한편 현존하는 『晉書』에는 ‘地道志’가 아니라

‘地理志’로 되어 있으며 『수경주』에 서술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존하는 『진서』는 唐代인 644년에 편찬된 것으로 북위 역도원이 인용한 『진서』와는 다르다.

이 고사는 『수경주』 濡水조에 수록되어 있다. 유수가 오늘날 난하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원래 ‘요해[발해]’를 ‘요수’로 변형되어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고죽국이 있었던 난하[유수]를 요수로 보고, 고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와 다른 강이라고 하는 사례로 든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 9. 『春秋別異』의 遼水

발표자는 명나라 때 학자 설우기와 설우빈이 편찬한 『춘추별이』(『사고전서』 수록) 권2에 수록된 제환공의 고죽정벌 기사에 언급된 遼水를 주목하였다(12~13쪽). 발표자는 『춘추별이』는 전국시대에 저술된 이른바 ‘春秋三傳’(좌전, 공양전, 곡량전)에 수록되지 않은 춘추시대 자료를 따로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춘추별이』에서 언급한 요수 관련 내용은 춘추삼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고사와 비슷한 내용이 『管子』 小問편에 수록되어 있지만 遼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사의 가장 원형을 갖추고 있는 춘추삼전과 『관자』에도 없는 내용이 갑자기 2000여년 지난 明代에 편찬된 자료에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제환공대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10. 北京市 昌平區를 요동군 襄平縣으로 본 오류

발표자는 “첫째 『전한서』 「지리지」 요동군 양평현 조항에 “양평현, 목사관이 있다. 왕망은 창평이라고 하였다.(襄平有牧師官 莽曰 昌平)”라는 기록이 나온다. 즉 서한시대의 양평현을 서한말기 신조新朝를 세운 왕망이 창평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 바뀐 창평현이란 지명이 지금까지 북경시 서쪽에 그대로 전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경시 창평구 지역에 창평이라는 지명이 계속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후한서』 郡國志 幽州 廣陽郡조에 “昌平故屬上谷”이라고 하여 북경 근처에 昌平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창평현은 廣陽郡의 속현으로서 창평현이지 요동군의 속현으로서 창평[양평]이 아니다. 昌平은 “昌平故屬上谷”이라고 하여 옛 상곡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북경 위쪽의 창평구는 연·진·한대 요동군이 아니라 상곡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동군치 양평현은 현재 遼陽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요양 하맥와 매납유적 출토

‘襄平’명 포전과 요양 삼도호 취락유적 출토 ‘昌平’명 도옹편이다. 이외에도 대안 백성자 유적에서는 전형적인 전국연의 청동무기와 철검등이, 요양과 심양 일대에는 반와당이 적지 않게 출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석 선생님의 이전 발표문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가 있다(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2016.9.29.,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토론회 자료집, 73쪽. 아래 그림 참조)



요동지역 전국연묘 출토유물과 ‘襄平’관련 자료(이후석, 위의 자료집, 73쪽)